
III

지역경제 연구

1. 광주·전남지역 자영업 경영여건 및 정책적 시사점	109
2. 엔데믹 이후 제주지역 관광경기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여건 점검	136
3. 이상기후가 전북지역 실물경제 미치는 영향	161

1. 광주·전남지역 자영업 경영여건 및 정책적 시사점¹⁾

요약

최근 광주전남지역 자영업은 자영업자 수가 증가하고 경쟁이 심화되며, 60대 이상 고령층 자영업자의 비중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업체당 사업소득이 감소하는 등 규모가 영세화되고 업황이 부진하였으며, 그 결과 자영업 부채 또한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에 본 고에서는 자영업 경영상황을 악화시킨 여건 변화를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보았다.

자영업 제품과 서비스의 수요여건을 살펴보면, 광주전남지역 성장둔화는 임금근로 일자리 창출여력을 약화시켜 자영업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타지역 대비 고용안정성이 낮은 점도 자영업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된 부가가치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소득유출과 소비의 역외유출도 광주·전남지역 자영업 제품과 서비스의 수요를 약화시키고 있다. 한편, 인구 규모가 감소하고 고령층 비중이 늘면서 지역 내 총 소비 규모가 줄어드는 점도 자영업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위축시키고 있다.

반면 구직자들의 자영업 진입은 확대되고 있다.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상당수가 퇴직 이후 자영업에 진입한 가운데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의 정년퇴직 시점이 다가오면서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자영업 진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광주·전남지역은 20~30대 개인사업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청년고용 부진이 지속된다면 적합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층의 자영업 진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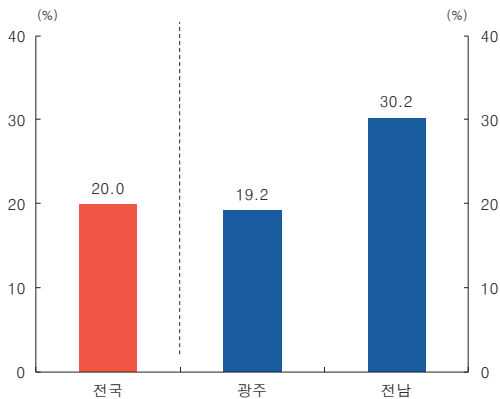
종합적으로 보면, 성장둔화, 소비유출 및 인구구조 변화는 수요측면에서 자영업 매출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 퇴직과 청년고용 부진은 자영업 공급을 증가시켜 경쟁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영업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정주여건 개선, 전자상거래 활용 제고 및 관광소비 유입 도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구직자들의 자영업 진입 완화를 위해서는 창업교육 및 폐업지원을 통한 과잉경쟁 완화와 중·고령층 재취업 지원을 통한 자영업 진입 완화 유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본 분석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며 집필자 개인의견임을 밝힙니다. 분석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저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자(선진산 과장 js.sun@bok.or.kr, 안중섭 과장 joongseop.ahn@bok.or.kr, 김민수 조사역 kkms@bok.or.kr)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I. 검토배경

광주·전남지역 자영업은 고용의 중요한 축임과 동시에 가계부채 증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23년 광주·전남지역의 고용지표를 보면 광주의 자영업자 수가 14.8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9.2%이며, 전남의 자영업자 수는 30.8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30.2% 수준을 기록하였다. 또한 자영업체에 종사하는 무급가족종사자²⁾와 임금근로자³⁾까지 고려하면 자영업이 담당하는 고용은 이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 측면에서도 광주와 전남의 자영업 부채가 가계 및 기업대출 총계의 33.1%와 40.3%를 차지하는 등 지역신용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1. 취업자 중 자영업자¹⁾ 비중



1) 2023년 기준
자료: 통계청

하지만 광주·전남지역 자영업은 코로나19 이후 규모가 축소되는 가운데, 소득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하는 등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중 경기둔화에 따른 임금일자리 감소, 금리인하에 따른 금융비용 하락 등이 자영업 진입을 증가시켜 경쟁을 심화한 것으로 관측된다. 고령 퇴직임금근로자의 자영업 창업과 청년인구 유출 등 인구구조 변화 또한 자영업 여건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광주와 전남 모두 규모가 영세한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자영업 부채 규모와 차주 수가 증가하였다. 아울러 소비심리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업황 부진⁴⁾이 지속되고 있다. 더불어, 디지털경제 확산, 비대면 소비 증가 등 자영업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환경도 크게 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의 특징적 변화를 살펴본 후 자영업 경영여건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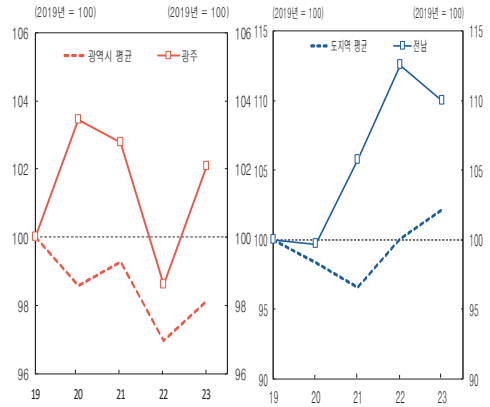
2) 광주와 전남 자영업체에 종사하는 무급가족종사자는 각각 2.3만명, 8.1만명이다.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은 광주 22.2%, 전남 38.2%이다.(2023년 기준)
3) 4인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35.1%를 차지하였다.(2023년 전국 기준)
4) 2023년 평균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는 광주 62.2, 전남 63.3으로 기준치인 100을 크게 하회하는 모습이다.

II. 최근 광주·전남지역 자영업 현황

1. 자영업자 수 증가

광주와 전남의 자영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자영업 내 경쟁이 심화되었다. 코로나19 이후(19년 대비 23년, II절 내 이하 동일) 광주(19년 14.5만명 → 23년 14.8만명)와 전남(19년 28.0만명 → 23년 30.8만명)의 자영업자가 각각 2.1%와 10.0% 증가한 가운데 인구대비 자영업자(자영업자/천명, 이하 '밀집도')도 각각 4.5명과 20.4명 증가하였다. 타 지역과 비교해 보면 광주와 전남의 자영업자 증가율은 각각 광역시(광주제외, II절 내 이하 동일, -1.9%)와 도지역(전남제외, II절 내 이하 동일, 2.1%)의 평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밀집도 증가분 또한 광주와 전남이 각각 광역시(+0.4명)와 도지역(+1.7명)의 증가분을 큰 폭 상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광주와 전남 취업자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광주 19.2%, 전남 30.2%로 광주는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전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⁵⁾

그림 2. 지역별 자영업자 수 추이



자료: 통계청

지역별 자영업 밀집도¹⁾ 변화

	2019(A)	2023(B)	B-A
광주	99.4	103.9	4.5
광역시	97.9	98.3	0.4
전남	149.7	170.1	20.4
도지역	119.2	120.9	1.7

주: 1) 인구 천명당 자영업자 수(자영업자/천명)

자료: 통계청

2. 자영업자의 고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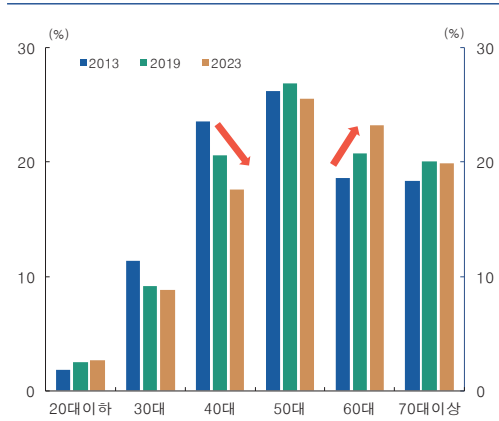
광주와 전남 모두 60대 이상 고령층⁶⁾ 자영업자 비중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 광주(19년 22.6% → 23년 26.6%)와 전남(19년 49.3% → 23년 52.7%)의 고령층 자영업자 비중이 더욱 확대된 모습이다. 타 지역과 비교해보면 2023년 기준 광주는 고령층 자영업자 비중이 광역시 평균(28.4%)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전남은 고령층 자영업자 비중이 도지역 평균(38.2%)을 큰 폭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2019년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광주 19.3%, 전남 28.7%

6) II절 내에서 고령층은 60대 이상을 의미한다.

전체 인구의 고령층 비중을 고려하더라도 전남은 자영업 내 고령층 비중이 높은 수준이다. 2023년 전남의 고령층 인구 비중(19년 38.5% → 23년 46.2%)이 2019년 대비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자영업 내 고령층 비중(19년 49.3% → 23년 52.7%)을 하회하고 있다. 광주는 고령층 인구 비중(19년 23.1% → 23년 28.7%)과 자영업 내 고령층 비중(19년 22.6% → 23년 26.6%)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그림 3. 광주·전남 연령별 자영업자 분포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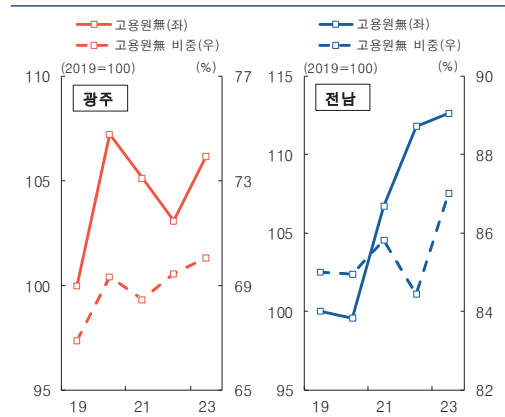
주: 1) 당해년 상반기 기준
자료: 통계청

3. 자영업 규모 영세화

광주와 전남 자영업 모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증가하는 등 규모가 영세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광주(19년 9.7만명 → 23년 10.3만명)와 전남(19년 23.8만명 → 23년 26.8만명)이 각각 6.2%와 12.6% 증가하였다. 하지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광주(19년 4.8만명 → 23년 4.4만명)와 전남(19년 4.2만명 → 23년

4.0만명)이 각각 8.3%와 4.8% 감소하였다. 자영업 내 고용원 유무 비중을 보면 코로나19 이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이 광주(19년 66.9% → 23년 70.1%)는 3.2%p, 전남(19년 85.0% → 23년 87.0%)은 2.0%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 지역과 비교해보면 전체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이 광주는 광역시 평균(23년, 71.7%)을 하회하였으나, 전남은 도지역 평균(23년, 78.2%)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광주·전남 고용원無 자영업자 변화



자료: 통계청

코로나19 이후 광주(19년 15.0백만원 → 22년 13.6백만원)와 전남(19년 13.6백만원 → 22년 12.6백만원) 자영업자의 평균 사업소득⁷⁾도 감소하였다. 업체당 사업소득을 타지역과 비교해보면 광주는 광역시 평균(19년 15.5백만원 → 22년 14.2백만원)을 하회하고, 전남은 도지역 평균(19년 13.6백만원 → 22년 12.3백만원)을 소폭 상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광주와 전남의 사업소득을 임금소득과 비교해보면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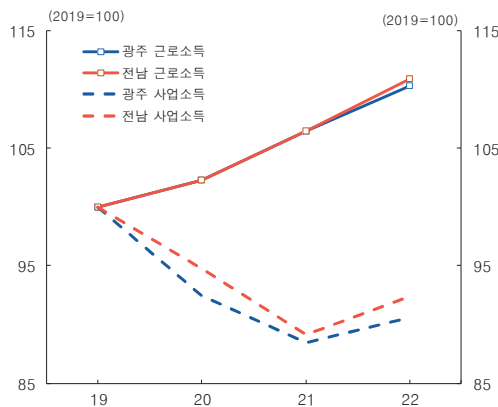
7) 종합소득세 납부를 위해 추계하는 소득으로, 아래 식 ① 또는 ② 방식으로 계산한다.

①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② {수입금액 × (1-단순경비율)} × 배율

영업자의 평균 사업소득 증가율이 광주와 전남 모두 임금근로자의 평균 임금소득 증가율을 큰 폭 하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5. 광주·전남지역 근로·사업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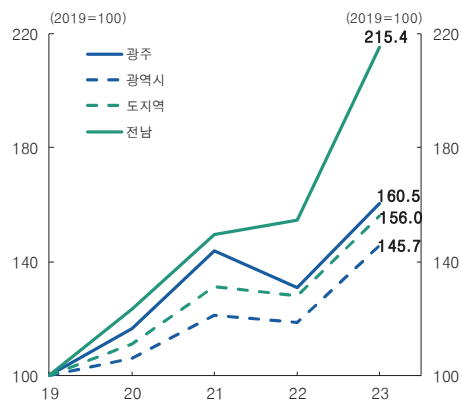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4. 업황회복 부진

광주·전남지역 자영업은 업종마다 다소 상이하지만 타 지역 대비 업황회복이 부진한 편이다. 광주는 도소매와 숙박음식 매출⁸⁾이 2020년 대비⁹⁾ 각각 4.7%, 15.0% 증가하였지만 광역시 평균 증가율(도소매 +5.9%, 숙박음식 +20.0%)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인서비스(+15.3%)의 경우 광역시 평균(+7.0%)을 상회하였다. 전남은 도소매, 숙박음식 및 개인서비스 매출이 2020년 대비 각각 0.3%, 16.2%, 6.4% 증가하였으나 모두 도지역 평균 증가율(도소매 +4.2%, 숙박음식 +21.4%, 개인서비스 +7.1%)을 하회하였다.

업황 회복이 부진함에 따라 자영업 폐업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19년 18.8백건 → 23년 30.1백건)는 폐업공제금¹⁰⁾ 수령 건수가 2019년 대비 60.5% 증가하며 광역시 증가율(+45.7%)을 상회하였다. 전남(19년 13.8백건 → 23년 29.8백건)도 폐업공제금 수령 건수가 115.4% 증가하여 도지역 증가율(+56.0%)을 크게 상회하였으며,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그림 6. 광주·전남 폐업공제금 수령 건수¹⁾



주: 1) 노란우산공제회 폐업공제금 수령 건수 기준
자료: 노란우산공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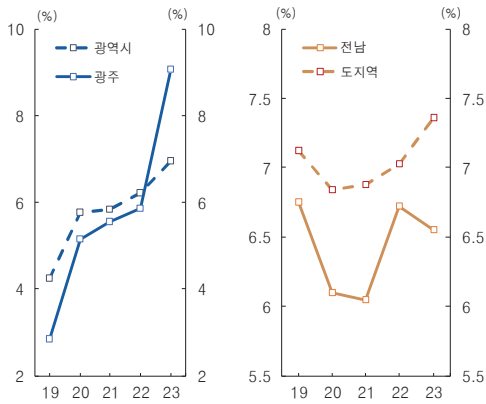
또한 광주는 소규모 상가¹¹⁾ 임대료가 2019년 대비 하락하였음에도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6.2%p 증가(19년 2.9% → 23년 9.1%)하여 광역시 평균 공실률을 상회하였다. 전남은 2019년 대비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0.2%p 하락(19년 6.8% → 23년 6.6%)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8) 서비스업 생산 불변지수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9) 통계청 서비스업 생산지수 통계가 2020년 기준으로 개편된 점, 코로나19 확산 이후 회복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본 단락은 2020년 대비 2023년 증감을 통계를 사용하였다.

10) 자영업 폐업 시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부금액에 이자를 적용하여 지급받는 목돈을 의미한다.

11)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주 용도가 상가(제1, 2층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이면서 2층 이하고 연면적 330㎡ 이하인 일반건축물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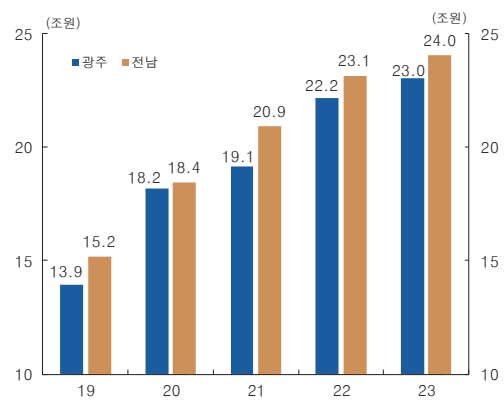
그림 7. 광주·전남 소규모 상가 공실률¹⁾

주: 1) 소규모(2층 이하 및 330㎡이하) 상가 기준
자료: 통계청

5. 자영업 부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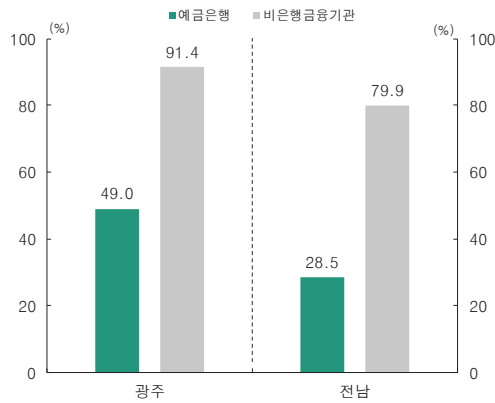
광주와 전남의 자영업자 부채는 코로나19 기간 중 빠르게 증가하였다. 광주(19년말 13.9조원 → 23년말 23.0조원)와 전남(19년말 15.2조원 → 23년말 24.0조원)의 자영업자 부채는 각각 9.1조원, 8.8조원 증가하였는데, 증가율은 광주가 65.4%로 광역시 평균(46.6%)을 상회한 반면, 전남은 58.3%로 도지역 평균(62.9%)을 하회하였다. 다만 광주(19년말 5.0만명 → 23년말 8.0만명)와 전남(19년말 6.8만명 → 23년말 11.5만명)의 차주 수가 2019년 대비 각각 3.0만명과 4.7만명 증가해, 1인당 부채 규모는 광주(19년말 2.8억원 → 23년말 2.9억원)와 전남(19년말 2.2억원 → 23년말 2.1억원) 모두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1인당 부채의 경우 광주와 전남이 각각 광역시 평균(23년말, 3.5억원)과 도지역 평균(23년말, 3.1억원)을 하회하였다.

그림 8. 자영업자 부채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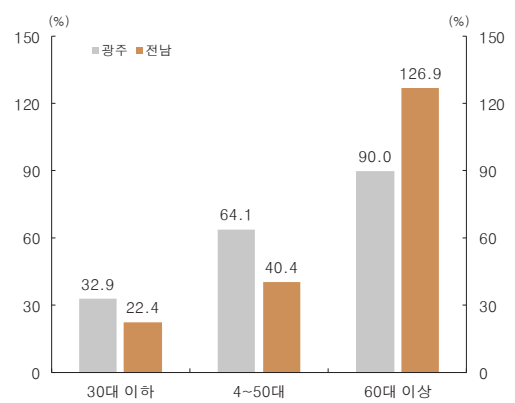
자료: 가계부채DB

광주와 전남 모두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자영업자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코로나19 이후 예금은행 부채가 4.2조원, 비은행금융기관 부채가 4.9조원 증가하였으며, 전남은 예금은행 부채가 1.8조원, 비은행금융기관 부채가 7.0조원 증가하였다. 광주와 전남 모두 비은행금융기관의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19년말 대비 23년말, 광주 91.4%, 전남 79.9%)이 예금은행 증가율(19년말 대비 23년말, 광주 49.0%, 전남 28.5%)을 큰 폭 상회하였다. 2023년말 기준 자영업자 총부채 가운데 비은행금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광주 44.8%, 전남 65.8%로 2019년말 대비 6.1%p, 7.9%p 상승하였으며 각각 광역시(35.8%)와 도지역(46.2%) 평균 비중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9. 업권별 자영업자 부채 증가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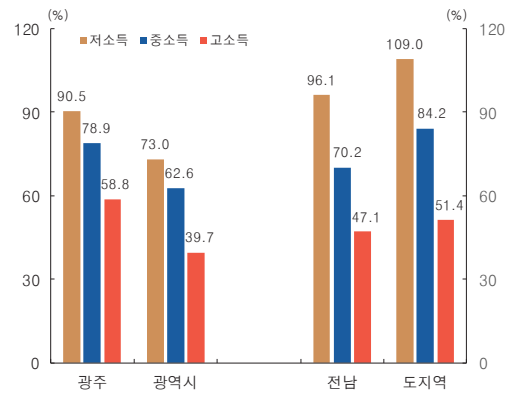
주: 1) 19년말 대비 23년말 증가율
 자료: 가계부채DB

연령별로는 광주와 전남 모두 60대 이상 고령층 자영업자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부채는 광주(19년말 2.3조원 → 23년말 4.4조원)와 전남(19년말 3.0조원 → 23년말 6.7조원)이 각각 2.1조원, 3.7조원 증가하였으며, 고령층 자영업 부채 비중도 광주(19년말 16.6% → 23년말 19.2%)가 2.6%p, 전남(19년말 19.5% → 23년말 28.5%)은 9.0%p 증가하였다. 부채 증가율 측면에서도 코로나19 이전 대비(19년말 대비 23년말) 60대 이상 자영업자 부채가 광주는 90.0%, 전남은 126.9% 증가해 여타 연령대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였다. 연령별 차주 수를 기준으로 살펴봐도, 광주와 전남 모두에서 60대 이상이 타 연령에 비해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0. 연령별 자영업자 부채 증가율¹⁾


주: 1) 19년말 대비 23년말 증가율
 자료: 가계부채DB

소득수준별¹²⁾로 보면 코로나19 이후 자영업 규모가 영세화되면서 광주와 전남 모두 자금 사정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 및 중소득 차주를 중심으로 부채가 증가하였다. 소득수준별 부채 증가율을 살펴보면 광주와 전남 모두 저소득과 중소득 차주의 부채 증가율이 고소득 차주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 소득수준별 자영업자 부채 증가율¹⁾


주: 1) 19년말 대비 23년말 증가율
 자료: 가계부채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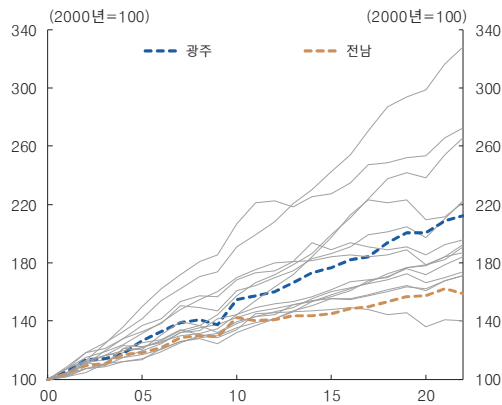
12) 가계부채DB상 전체 차주 중 소득 하위 30%, 중위 40%, 상위 30% 차주를 각각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으로 분류하였다.

Ⅲ. 광주·전남지역 자영업 경영여건

1. 성장둔화와 고용여건 악화, 근로소득 유출

광주와 전남은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자영업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기반이 약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자영업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임금근로일자리, 소득여건 등에 기반하는데 성장잠재력 하락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여건 개선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경제성장 둔화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지만, 전남은 성장둔화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면서 2000년 이후 평균 성장률이 전국에서 매우 낮은 모습이다.

그림 12. 2000년 이후 지역별 GRDP 변화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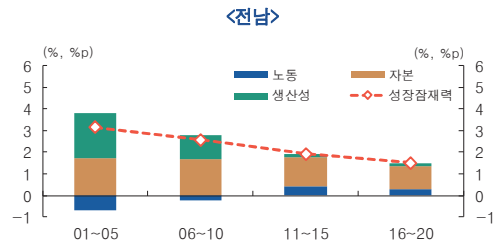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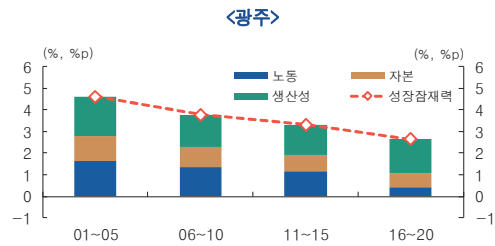


주: 1) 회색실선은 여타 광역시·도를 의미한다.
자료: 통계청, 저자 계산

특히 전남은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¹³⁾ 개선이 더디게 이루어지

며 향후 성장잠재력 반등을 제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는 꾸준히 TFP가 개선되면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이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노동과 자본투입이 감소하여 중·장기적으로 성장률 둔화 추세가 이어지면서 자영업 제품과 서비스 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림 13. 성장잠재력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¹⁾



주: 1) Cobb-Douglas 생산함수를 기반으로 성장잠재력에 대한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TFP)의 기여도를 추정한 결과로 박범기·안중섭·김민수(2024)의 결과를 이용하였다. 노동투입은 취업자 수를 이용하였다. 자본스톡은 자산별 감가상각률을 추정한 다음 국부통계조사(1997년) 결과를 바탕으로 자본 축적식을 이용해 계산하였다. 노동소득 분배율은 이준영·송우경(2023)과 동일한 값을 사용하였다.
자료: 박범기·안중섭·김민수(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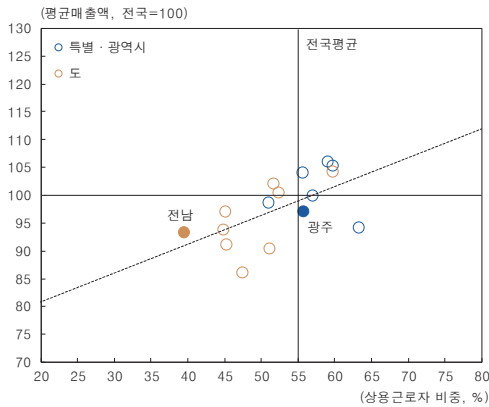
광주, 전남은 전체 일자리 가운데 임금근로자 비중이 낮고¹⁴⁾ 자영업자 평균 매출액도 높지 않았다. 특히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높아 안정적인 구매력을 보유할 것으로 생각되는 상용근로자가 전체 취업자

13) 총요소생산성은 생산 가운데 노동과 자본투입에 기인하지 않는 부분으로 경제의 전반적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서 제도, 기술수준, 문화 등과 같은 개념을 포괄한다.

14) 2023년중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임금근로자 비중은 광주가 77.8%, 전남이 61.8%를 기록하였다.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광주 57.3%, 전남 40.4%로 여타 특별·광역시, 도지역에 비해 낮았다. 상용근로자 비중이 높은 지역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의 평균 매출액도 대체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상용근로자로 분류되는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으면 자영업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부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자영업 내에서의 경쟁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성장둔화는 상용근로자를 중심으로 임금근로 일자리를 감소시켜 자영업 업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¹⁵⁾

그림 14. 서비스업 개인사업체 매출¹⁾과 상용근로자 비중에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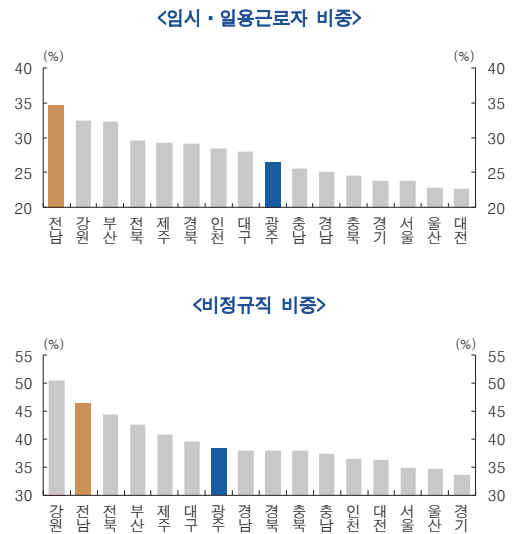
주: 1) 2021-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체의 매출액을 추정하였으며, 전국 평균을 100으로 두었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청, 저자 추정

중상상지위, 근로형태, 급여 등의 측면에서 임금근로자의 고용안정성과 소득여건이 다소 열악한 점도 자영업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

기반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2023년중 임금근로자 가운데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은 광주가 26.4%로 전국 평균을 소폭 상회하였고, 전남은 34.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낮은 고용안정성과 적은 근로시간으로 인해 급여수준이 낮은 일자리가 다수 존재함을 의미한다. 근로형태를 살펴보면 비정규직 비율은 두 지역 모두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으며, 특히 전남에서 매우 높았다. 임금근로자의 급여수준은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 모두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¹⁶⁾ 이처럼 일자리의 질이 낮은 것은 자영업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림 15. 지역별 임금근로자 가운데 임시·일용근로자 비중과 비정규직 비중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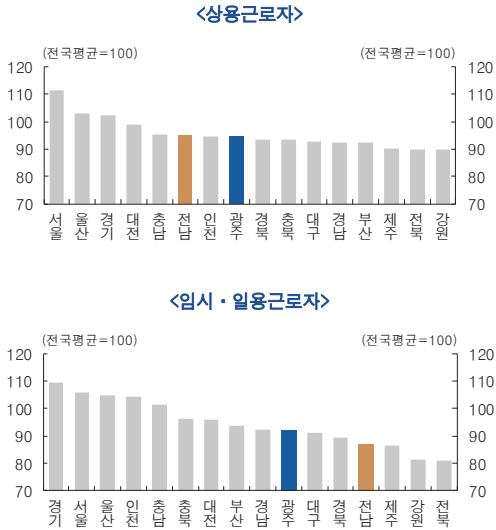
주: 1) 임금근로자 가운데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은 2023년 기준이며, 비정규직 비중은 2023년 8월 기준이다.

자료: 통계청

15)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임금근로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자영업자 비중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주동현·노원중·손종철(2013)은 우리나라 지역별 자영업자 비중과 소득 간 역의 관계가 관찰된다고 주장한다.

16) 한편, 이는 중상상지위 이외에 경력, 기업규모 등 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타 요인들의 영향을 통제한 결과는 아니기에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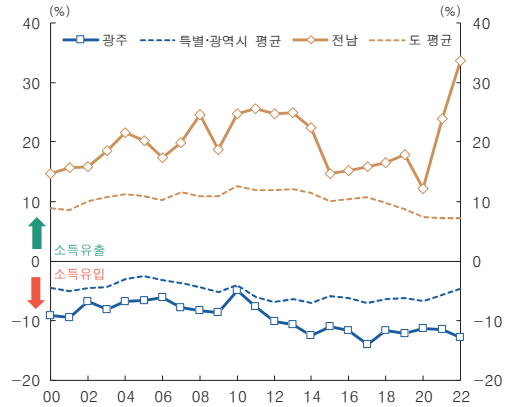
그림 16. 지역별 임금근로자의 급여수준¹⁾



주: 1) 2022년 상·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_C형」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지역별(거주지 기준)로 최근 3개월간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수준을 추정하였으며, 전국 평균을 100으로 두었다.
 자료: 통계청, 저자 추정

지역에서 생산한 부가가치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인 소득유출도 자영업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기반을 약화시키는 원인이다. 지역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에서 생산한 부가가치가 외부로 유출되면서 지역 내 소비로 연결되는 고리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도 지역은 소득이 유출되고, 특별·광역시는 소득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다. 전남 또한 소득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고 광주는 소득이 유입되고 있다. 그러나 전남의 경우 소득유출 비율이 여타 도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1인당 생산수준은 높은 반면, 개인소득은 낮았다. 소비는 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전남지역의 낮은 개인소득은 지역 소재 자영업 매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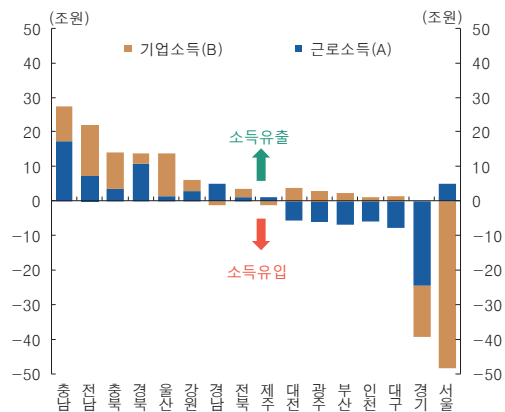
그림 17. 광주·전남지역 소득유출입 비율¹⁾



주: 1) 소득유출입 비율은 $\frac{((1인당 GDP - 1인당 GNI) / 1인당 GDP) \times 100}{100}$ 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동 비율이 양(+)의 값을 가지는 경우 소득유출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별·광역시와 도 평균 수치는 해당 그룹에 속하는 행정구역의 소득유출입 비율을 평균한 값을 활용하였다.
 자료: 통계청, 저자 추정

한편, 근로소득과 기업소득의 유출입 규모를 추정해본 결과 전남은 근로소득이 유출되고 있지만 광주는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소득은 두 지역 모두에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8. 지역별 근로·기업소득 유출입 규모 추정결과¹⁾



주: 1) 임성운·이한술(2023)의 방법론을 참고해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 등을 기반으로 2021년중 지역별 근로소득과 기업소득의 유출입 규모를 추정하였다.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저자 추정

전남에서 근로소득이 유출되고 있는 현상은 지역에서 생산된 부가가치가 전남 소재 자영업자의 매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근로소득은 자영업 매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근로소득 유출은 근로자의 생산과 소비활동이 이루어지는 지리적 공간의 불일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근무지가 전남이지만 거주지는 다른 지역이면 근로소득이 유출되게 된다. 이 경우 거주지를 중심으로 소비가 이루어지면 전남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타지역에 소재한 자영업자의 매출로 이어질 수 있다.¹⁷⁾

전남에서 근로소득이 유출되는 주된 이유는 취업자의 근무지와 거주지가 불일치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020년 기준으로 전남의 순비거주취업인구 비중은 4.1%로 분석되었다. 이는 전남에서 근무하는 취업자 가운데 다수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남은 모든 권역에서 근무취업인구가 거주취업인구를 초과하고 있다. 목포, 순천이 정주도시로 기능하는 서남권, 동부권과 달리 중부권은 순비거주취업인구 비중이 특히 더 높은 모습이다. 이는 전남 중부권이 주변지역에 대한 정주도시로 기능하는 광주에 인접해 있어 광주에서 통근하는 취업인구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광주의 순비거주취업인구 비중은 -6.2%로 거주취업인구가 근무취업인구를 상회하고 있다. 이처럼 근무지와 거주지의 불일치에는 교육, 의료, 주거, 문화 등의 정주여건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광주는 높은 수준의 생활 인프라를

갖춘 반면, 전남은 광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판단된다.¹⁸⁾

참고 1

전남지역의 세부 권역 구분

본고에서는 생활권, 경제구조 등을 바탕으로 전남지역을 동부권, 서남권, 중부권 등 세 권역으로 구분한다. 각각의 권역에 속하는 지역은 아래와 같다.

- 동부권: 여주시,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 서남권: 목포시,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중부권: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한편, 근로소득과는 다르게 기업소득 유출이 지역민의 소득여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기업소득 유출은 지역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생산시설 등의 본사 소재지가 광주, 전남 이외 지역인 것에 주로 기인한다. 이는 기업소득 유출이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기업의 연구·생산시설을 지역에 유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소득이 유출되는 현상 그 자체는 가계의 본원소득 및 후생과는 유의미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¹⁹⁾

17) 이는 지역 거주자가 재화, 서비스의 구입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소비를 하면서 발생하는 소비유출과는 다른 개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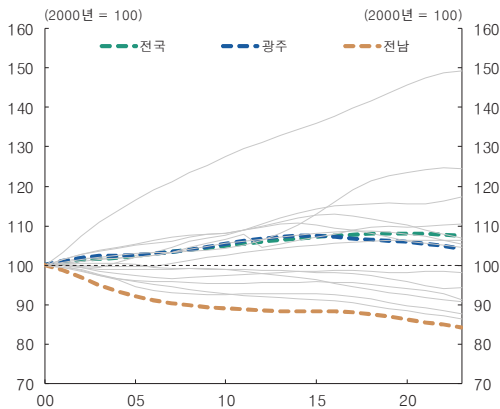
18) 광주, 전남의 정주여건에 대한 자세한 분석 내용은 박범기·안중섭·김민수(2024)를 참조하기 바란다.

19) 강유진·지정구(2023)는 영업잉여가 본사 또는 사업체 소재지 주민의 소득과는 무관한 개념으로 영업잉여의 순유출이 지역민의 소득수준을 저해하는 지표로 사용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성운·이한솔(2023)은 기업소득 유출은 본사

2. 인구감소(양적 측면)와 고령화(질적 측면)

광주·전남지역은 인구감소로 총소비 규모가 줄어들어 따라 자영업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 인구감소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이 겪고 있는 문제이지만, 전남 지역은 여타 지역에 비해 빠르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다.²⁰⁾ 광주 또한 2014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들어섰다. 전남 내에서는 산업 기반이 열악하고 소득여건이 다소 뒤처지는 서남권과 중부권에서 인구감소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9. 지역별 인구규모 추이¹⁾



주: 1) 주민등록연앙인구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회색 실선은 여타 광역시·도를 의미한다.

자료: 통계청

인구감소는 수요측면에서 자영업 매출을 감소시키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는 경우 소비가

감소하게 되고, 성장잠재력이 하락하면서 소득여건 개선 또한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한편, 인구감소는 자영업의 경쟁심화로 이어지면서 매출 및 수익성 저하 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²¹⁾

향후 광주·전남지역의 인구감소 속도가 전국 평균보다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구의 자연감소가 지속되고 청년층은 교육, 취업 등을 목적으로 순유출될 것으로 예상된다.²²⁾ 광주는 인구의 자연감소가 계속되는 가운데 청년인구를 중심으로 순유출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은 높은 고령층 비율로 인구의 자연감소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구감소는 소비감소로 이어져 광주·전남지역 자영업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기반을 위축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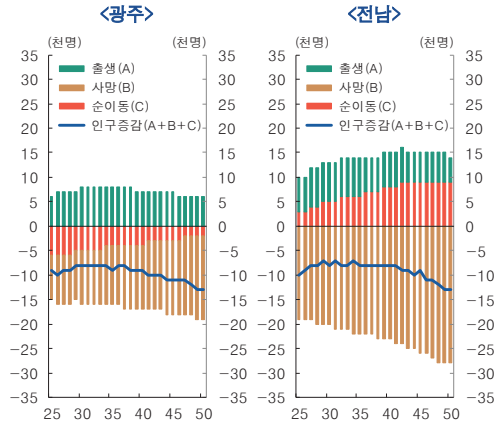
가 타 지역에 위치한 기업의 생산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내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결과라고 해석하고 있다.

20) 2021년 10월 기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전남에서 목포, 무안, 여수, 순천, 광양, 나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다.

21) 강은영·김재한·표한형(2023)은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에서 일자리, 사회안전망 부족에 따라 생활밀접업종을 중심으로 생계형 창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인구감소지역은 고령자 중심으로 창업이 늘어났음을 보인 바 있다.

22) 2010~2019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출신고교 및 출신대학 소재지가 같은 경우는 광주가 61.4%, 전남이 39.5%로 나타났다. 아울러 광주·전남 소재 대학을 졸업한 절반가량은 대학 소재지 이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 및 취업을 목적으로 광주, 전남의 청년인구 다수가 지역에서 유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박범기·안중섭·김민수,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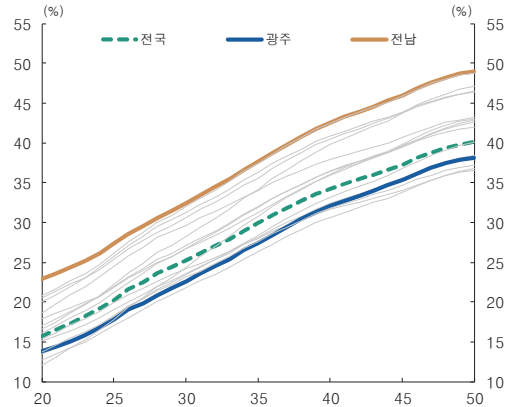
그림 20. 인구증가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 전망¹⁾



주: 1) 중위추계 기준
자료: 통계청

한편,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소비패턴 변화를 통해 자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까지는 고령화 진행속도가 더딘 광주는 앞으로 청년인구 유출 등으로 평균 연령이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은 현재 전국에서 고령화 수준이 가장 높은 가운데 앞으로의 고령화 속도 또한 전국 평균보다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²³⁾ 인구 고령화는 정년퇴직 이후 소득감소에 따른 소비규모 감소, 소비구조 변화 등을 통해 자영업 매출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림 21.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 전망¹⁾



주: 1) 중위추계 기준이며, 회색실선은 여타 광역시·도를 의미한다.
자료: 통계청

우선 인구 고령화는 소비지출 규모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고령층은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소득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²⁴⁾ 가구소득과 소비 모두 연령대가 높을수록 \cap 자 모양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기대수명 증가와 은퇴 이후 소득 불확실성에 따른 예비적 저축(precautionary saving)의 증가 또한 소비성향에 영향을 미쳐 소비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²⁵⁾ 평균소비성향은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²⁶⁾ 2010년 이후 모든 연령대에서 평균소비성향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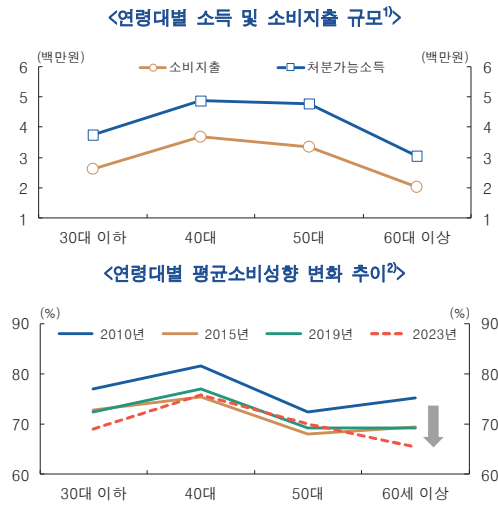
23) 2020년 ~ 2050년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의 증가폭(중위 추계 기준): 전국 +24.4%p, 광주 +24.4%p, 전남 +26.1%p

24) 오테하이장연(2024)은 우리나라에서 고령자의 근로소득은 만 58세부터 만 68세까지 평균적으로 42%가량 하락하며 연령증가와 주된 일자리로부터의 이탈이 소득감소의 89%가량을 설명한다는 점을 보였다.

25) 정동재(2022)는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인구고령화는 소비의 기간간 대체와 인구분포의 변화 등을 통해 1996~2016년중 우리나라 가계소비를 연평균 약 0.9% 감소시킨 것으로 추정하였다.

26) 생애주기가설(life-cycle income hypothesis)에 의하면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은 연령대별로 U자 모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교육비 지출로 인해 소득이 가장 높은 40~50대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비를 제외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생애주기가설의 예측처럼 연령대별로 U자 모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 분석하는 자영업에는 교육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교육비를 별도로 제외하지는 않았다.

그림 22. 가구주 연령대별 소득 및 소비지출 규모와 평균소비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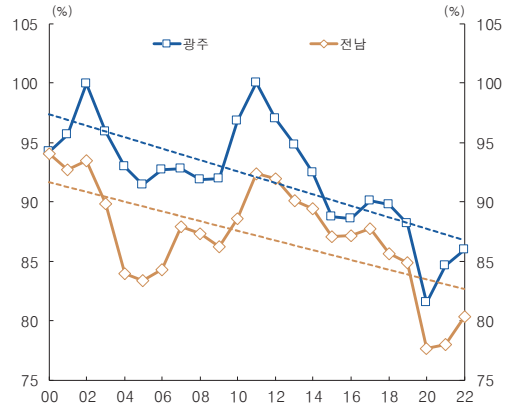


주: 1) 2023년중 1인 이상 전체가구 기준(농림어가 포함, 명목)
2)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개편에 따른 공표범위가 수정됨에 따라 시계열 간 동일 기준으로 비교하기 위해 전국 2인 이상 비농림어가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통계청, 저자 계산

이를 반영해 거시적인 측면에서 광주, 전남의 평균소비성향(민간소비지출/개인총처분가능소득) 또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앞으로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가 주된 직장에서 정년퇴직 연령에 접어들면서 광주·전남의 평균소비성향이 추가적으로 낮아질 가능성 또한 존재할 것으로 전망된다.²⁷⁾

그림 23. 개인총처분가능소득 대비 민간최종소비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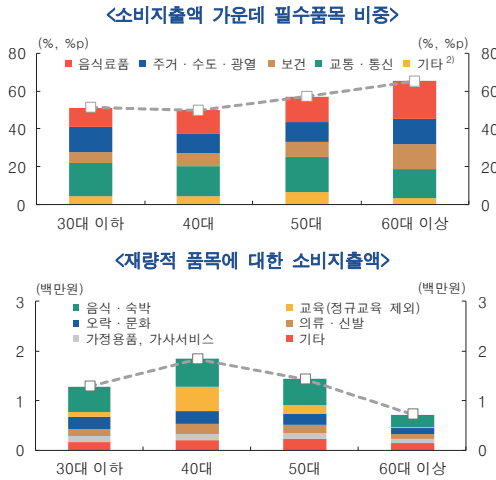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저자 추정

고령화에 따른 소비구조 변화도 자영업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기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변화하는 소비구조와 자영업을 통한 재화, 서비스의 공급이 불일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령층은 음식료품, 주거·수도·광열, 의료·보건, 교통·통신과 같이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중심으로 소비하는 반면, 기타 품목에 대한 재량적 소비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분석된다.²⁸⁾ 한편, 자영업을 통해 공급되는 재화, 서비스는 주로 재량적 소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종별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를 보면 전남은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광주는 교육 및 개인서비스업 비중이 높았다. 이들 업종은 고령층이 주로 소비하는 품목에 해당하지 않아 향후 고령화에 따른 수요기반이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27) 다만 2차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1차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 소득이 높고 보유자산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평균소비성향은 1차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 1.3%p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재호·강영관·조윤해,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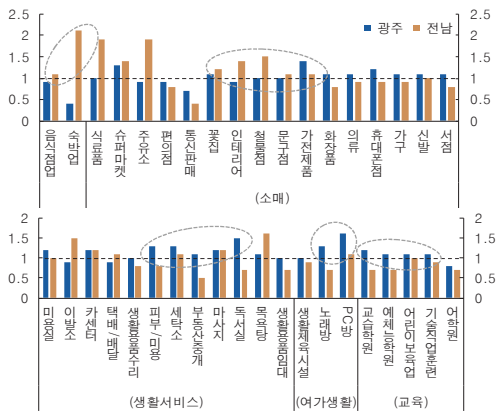
28) 김중호·윤진영(2017)은 부산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고령화로 인해 보건의료비를 제외한 항목의 소비액은 감소하며, 고령 가구에서 식료품비, 주거비, 보건의료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24. 연령대별 소비구조¹⁾



주: 1) 2023년중 전국 1인 이상 전체기구의 소비지출 기준(농림어가 포함, 명목). 필수 품목과 재량 품목은 자체적으로 분류
 2) 가사소모품, 초·중·고 정규교육, 이·미용서비스, 위생 및 이·미용 용품 등을 포함
 자료: 통계청, 저자 추정

그림 25. 생활업종별 입지계수(사업체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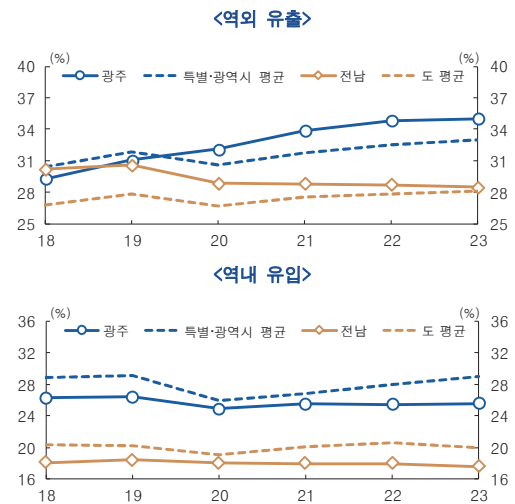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3. 높은 역외 소비유출률 및 낮은 역내 소비유입률

성장둔화, 인구유출 등으로 지역 내 수요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역내외 소비유출입은 자영업 업황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소비의 유입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광주, 전남에서 소비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는 한편, 유출은 지역민이 바깥 지역에서 소비활동을 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지역은 각각 특별·광역시, 도지역 평균 대비 소비의 역외유출률은 높은 반면 역내 유입률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는 2019년까지 역외소비 유출률이 특별·광역시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나, 소비유출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2020년 이후 특별·광역시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전남은 지속적으로 도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모습이다. 소비의 역내 유입은 광주, 전남 모두 각각 특별·광역시, 도 평균 수준을 하회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림 26. 광주·전남지역 소비유출입 비율 추이¹⁾



주: 1) 전자상거래 포함
 자료: 하나카드, NH농협카드, 저자 추정

참고 2

광주·전남지역 소비유출입 구조 분석 방법

본고에서는 문수성·김지원(2024) 등을 참고해 개인 신용·체크카드 이용금액 가운데 청구지(주택·직장 소재지)와 가맹지(사업자 소재지)가 다른 경우를 역외소비로 식별하였다. 이를 위해 하나카드, NH농협카드의 결제데이터를 이용하였다.

• 역외 유출률(= $\frac{B}{A+B}$)

특정 지역 거주자의 전체 소비금액(A+B, 청구지 기준) 가운데 다른 지역에서 소비한 금액(B, 가맹지 기준)의 비중

• 역내 유입률(= $\frac{C}{A+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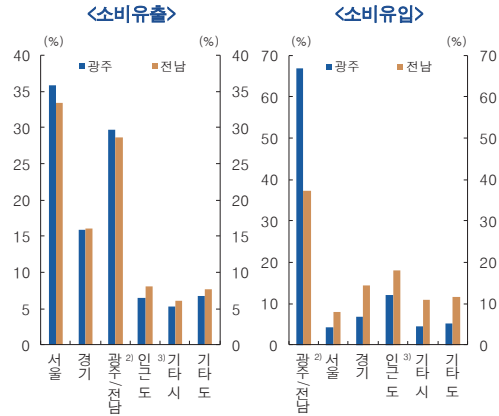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소비금액(A+C, 가맹지 기준) 중 다른 지역의 거주자가 소비한 금액(C, 청구지)의 비중

		신용카드 개인회원의 거주·근무지역(청구지)		
		전남 거주자	전남 외 거주자	합계
사업자 소재지 (가맹지)	전남 지역	A (역내소비)	C (역내유입)	A+C
	전남 이외 지역	B (역외유출)		
	합계	A+B		

자료: 문수성·김지원(2024)을 바탕으로 재구성

광주, 전남의 소비유출입 구조를 살펴보면 소비유출은 서울·경기지역으로 발생하는 반면 유입은 광주↔전남 간 이동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소비 유출과 유입 사이 불균형은 지역 내 자영업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기반을 한층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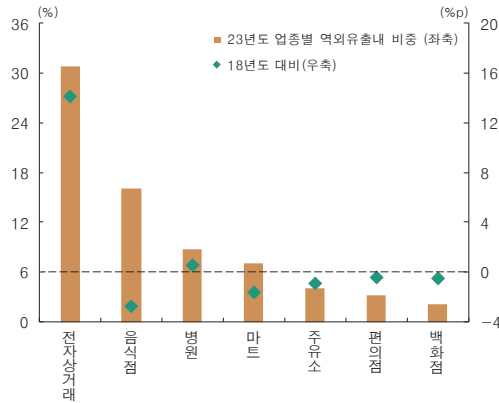
그림 27. 광주·전남지역 소비유출입 대상지역¹⁾



주: 1) 전자상거래 포함
 2) 광주 ↔ 전남 간 소비유출입
 3) 지리적으로 인접한 전북, 경남
 자료: 하나카드, NH농협카드, 저자 추정

광주·전남지역 소비유출 확대는 온라인이 소비 채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데 상당 부분 기인한다. 이는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전국적으로 전자상거래가 크게 확대된 현상에 부합한다. 특히 광주는 유통업 관련 소비유출 중 전자상거래 비중이 69%가량으로 특별·광역시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8. 광주·전남지역 업종별 역외유출내 비중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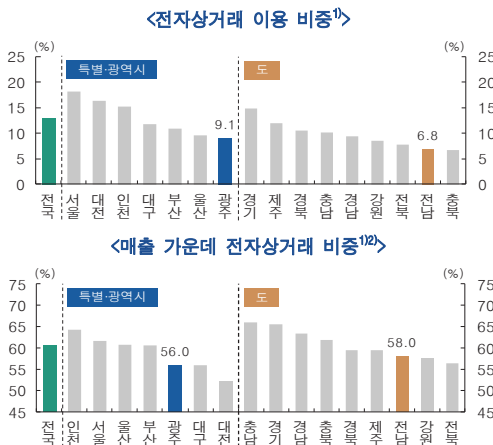


주: 1) 광주·전남지역 합산 기준
 자료: 하나카드, NH농협카드, 저자 추정

반면, 광주·전남지역 소재 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용률은 다른 지역을 큰 폭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서비스업(도소매, 음식 숙박, 정보통신) 사업체 가운데 디지털플랫폼을 이용하는 업체 비중은 광주가 17.1%, 전남이 11.0%로 전국 평균 대비 낮았다. 자영업자 기준으로 보더라도 전자상거래를 활용하는 업체의 비중 또한 광주가 9.1%로 특별·광역시에서 가장 낮았고, 전남은 6.8%로 도지역에서 충북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자상거래를 활용하는 자영업자의 매출 가운데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광주, 전남은 하위권에 속해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전자상거래를 활용하는 정도가 낮은 것은 역외 소비유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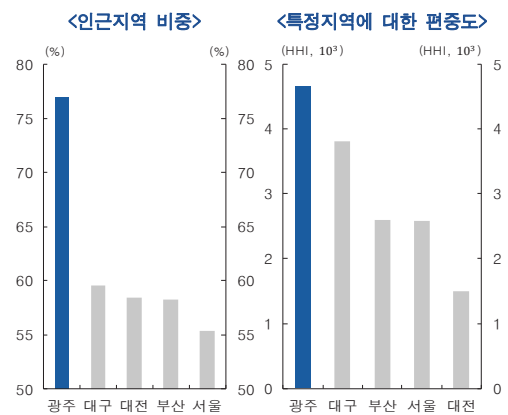
광주로의 소비유입은 대부분이 전남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치우쳐져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점 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별로 전체 소비유입 중 인근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광주가 76.9%(전남 66.9%, 전북 10.0%)로 여타 대도시를 크게 상회하였다. 특정 지역으로부터의 소비유입 집중을 허핀달-허쉬만 지수(Herfindahl - Hirschman Index, HHI)를 이용해 살펴보면, 광주의 지역별 집중도가 매우 높은 모습이다.²⁹⁾ 업종별로 살펴보면 의료기관 비중이 높는데 이는 전남지역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남 이외 지역에서 광주로의 소비유입은 미진하고, 전남으로부터의 소비유입도 의료·보건 등 일부 업종에 치우쳐져 있는 점은 소비 유입이 지역 내 자영업자들에게 파급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29. 자영업자 가운데 전자상거래 이용 비중과 전체 매출 가운데 전자상거래 비중



주: 1) 2022년 기준
 2)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자영업자 기준
 자료: 통계청

그림 30. 광주지역 소비유입의 인근지역 비중과 특정 지역에 대한 편중도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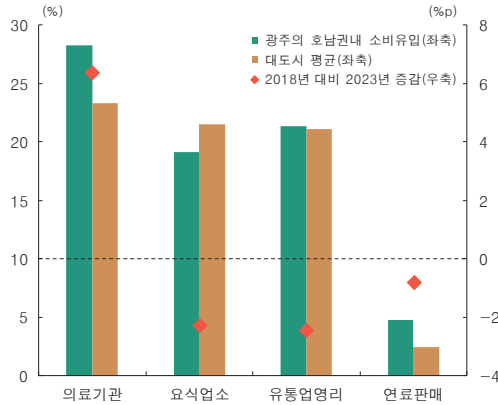


주: 1) 2023년 기준
 자료: 하나카드, NH농협카드, 저자 추정

29) 지역 j의 HHI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HHI가 10,000에 가까울수록 소비유입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HHI_j = \sum_i^n S_{i,j}^2 \text{ (단 } S_{i,j} \text{는 지역 } j \text{로의 소비유입 전체금액 가운데 지역 } i \text{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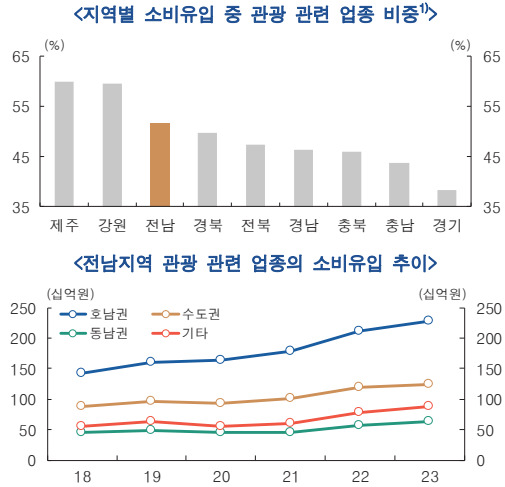
그림 31. 업종별 인근지역에서 광주로의 소비유입³⁰⁾



주: 1) 2023년 기준
 자료: 하나카드, NH농협카드, 저자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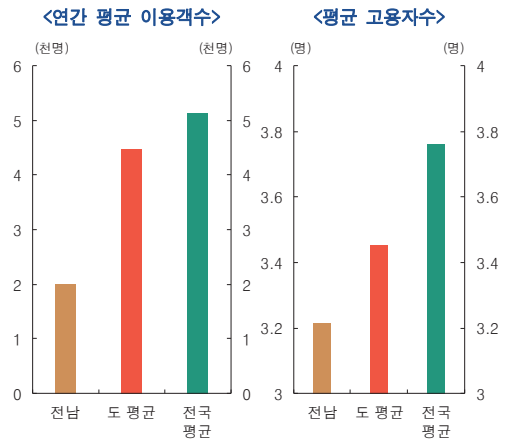
전남으로의 소비유입은 주로 관광 관련 업종³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유입세 역시 양호한 모습이나, 자영업체로의 파급효과가 낮아 개별 규모는 여전히 영세한 상황이다. 전남으로의 소비유입 가운데 51.4%가 관광 관련 업종에서 발생하였으며, 도지역 가운데 제주와 강원 다음 순위로 나타났다. 전남지역의 관광 소비 유입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나, 호남권 이외 지역에서의 관광소비 유입은 상대적으로 증가세가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관광 관련 자영업은 평균 이용객수와 평균 고용자 수가 다른 지역 대비 낮은 모습이다. 이는 자영업 경쟁심화 등으로 관광 소비 유입 효과가 여러 자영업체로 분산돼 지역 내 자영업이 여전히 영세함을 의미한다.³¹⁾

그림 32. 관광 관련 업종을 통한 전남지역 소비유입



주: 1) 2023년 기준
 자료: 하나카드, NH농협카드, 저자 추정

그림 33. 전남지역 관광업종 자영업자 경영현황¹⁾



주: 1) 관광진흥법상 관광업체 기준, 2021년 기준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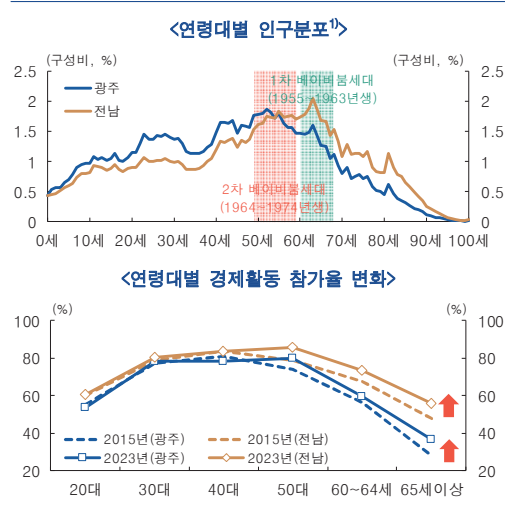
30) 외지인의 여행, 레저취미(레저업소, 레저용품, 문화취미), 요식업소, 음식료품 업종 소비를 관광 관련 소비로 정의하였다.

31) 한편, 박지섭 외(2023)는 전남에서 발생하는 관광소비는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작다고 분석한 바 있다.

4. 베이비붐 세대 퇴직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상당수가 퇴직 이후 자영업에 진입한 가운데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의 정년퇴직 시점이 다가오면서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자영업 진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2023년말 기준 2차 베이비붐 세대는 광주, 전남에서 각각 26.6만명, 33.8만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두 지역 모두 18.7%로 동일하였다. 한편, 기대수명 증가, 노후대비 등의 목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장년층, 고령층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그림 34. 연령대별 인구분포 및 경제활동 참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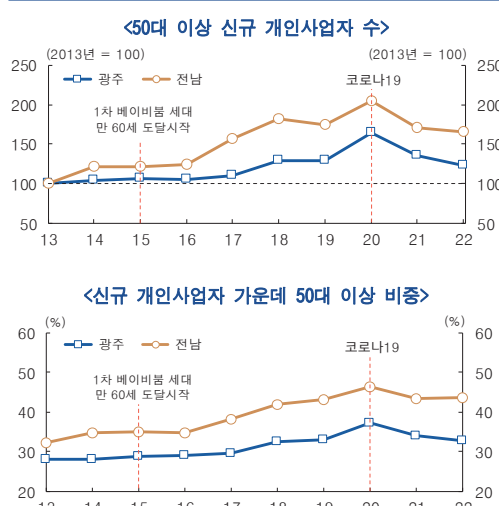


주: 1) 2023년말 기준
자료: 통계청

만약 이들이 주된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이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임금수준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자영업 진입이 늘어날 수 있다.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경우 정년퇴직 시점에 접

어든 2015년을 전후로 50대 이상 신규창업 개인사업자 수가 늘어나면서 신규 개인사업자 가운데 50대 이상 연령대의 비중 또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주된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이후에도 상당수의 중·장년층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지만, 임금근로자로의 재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영업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35. 50대 이상 개인사업자 신규창업 추이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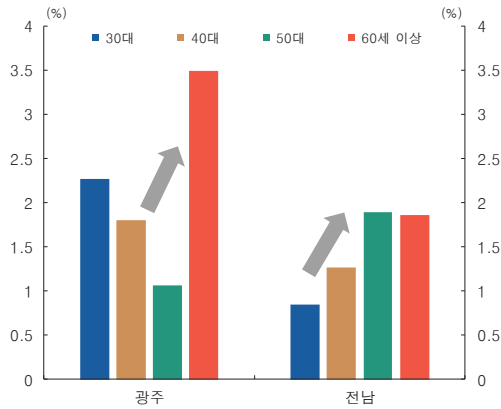
주: 1) 연도별 「국세통계」를 바탕으로 해당연도에 신규 등록된 개인사업자(일반, 간이, 면세) 수를 계산
자료: 국세청, 저자 추정

광주·전남지역의 50세 이상 실업률은 대체로 높고 일자리의 질은 높지 않은 모습이다.³²⁾ 연령대별 실업률을 살펴보면 광주는 60세 이상 연령대 실업률이 타 연령대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남은 50세 이상 실업률이 30~40대에 비해 높은 모습이다. 한편, 한국경제인협회가 4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중장년 구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과정에서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에 놓이는 비율이 36.8%로 나

32) 이형규(2023)에 따르면 50대 이상 고용의 질은 광주가 전국 평균 수준이며 전남은 전국에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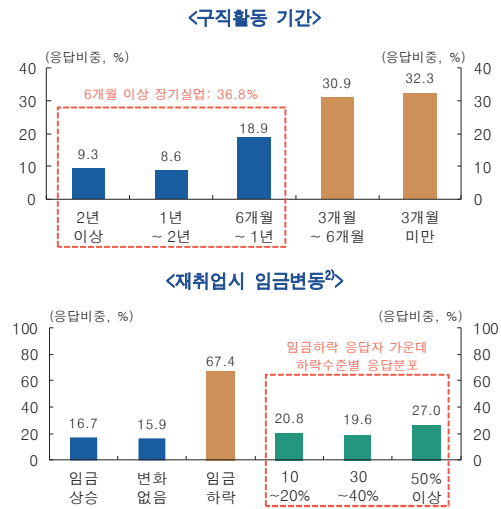
타났다. 임금근로자로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과반이 임금하락을 경험하였고, 주된 일자리 대비 임금수준은 평균적으로 37.3%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6. 광주·전남지역 연령대별 실업률(2023년)



자료: 통계청, 저자 계산

그림 37. 중장년층의 재취업 어려움과 재취업시 임금수준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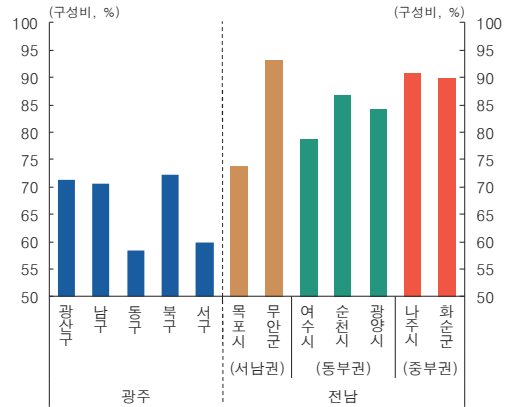


주: 1) 한국경제인협회의 「2022년-2023년 중장년 구직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구성
2) 주된 직장 대비
자료: 한국경제인협회

한편, 광주·전남지역 50대 이상 자영업자 상당수가 고용원이 없고 영세한 것으로 분석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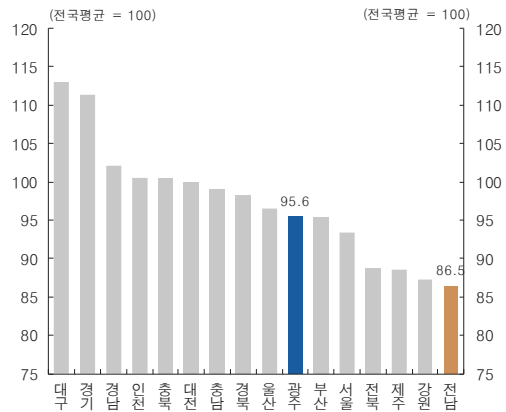
었다. 광주, 전남 50대 이상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고용원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소상공인 개인사업체의 영업이익은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광주·전남지역 50대 이상 자영업자 상당수가 생계를 목적으로 경영활동을 이어나가고 있고 소득여건이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38. 50대 이상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없는 비중¹⁾



주: 1) 2023년 상·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_A형」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자체 추정
자료: 통계청, 저자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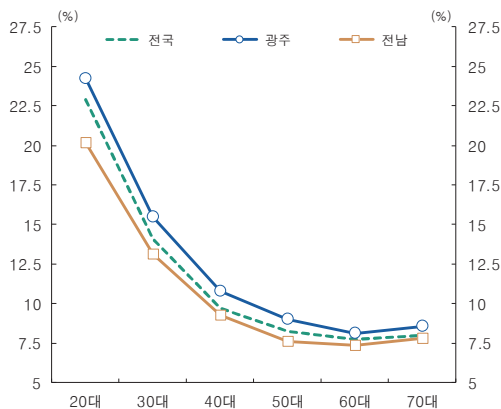
그림 39. 지역별 50대 이상 개인사업체 영업이익¹⁾



주: 1) 2021-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자체 추정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청, 저자 추정

개인사업자 폐업률은 연령대와 반비례하는 모습으로, 이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임금근로자로의 재취업이 어렵고³³⁾, 업종변경 등 출구전략이 부재해 폐업에 대한 부담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³⁴⁾ 이러한 상황에서 2차 베이비붐 세대 다수가 자영업에 진입하면 경쟁심화에 따른 생산성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수익성 악화 등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나타날 우려가 존재한다. 특히 연령대가 높은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수익성이 낮더라도 기술력과 자금이 부족해 업종을 전환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폐업에 대한 부담이 커서 시장에서 퇴장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인 구조조정 등 시장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아 경쟁심화에 따른 편익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0. 광주·전남지역 연령대별 개인사업자 폐업률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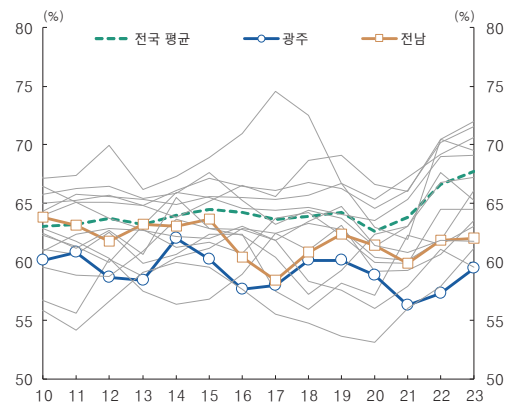


주: 1) 2021-2022년 「국세통계」를 이용해 자체 추정. 폐업률은 (폐업 사업체 수 / 가동 사업체 수)로 계산
자료: 국세청, 통계청, 저자 계산

5. 청년고용 부진 장기화

광주·전남지역은 청년 고용률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청년고용 부진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다. 2023년 광주, 전남의 20~34세 고용률은 각각 59.4%, 62.0%로 전국 평균인 67.7%에 비해 낮았다. 여기에는 임금, 고용안정성, 근로여건 등 일자리의 질이 높지 않은 점, 청년층 선호와 불일치한 산업구조, 수도권 등 타 지역 대비 정주여건이 열악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³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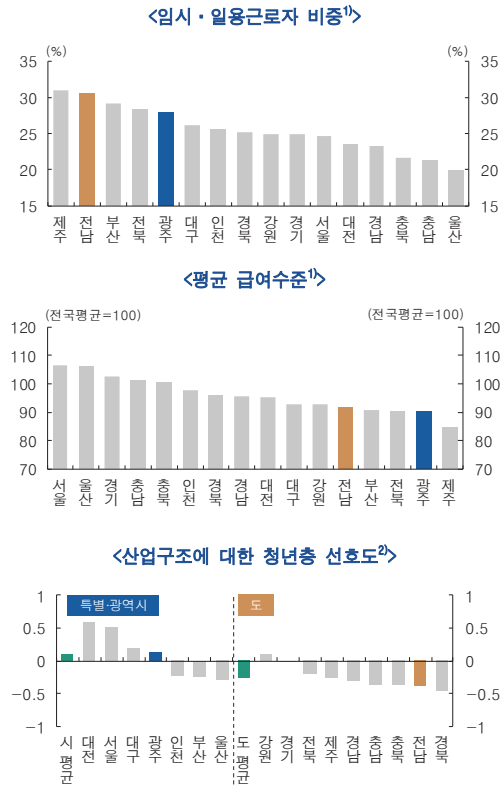
그림 41. 지역별 청년¹⁾ 고용률 추이



주: 1) 20-34세 기준, 회색실선은 여타 광역시·도를 의미한다.
자료: 통계청

- 33) 한국경제인협회(2023)에 따르면 중장년 구직자가 구직활동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으로는 나이를 중시하는 사회풍토(32.1%), 채용 수요부족(17.0%), 경력활용 가능한 일자리 없음(14.0%), 낮은 연봉 및 직급이동(12.8%) 순으로 나타났다.
- 34) 고지성(2022)은 자영업자의 연령대와 폐업 위험도가 반비례한다는 점을 분석하였는데 이는 청장년층의 경우 업황 부진시 임금 근로자로의 이동, 업종 변경 등이 고령층보다 용이한 점을 반영한 결과라고 해석하였다.
- 35) 광주전남지역 청년고용 현황과 부진원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범기·안중섭·김민수(2024)를 참고하기 바란다.

그림 42. 지역별 청년층 임금근로 일자리의 고용안정성 및 급여수준, 산업구조에 대한 청년층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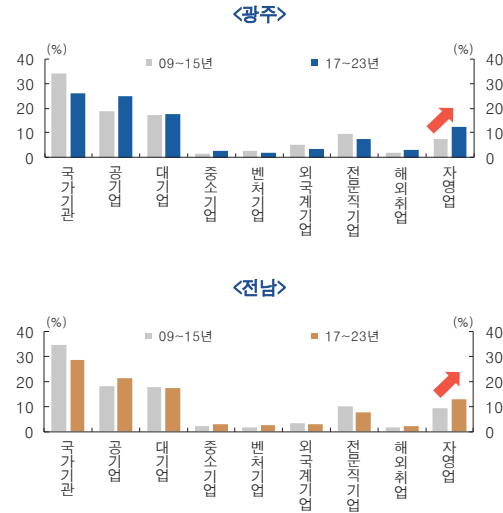


주: 1) 2022년 상·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C형」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자체 추정
 2) 산업별 선호점수를 지역별·산업별 취업자수를 기준으로 기중평균한 이후 전국평균을 0으로 표준화한 결과로, 박범기·안중섭·김민수(2024)의 연구결과를 인용
 자료: 고용노동부, 통계청, 박범기·안중섭·김민수(2024), 저자 추정

청년고용 부진은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지역을 떠나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내에서 자영업 진입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청년층은 자본 및 기술 부족 등의 이유로 임금근로자로 취업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는데, 최근에는 청년층의 자영업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와 같은 직업 선호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경우 적합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층을 중심으로 자영업 진입이 늘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광주, 전남

청년들은 지역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보다 자영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년층의 자영업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진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선호도는 계속해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43. 만13~34세 청년층이 선호하는 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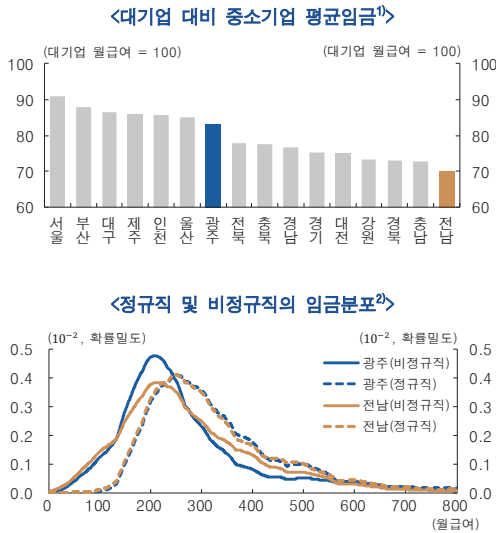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는 대기업, 정규직 등으로 대표되는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으로 대표되는 2차 노동시장 사이 불균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광주, 전남에서 중소기업 상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대기업의 70~80%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전남은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격차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한편,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에도 유의미한 격차가 존재하였다. 우리나라는 첫 일자리 성격이 다음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로 의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³⁶⁾, 노동시장 불균형은 다수의 청년층이 첫 직장으로 1차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오랜 기간 취업을 준비하는 등 노동시장

참여유인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장기간 구직활동을 이어가는 가운데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지 못한 경우 자영업으로 진출할 유인이 높아질 수 있다.

은 곳은 대체로 산업, 소득기반이 취약한 전남 서남권과 중부권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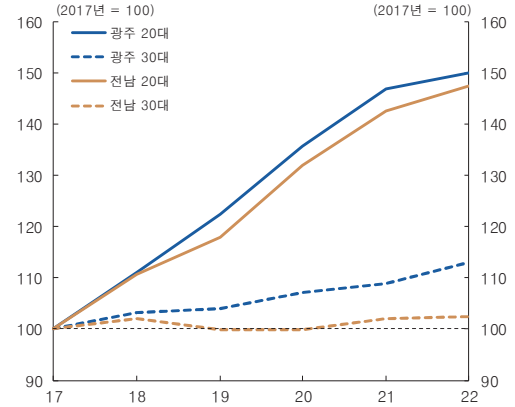
그림 44. 광주·전남지역 노동시장 불균형 현황



주: 1) 2020년~2023년중 4월 급여계산기간 시점에서 상용근로자의 월 급여총액 기준이다. 상용근로 중사자수 300인 이상이면 대기업으로, 5인~299인이면 중소기업으로 분류하였다.
 2) 통계청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_C형」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임금수준 분포를 추정한 결과로 박범기·안중섭·김민수(2024)의 분석결과를 인용하였다. 중사상지위에 따른 임금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고용계약기간을 정하거나(기간제 근로자) 주당 노동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경우(시간제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분류하였다.
 자료: 통계청, 고용노동부, 박범기·안중섭·김민수(2024), 저자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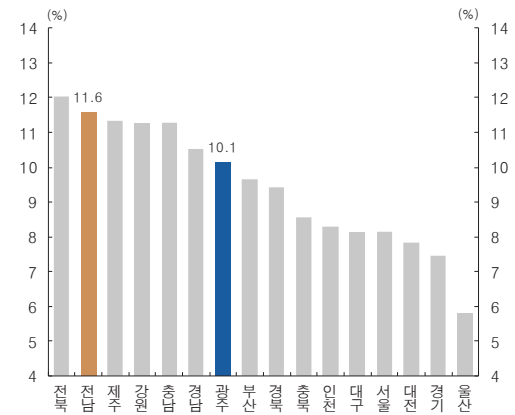
실제로 광주, 전남지역 청년들 가운데 자영업에 진입하는 수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광주, 전남은 청년 취업자 가운데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은 모습으로, 이는 지역 청년들이 임금근로자로 취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지역에서 청년층 개인사업자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청년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이 높

그림 45. 청년층 개인사업자 수 추이¹⁾



주: 1) 연도별 「국세통계」를 활용해 청년층 개인사업자(일반, 간이, 면세사업자) 가운데 기동사업자 수를 계산
 자료: 국세청, 저자 계산

그림 46. 청년층 취업자 가운데 비임금근로자 비중¹⁾



주: 1) 2022년 상·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_C형」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만 35세 미만 취업자를 대상으로 자체 추정
 자료: 통계청, 저자 추정

36) 강유진·신희웅(2018)은 청년층의 첫 일자리가 2차 노동시장에 해당하면 미래에도 2차 노동시장에 속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분석하였다.

IV. 정책적 시사점

성장둔화는 임금근로자 고용을 줄이고 근로소득을 감소시켜 자영업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기반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임금일 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의 자영업 진입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도 지역 내 소비 규모를 감소시켜 자영업 제품과 서비스 수요를 축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고령화는 생계유지를 위한 고령 퇴직자의 자영업 진입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소비패턴 변화는 지역 내 자영업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

자영업 업황 개선을 위해서는 정주여건 개선, 사업지원 등 다각적 차원의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영업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정주여건 개선, 전자상거래 활용 제고 및 관광소비 유입 도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 진입 완화를 위해서는 창업교육 및 폐업지원을 통한 과잉경쟁 완화와 중·고령층 재취업 지원을 통한 자영업 진입 완화 유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소득·소비 유출 완화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청년층의 지역 잔류를 유도함으로써 인구이동에 따른 소득·소비기반 유출을 최소화 해야 한다.

청년층의 지역 잔류를 위해 우선적으로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교통, 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승훈 외(2022), 정민수 외(2023) 등 다수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고용률, 성장률 등 경제적 요인이 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청년층 유입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 하겠다. 더불어 교통, 교육 등 정주여건 역시 청년층 이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정 외(2022)에 따르면 청년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역 정착 시 고려할 요소로 일자리와 함께 대중교통 편의성, 주변지역 접근성, 교육 인프라 등 생활 여건과 관련된 항목들도 높은 응답 비중을 보였다. 즉, 청년층은 일자리와 더불어 각종 인프라를 복합적으로 고려하는바, 청년층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일자리가 있는 곳에 정주 인프라를 집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2. 전자상거래 활용 제고 및 관광소비 유입 활성화

자영업자들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유통 플랫폼 이용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광주와 전남 소비유출의 상당 부분이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유통업 매출의 과반이 온라인에서 발생³⁷⁾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판로를 이용하는 광주와 전남 자영업체 비중은 미미한 상황이다. 따라서, 온라인 판매 관련 상담, 판로 지원 등의 지원책 내실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 관광산업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관

37) 2023년 전국 유통업의 업체별 매출 구성은 온라인 51%, 백화점 17%, 편의점 17%, 대형마트 13% 등으로 나타났다.

평소비 유입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방문객들의 소비를 유도하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홍보를 강화해 자영업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숙박 인프라의 확충이 시급히 요구된다. 전남지역은 평균 체류시간 대비 평균 숙박일수가 적은 모습이다. 이는 전남이 풍부한 자연·생태관광 등 관광업이 발달할 수 있는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만, 숙박 인프라 부족 등으로 체류형 관광이 발달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 경우 관광객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체류를 통한 음식, 문화 등에 지출하는 소비로 이어지는 흐름은 다소 부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숙박 인프라³⁸⁾ 확충을 통해 체류형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3. 창업교육 및 폐업지원을 통한 과잉 경쟁 완화

자영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업종 및 입지 선정, 전자상거래 이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자영업으로의 과잉진입을 완화하고 자영업자들이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취업 및 업종전환 어려움, 폐업비용 부담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시장에 잔류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원활한 폐업을 돕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 경쟁심화, 수요기반 약화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면서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대출이 증가하는 가운

데 재무건전성이 약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대출 부실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가운데 자영업자의 원활한 재취업 도모, 폐업지원 등을 통해 자영업의 만성적인 한계기업화를 방지하고 공급측면에서 구조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중·고령층 재취업 지원을 통한 자영업 진입 완화 유도

중·고령층 퇴직자들이 계속해서 임금근로자로 경제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고령층 노동자들의 임금근로 시장 잔류를 위해 공공부문 고용지원 서비스의 내실화가 요구된다. 광주와 전남의 중·고령층 실업자는 대중매체, 지인 등 민간부문을 통해 일자리를 탐색하는 경우가 많으나, 재취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이 사업장 및 직무에 대한 정보를 확충하고, 고용지원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중·고령층 재취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고령층 일자리를 공급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8) 진도의 경우 2019년 쉼비치 개장 이후 관광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2018년 348만명 → 2019년 417만명 → 2020년 417만명 → 2021년 440만명 → 2022년 501만명 → 2023년 518만명, 외부방문자 기준, 한국관광공사)

참고문헌

- 강유진, 신희웅 “대전지역 청년고용 현황 및 시사점: 청년고용 제약요인을 중심으로”, 2018,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 강유진, 지정구 “충북 역외소득유출 현황 및 재고찰”, 2023, 한국은행 충북본부
- 강은영, 김재환, 표한형 “인구감소지역과 생활밀접업종 관계 분석”, 2023, 통계청, 제2023-07호
- 고지성 “팬데믹 이후 강원지역 자영업황의 특징적 변화 및 향후 정책과제: 자영업 폐업을 결정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2022, 한국은행 강원본부
- 구진경, 조재한 “디지털 플랫폼 확산과 서비스산업의 디지털 전환”, 2024, 산업연구원
- 금재호, 이인실 “자영업 매출과 소득의 결정요인 분석”, 2011, 「한국경제연구」
- 김종호, 윤진영 “부산지역 인구구조 변화가 가계의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2017, 한국은행 부산본부
- 김지수, 변창욱, 최윤기, 배진원, 최준석 “지방투자에 따른 지역 생산성 변화와 시사점”, 2021, 산업연구원
- 김지은, 정영철 “광역시외의 소비유출입 특징 및 시사점 -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2023,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조사국
- 남윤미 “국내 자영업의 폐업을 결정요인 분석”, 2017,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 문수성, 김지원 “부산지역 소비유출입의 특징과 동남권 거점도시로서의 정책적 시사점”, 2024, 한국은행 부산본부
- 박범기, 안중섭, 김민수 “광주·전남지역 청년고용 부진 원인과 정책적 시사점”, 2024,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
- 박지섭, 고아라, 김지은 “코로나19 이후 전남지역 관광산업의 현황과 발전과제”, 2023,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
- 송상윤, 김하은 “성장과 고용 간 관계: 기업자료를 이용한 분석”, 2022, 한국은행
- 송상윤, 배기원 “우리나라 고용의 질 평가”, 2022, 한국은행
- 송영조, 남종석 “지역 소상공인 경영성과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2021, 「지역사회연구」
- 소상공인연합회 “2024년도 소상공인 신년 경영 실태조사”, 2024
- 오삼일, 황수빈, 유민정, 이종하 “코로나19 이후 자영업 특성별 고용현황 및 평가”, 2021, 한국은행
- 오태희, 이장연 “우리나라 고령자의 은퇴 이후 소득절벽 효과 분석”, 2024, 「경제학연구」

유종민, 김지태, 김진태, 최열매	“RE100 활성화가 전라남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24,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이상호	“한국의 ‘지방소멸’ 에 관한 7가지 분석”, 2016, 한국고용정보원
이승렬	“자영업 현황과 정책과제”, 2018, 「노동리뷰」
이승훈, 박지섭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지역 특성이 지역별 인구 이동에 미치는 영향”, 2022,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이재호, 강영관, 조윤해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2024, 한국은행
이준범, 정영철	“목포지역 자영업 특징 및 시사점”, 2018, 한국은행 목포본부
이준영, 송우경	“지역혁신 투자와 건설·설비 투자의 지역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 비교·분석”, 2023, 산업연구원
이형구	“대구경북지역 고용의 양과 질 평가”, 2023,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임성운, 이한솔	“전남지역 소득 및 소비 역외유출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2023, 한국은행 목포본부
정동재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생애주기 소비변화 분석”, 2022, 한국은행
정민수, 김의정, 이현서, 홍성주, 이동렬	“지역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2023, 한국은행
주동현, 노원중, 손종철	“지역경제 자영업 활동 결정요인 및 구조개선 방안: 경기도를 중심으로”, 2013, 한국은행 경기본부
최동명	“미시자료를 이용한 충북 자영업자 급감 현황 및 요인 분석”, 2022, 한국은행 충북본부
최민우	“광주·전남지역 소비행태의 특징 및 시사점”, 2018,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하수정, 이차희, 심혜민, 이종표	“청년의 지역이동과 정착”, 2022, 국토연구원
한국경제인협회	“2022년 중장년 구직활동 실태조사”, 2022
한국경제인협회	“2023년 중장년 구직활동 실태조사”, 2023
한국행정연구원	“정책연구 국민수요조사”, 2023

2. 엔데믹 이후 제주지역 관광경기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여건 점검³⁹⁾

요약

최근(2024.상반기) 제주지역 전체 관광객 수는 팬데믹 이전(2019년) 대비 감소한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은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내국인은 하회하는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까지 회복세가 미약하였으나 금년 들어 중국인 방문 급증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한편 내국인은 2022년 국내 관광 수요 증가로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하기도 하였으나, 이후에는 회복세가 미진한 흐름이다.

내국인 관광객 감소는 제주의 관광지 경쟁력 약화에, 외국인 관광객 증가는 제주 여행여건 및 접근성 개선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내국인의 경우 근거리 해외여행 출국이 늘면서 제주 관광을 대체하였고, 제주여행 고비용 인식 등으로 선호도가 국내 주요 관광지 대비 하락하였다. 외국인은 중국인의 해외여행 수요 회복과 제주여행 관심 증가, 크루즈 운행 재개 등이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관광객 소비 추이는 금년 들어 부진이 완화되고 있으나 관광객 수 증가에 비해 개선세는 미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팬데믹 이전 대비 관광객 명목소비는 소폭 감소하고 실질소비는 상당폭 감소하였다. 내국인 관광객의 경우 관광객 수 감소에도 1인당 소비가 증가하여 명목 및 실질소비가 증가하였다. 반면 외국인은 관광객 수가 늘었지만 1인당 소비금액이 줄며 명목 및 실질소비가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1인당 소비금액의 증감요인을 분석해보면 소비구조 및 관광객 구성 변화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관광객은 고령층 관광객의 구매력이 확대되고, 업종별로는 음식점·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소비가 증가하였다. 한편 외국인 관광객은 중국인을 중심으로 면세점 등 쇼핑 지출이 크게 줄었고, 관광객 구성 또한 지출 금액이 작은 크루즈 관광객 비중이 늘면서 소비금액이 감소하였다.

관광객 소비지출로 지역내 유발되는 직간접적 파급효과를 시산해본 결과, 관광객의 실질소비 감소폭 대비 부정적 파급효과는 제한적이었다. 부가가치·고용·소득 파급효과 모두 실질소비 감소폭보다 위축 정도가 미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내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소매업 비중이 감소한 반면, 그 효과가 큰 숙박·음식점 소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향후 제주 관광경기는 단기적으로 완만히 개선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내국인 시장 포화, 외국인 시장의 구조적 성장 등으로 차별화가 예상된다. 내국인은 새로운 관광 아이템 발굴, 제주 이미지 개선 등을 통해 재방문과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하고, 외국인은 특성별 맞춤형 마케팅 수립, 중국 외 시장 개척 등을 통한 관광객 유치 확대 및 다각화, 관광 편의성 개선 노력을 통한 소비 촉진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39) 본 분석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며 집필자 개인의견임을 밝힙니다. 분석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저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자(박동준 팀장 djpark@bok.or.kr, 이유헌 조사역 yklee@bok.or.kr)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I. 검토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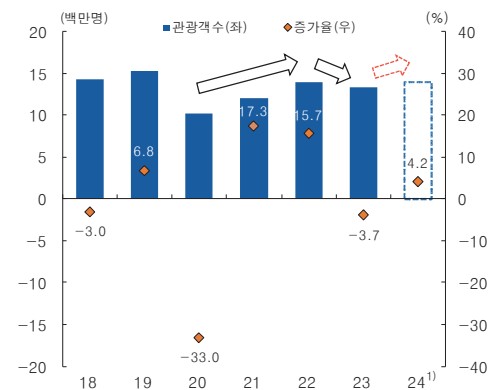
최근 제주지역 관광객 수는 지난해 감소세에서 벗어나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주 관광객 수 추이를 보면, 전염병 확산 영향으로 2020년 큰 폭 감소(-33.0%) 한 이후 회복세(21년 17.3%, 22년 15.7%)를 보였다. 그러나 2023년에는 외국인 관광객 유입(+62만명)에도 불구하고, 내국인(-114만명)이 전년보다 큰 폭 줄면서 감소세(-3.7%)를 기록하였다. 금년(1~8월중) 들어서는 내국인 감소세가 지속(전년동기대비 -54만명, -6.3%)되고 있으나, 외국인이 더 크게 증가(+92만명, +237.1%)하면서 관광객 수 증가(+38만명, +4.2%)를 견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관광객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 관광경기 개선세는 미흡한 상황이다. 관광경기과 밀접한 소매판매, 음식·숙박업 생산 등의 실물경제 지표가 지난해에 이어 금년 상반기에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관광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폭도 둔화되었다.

이는 팬데믹과 엔데믹⁴⁰⁾을 거치며 제주 관광객의 특성, 소비패턴, 지역경제 영향 등이 과거와는 달라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대내외 관광환경(대내외 이동 규제, 관광행태, 운송 인프라 등)은 2020~23년중 급격한 변동을 겪었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외부 요인들이 팬데믹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상화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나타나는 제주 관광객 및 소비지출 양상은 구조적인 변화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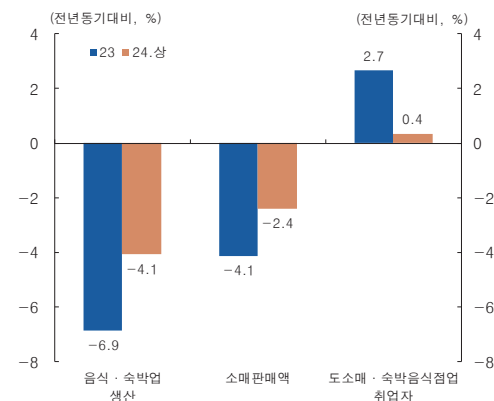
이에 본고는 최근 내·외국인 관광객 특성, 지출액 변화 등을 팬데믹 발생 이전(2019년)과 비교해 분석하고, 향후 제주 관광경기 여건을 점진함으로써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대응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 팬데믹 이후 관광객 수 추이¹⁾



주: 1) 24년은 1-8월중 증가율(4.2%)을 적용해 시산
 자료: 제주관광협회

그림 2. 최근 관광 관련 실물경제 지표 추이¹⁾



주: 1) 24년 도소매·숙박·음식 취업자는 1-8월 기준
 자료: 통계청

40) 2022.4월 우리나라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2022.6월 제주 무사증 입국 및 제주기점 국제선 운영 재개, 2023.1월 중국의 방역규제 폐지 및 국경개방, 2023.8월 중국의 한국 단체관광 허용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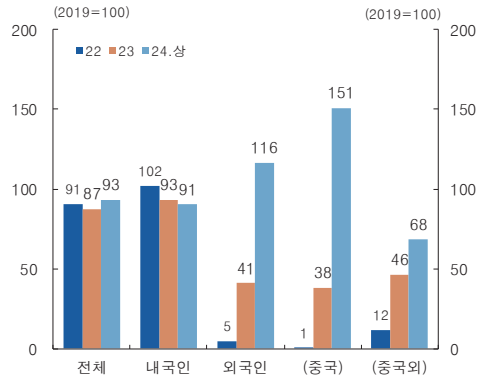
II. 제주지역 관광객 수 추이

1. 팬데믹 이전 대비 관광객 수 비교

금년 상반기중 전체 관광객 수는 팬데믹 이전 대비 감소한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은 상당폭 증가하였고, 내국인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하회하였다. 2024년 상반기중 제주를 방문한 전체 관광객 수는 팬데믹 이전 대비 93% 수준이었으나, 내국인은 91%, 외국인은 116%로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내국인 관광객의 경우, 2022년에 해외여행이 제한된 상황에서 국내 관광수요가 증가하면서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102%)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본격화된 2023년에는 팬데믹 이전 대비 93% 수준으로 낮아졌고, 2024년 상반기에는 91%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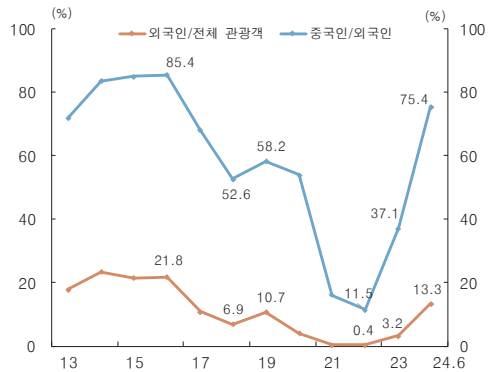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까지 회복세가 느렸으나 금년 들어 중국인을 중심으로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하였고, 전체 관광객 중 외국인 비중도 중국인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팬데믹 이전 대비 외국인 관광객 회복률은 입국 방역 조치가 완화된 2022년은 5%로 미약했으나, 중국인 방한관광이 재개된 2023년에 41%를 기록하였고, 금년 들어서는 116%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금년중 중국인 방문(팬데믹 이전 대비 151%)이 가파르게 증가한 데 기인하며, 중국 외 국가의 방문은 팬데믹 이전 대비 68%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전체 관광객 중 외국인 비중(19.상반 10.7% → 24.상반 13.3%)과 외국인 내에서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58.2% → 75.4%⁴¹⁾)이 팬데믹 이전보다 확대되었다.

그림 3. 팬데믹 이전 대비 관광객 수 회복률¹⁾



주: 1) 2024년은 상반기 기준 비교
자료: 통계청

그림 4. 외국인 및 중국인 관광객 비중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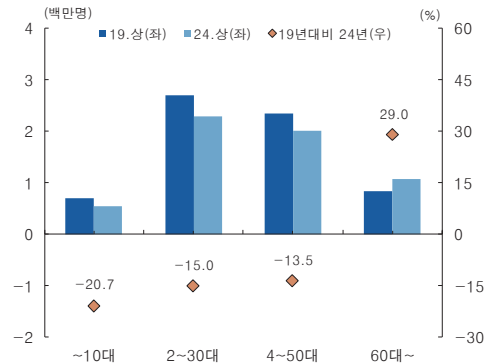


주: 1) 매년 상반기 비중
자료: 제주관광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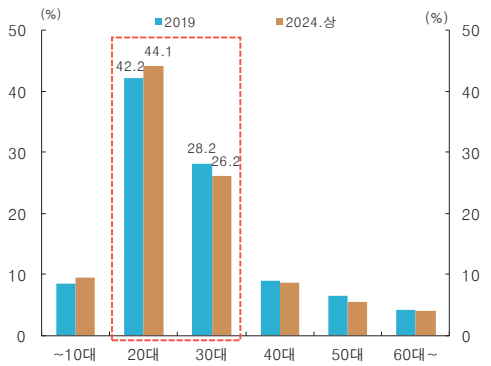
41) 이는 2017년 사드 사태로 관광객이 급감하기 전인 2016년 상반기 중국인 비중 85.4%에 근접하는 수치이다.

관광객 연령대별로 보면, 내국인은 50대 이하에서 팬데믹 이전보다 감소한 반면,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는 증가하였다. 팬데믹 이전 대비 증감률(19.상반기 대비 24.상반기 기준)을 보면 10대 이하 -20.7%, 20~30대 -15.0%, 40~50대 -13.5%인 반면, 60대 이상은 +29.0%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연령대별 관광객 차이는 저출산·고령화 가속화 등 인구구조 변화⁴²⁾와 더불어 자녀동반 가족여행 감소⁴³⁾ 등의 여행 트렌드 변화에도 기인한다.

외국인의 경우 주요 방문국인 중국인 관광객의 연령대가 팬데믹 이전과 큰 변화 없이 20~30대에 집중되어 있었다. 중국인 관광객의 핵심 연령층인 2~30대 비중은 2024년 70.3%(20대 44.1%, 30대 26.2%)로 2019년 70.4%(20대 42.2%, 30대 28.2%)와 비슷한 수준이었다⁴⁴⁾. 이는 내국인 2~30대 비중 38%(20대 20%, 30대 19%)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며, 중국 외 국가⁴⁵⁾의 2~30대 비중과 비교해서도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2~30대 중심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하고 있는 것은 2017년 중국의 방한 단체관광 제한 이후 중국인의 제주여행 방식이 개별여행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⁴⁶⁾된 데도 영향을 받았다.

그림 5. 연령대별 내국인 관광객 증감¹⁾


주: 1)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의 방문객 비중을 이용해 시산
 자료: 제주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그림 6. 연령별 중국인 관광객¹⁾ 비중 변화


주: 1) 제주공항 입국 기준(크루즈 제외)
 자료: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 42)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 인구증감률(19년 대비 23년 증감률)은 10대 이하 -12.6%, 20~30대 -7.4%, 40~50대 -2.1%, 60대 이상 +20.2%로 미성년층 감소, 고령층 증가 현상이 뚜렷하다. 한편 인구변동 영향을 제외하기 위해 연령별 관광객 증감률에서 인구증감률을 차감할 경우, 10대 이하 -8.1%, 20~30대 -7.6%, 40~50대 -11.4%, 60대 이상 +8.8%로 고령층 관광객과 타 연령층 간 증가율 차이가 축소되기는 하나 여전히 고령층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다.
- 43) 미성년자인 10대 이하 관광객 중 수학여행 방문객을 차감하여 가족여행 방문수요를 추정하면,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해 2024년 상반기에 23.5% 감소한 것으로 시산된다. 서베이 자료인 「제주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에서도 동반자 유형 중 '가족/친지' 응답 비중은 2019년 47.7%에서 2023년 44.1%로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 44) 다만 이는 제주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만 대상으로 한 결과로, 고령층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크루즈 관광객을 포함할 경우 20~30대 비중은 낮아지고 고령층 비율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상반기중 우리나라로 입국한 중국인 크루즈 여행객 중 20~30대 비중은 12.9%, 60대 이상 비중은 56.9%로 제주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에 비해 고령층 비율이 높다.
- 45) 일본, 대만, 미국 방문객의 2024년 상반기중 20~30대 비중은 각각 19.6%, 17.2%, 19.6%이다. 이는 2019년(일본 16.6%, 대만 14.4%, 미국 13.6%) 대비 확대된 것이나 중국과 비교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 46) 제주방문 중국인의 여행형태(제주관광실태조사)가 2016년 개별여행 34.4%, 단체여행 65.6%였으나 2019년에는 개별여행이 90.2%로 확대되었고, 2023년에도 91.5%를 기록하면서 다른 나라 방문객보다도 개별여행 패턴이 뚜렷해졌다.

2. 팬데믹 이전 대비 내국인 관광객 감소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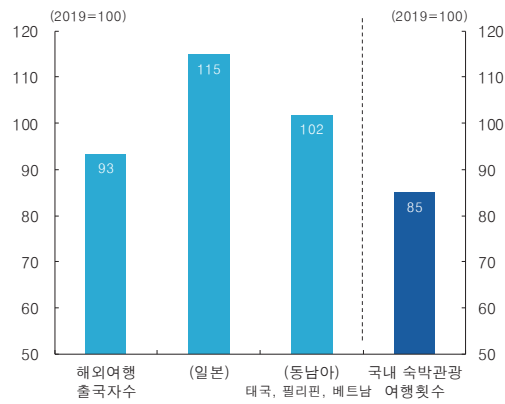
1) 해외 근거리 관광지 대비 경쟁력 약화

제주방문 내국인 관광객 수 감소는 팬데믹 이전 대비 근거리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금년 상반기중 전체 해외여행 출국자 수는 2019년 상반기 대비 93%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 와 대체관계로 볼 수 있는 일본, 동남아 등 근거리 지역은 팬데믹 이전 대비 각각 115%, 102%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근거리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2023년 국내 숙박관광 여행횟수는 2019년 대비 85%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제주공항의 2024년 상반기중 국내선 여객 수(도착 기준)가 팬데믹 이전 대비 3.3% 감소한 가운데, 일본노선 비중(24.상반기중 37.8%)이 큰 김해공항에서 출발한 여객수가 더 크게 감소(-13.3%)하여 근거리 해외여행 접근성 개선이 내국인의 제주방문 감소에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행비용 측면에서도 팬데믹 이후 장기화된 엔저현상으로 일본여행경비 상승률이 제주보다 낮은 점이 제주여행의 가격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인당 지출경비(항공료 제외⁴⁷⁾)를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보면 제주여행은 47.0%, 일본여행은 47.4%(엔화 기준) 상승하여 비슷한 오름세를 보였다. 그러나 일본여행경비를 원화로 환산하면 엔저현상⁴⁸⁾으로 인해 28.2% 상승에 그친다. 이에 따라 2019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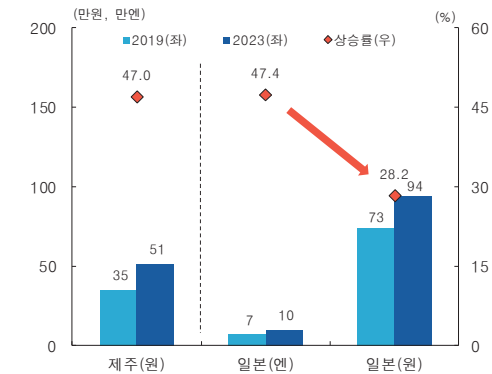
는 일본여행이 제주여행에 비해 약 2배(일본 73만원, 제주 35만원) 정도 비쌌으나, 2023년에는 1.8배(일본 94만원, 제주 51만원)로 상대적인 비용부담이 낮아진다. 이로 인해 제주 대신 일본을 선택하는 대체관계가 강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⁴⁹⁾

그림 7. 팬데믹 이전 대비 출국자 수 및 국내여행횟수¹⁾



주: 1) 출국자수는 19년 상반기 대비 24년 상반기, 국내 숙박관광 여행횟수는 19년 대비 23년
자료: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그림 8. 제주 및 일본여행 1인당 지출경비¹⁾



주: 1) 항공료 및 선박료 지출 제외
자료: 제주관광공사, 일본정부관광국

47) 팬데믹 이전 대비 항공료 상승률(19년 대비 23년 소비자물가 기준)은 국제선(22.8%)이 국내선(9.1%)을 상회하였다.

48) 원/100엔 환율(연평균)이 2019년 1,080원에서 2023년 931원으로 13.0% 하락하였고, 2024년 상반기중에는 888원으로 더 낮아져 2019년과 비교하면 19.4%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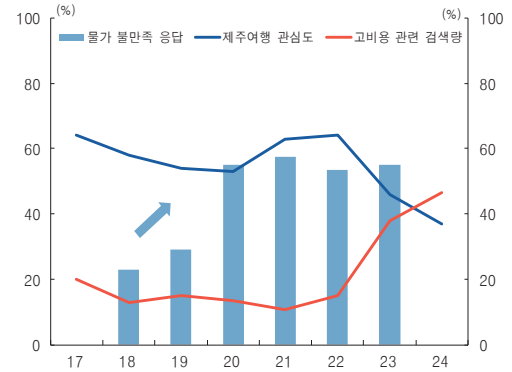
49) 내국인 제주관광객과 일본출국자수는 상관계수(증감수 기준)가 2016.6월~2019.5월(36개월)중 0.70으로 여행수요 변동과 같은 공동요인으로 큰 보완관계를 보였으나, 팬데믹 이후 2022.7월~2024.6월(24개월)중에는 -0.62로 대체관계로 전환하였다.

2) 국내 주요 관광지 대비 경쟁력 약화

팬데믹 기간 중 관광수요가 집중되면서 제주도 여행비용이 타 지역보다 크게 상승하였고, 이에 따라 내국인 관광객의 제주여행 고비용 인식 및 불만족도가 증가하였다. 제주지역은 2021~22년중 해외여행 제한으로 내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음식점, 숙박비 등 개인서비스 가격과 교통비(항공료, 렌터카 등) 상승폭이 국내 타 관광지보다 높았다.⁵⁰⁾ 2023년 이후 내국인의 제주 관광수요가 줄면서 관광서비스 물가상승률이 전국보다 낮은 수준⁵¹⁾을 보이고 있으나, 금년 들어 제주여행 관련 고비용·불친절 논란⁵²⁾이 확산되며 여행 관심도나 선호도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팬데믹 이후 내국인의 당일여행 선호도가 높아지는 등 여행 형태가 변화한 것도 제주 선호도 하락요인이다. 교통인프라 개선, 여행비용 부담 등으로 당일관광여행 비중이 2019년 50.8%에서 2023년 57.9%로 확대되었고 2024년 1/4분기에도 59.0%를 차지하여 점차 단기화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관광 트렌드는 숙박여행 중심으로 체류기간이 긴 제주관광 수요에는 부정적인 요인이다. 아울러 2021~22년 해외관광 대체지로서 집중 방문 이후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인기 관광지가 타 지역에 비해 감소⁵³⁾한 점도 경쟁력 약화 요인이다.

그림 9. 제주여행 관심도 및 고비용 인식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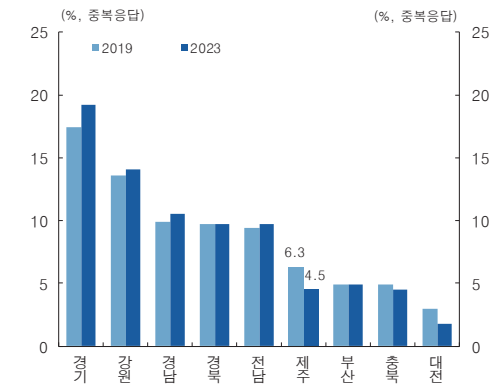


주: 1) 2024년은 1-7월 기준

2) 네이버에서 고물가, 바가지와 관련해 검색한 횟수를 월별로 합산하여 상대적인 변화를 측정

자료: 컨슈머인사이트, 네이버 데이터랩, 제주관광공사

그림 10. 국내여행 방문지 선호도 변화¹⁾



주: 1) 중복응답 허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조사

- 50) 관광객 지출이 큰 외식물가(소비자물가 기준)는 내국인 관광객이 증가세를 보였던 2021년~22년중(20.12월 대비 22.12월) 제주가 14.7% 상승하여 전국 상승률(13.4%)을 상회했다. 아울러 2022년 국내선 항공권 가격(제주항공 기준)도 2019년에 비해 12.0%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여행조사」 결과에서는 2022년 숙박여행 1회당 지출금액이 제주는 2020년 대비 19.5% 증가하여 전국 증가율(13.3%)을 상회하였다.
- 51) 2024.8월 제주지역 외식물가는 2022.8월 대비 6.1% 상승하여 전국(8.1%)보다 낮은 오름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팬데믹 이전인 2019.8월 대비 상승률이 21.2%로 전국(22.0%)보다 낮아졌다. 한편 국내선 항공권 가격 상승률(제주항공)도 2022년 52.6%에서 2023년 3.4%로 둔화되었고, 2024년 상반기는 전년동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 52) 금년 들어 온라인 커뮤니티 및 언론기사를 통해 비계 삼겹살, 바닷가 해산물 바가지 가격, 해수욕장 평상 갑질 등 제주여행 관련 부정적인 이슈가 확산된 바 있다.
- 53) 관광 관련 목적지별로 내비게이션 검색순위(한국관광공사 관광데이터랩)를 보면, 제주도의 경우 전국 100위권 안에 드는 장소가 2021년보다 감소하는 추세이다. 자연관광은 21년 14개에서 24년 상반기 9개로, 음식점은 8개에서 5개로, 체험관광은 8개에서 5개, 숙박은 11개에서 1개, 문화관광은 5개에서 1개로 줄었다.

3. 팬데믹 이전 대비 외국인 관광객 증가 요인

팬데믹 이전 대비 외국인 관광객 증가는 중국인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인의 해외여행 수요가 금년 들어 빠르게 회복하는 점에 기인한다. 2024년 외국인 관광객은 2019년 대비 12.8만명(상반기 기준, +16.2%) 확대된 가운데, 중국(+23.2만명), 대만(+2.5만명), 싱가포르(+0.3만명)가 증가한 반면, 그 외 국가(-12.2만명, -49.0%)에서는 감소하였다⁵⁴⁾. 중국인의 해외여행 수요는 여타 국가보다 늦은 국경개방(23.1월) 및 단계적인 단체 관광 허용(한국은 23.8월) 등으로 회복세가 느려 2023년 출국자(8,700만명)가 2019년(1.5억명) 대비 57%에 그쳤다. 그러나 올해는 1.3~1.4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⁵⁵⁾되어 2019년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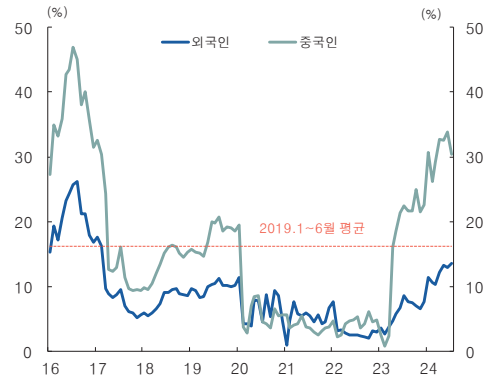
중국인의 해외여행 회복세가 제주도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근거리 해외여행 위주의 정상화⁵⁶⁾, 중국-제주도간 무사증 제도, 코로나19 이후 제주여행에 대한 관심 증가⁵⁷⁾ 등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24년 방한 중국인이 2019년 대비 감소(-20.8%, 상반기 기준)했음에도, 제주방문 중국인은 큰 폭 증가(+50.8%)함에 따라, 방한 중국인의 목적지 중 제주도 점유율이 팬데믹 이전 대비 크게 확대(19.상반기 16.3% → 24.상반기 31.0%)되었다.

표 1. 팬데믹 이전 대비 국가별 방문객 증감¹⁾

	증감 (만명)	증감률 (%)	비중(증감) (%, %p)
외국인 계	12.8	16.2	
중국	23.2	50.8	75.4 (+21.4)
대만	2.5	55.4	7.5 (+2.2)
싱가포르	0.3	22.2	2.0 (+0.7)
홍콩	-0.7	-26.6	2.1 (-3.2)
일본	-0.9	-23.3	3.6 (-0.3)
미국	-0.2	-8.9	2.1 (-0.7)
인도네시아	-0.7	-56.6	0.6 (-1.6)
베트남	-1.2	-77.0	0.4 (-1.8)
태국	-2.5	-95.8	0.1 (-5.6)
말레이시아	-2.8	-81.4	0.7 (-4.2)
기타 서구권	-3.2	-81.4	3.3 (-5.0)

주: 1) 2019년 상반기 대비 2024년 상반기 기준
 자료: 제주관광협회

그림 11. 방한 외국인의 제주방문 비중¹⁾



주: 1) 방한 외국인 중 제주방문 외국인 수
 자료: 제주관광공사

중국인 해외여행 수요 정상화와 더불어 제주 기점 국제선 회복 및 크루즈 운항 재개 등 접

54) 동남아시아 국가의 제주방문 감소폭이 크게 나타난 것은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행으로 사전 입국심사가 엄격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이며, 유럽 등 서구권은 장거리 국제노선 재개 지연이 영향을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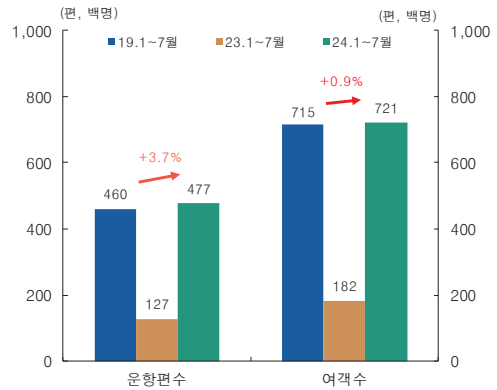
55) 中国旅游研究院은 2024년 중국인의 해외여행규모를 1.4억명으로 예상하였다.(中国出境旅游发展年度报告 2023-2024, 24.2월)

56) 중국 해외여행 수요가 비자 면제 협정 등으로 입국이 편리하고 가성비 좋은 아시아 지역이 먼저 회복됨에 따라 항공노선도 이들 지역에서는 2019년 수준으로 정상화되고 있으나, 미주,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은 회복세가 더딘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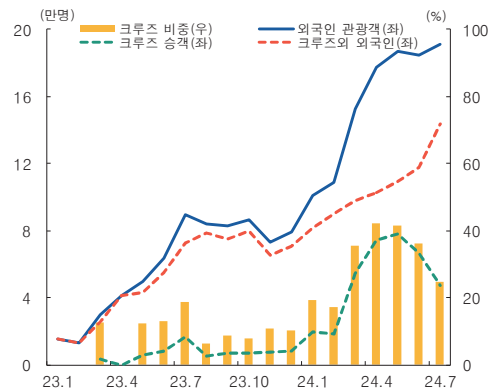
57) 제주도를 키워드로 한 바이두(百度) 검색지수가 2024.상반기중 2,019로 2019.상반기중 지수 1,989를 상회하였다. 다만 중국 관광객이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6년(306만명)중 3,422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근성 개선도 영향을 주었다. 제주공항 국제선 도착편수(1~7월 기준, 월평균)는 2023년 244편에서 2024년 642편으로 398편 증가하였는데, 중국노선이 350편 증가(127편 → 477편)하여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2019년과 비교하면 전체 국제선 도착편수는 5.5% 감소(여객수 -5.4%)한 반면, 중국노선은 3.7% 증가(여객수 +0.9%)하여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하였다.

아울러 중국의 방한 단체관광 제한(17.3월)으로 중단되었던 중국발 크루즈 입항이 재개(23.9월)된 점도 팬데믹 이후 중국인 관광객 유입이 확대된 요인이다. 2024년 1~7월중 제주를 방문한 크루즈 여행객은 36.0만명으로 외국인 관광객(109.4만명)의 33.0%를 차지하였고, 이 중 82%가 중국인으로 전체 중국인 관광객(81.8만명)의 36%였다. 다만 크루즈 관광객은 당일관광(8시간대)이 대다수이므로 체류일수를 감안(일별 체류인원 합산)할 경우, 외국인 관광객 수는 팬데믹 이전 대비 줄고(방문객 수 기준 +16.7% → 연인원 기준 -12.9%), 중국인도 소폭 증가(46.4% → 4.3%)에 그친다.⁵⁸⁾

그림 12. 중국-제주 국제선 운항 및 여객수¹⁾


주: 1) 월평균, 도착 기준
 자료: 한국공항공사

그림 13. 크루즈 및 크루즈 외 외국인 관광객 수


자료: 제주관광공사

58) 크루즈 관광객은 체류일수 1일, 크루즈 외 관광객은 체류일수 5일(외국인 평균 관광일수 4.5일 고려)을 적용하여 일별 체류인원을 합산할 경우, 2024년 관광객 수는 2019년(1~7월 기준) 대비 12.9% 감소하여 방문객 수 기준으로 16.7% 증가한 것과 차이를 보인다. 중국인의 경우도 방문객 수는 2019년 대비 46.4% 증가하였으나, 체류인원 기준으로는 4.3% 증가하였다. 크루즈 관광객을 제외할 경우 외국인인 2019년(1~7월 기준) 대비 20.4% 감소하였고, 중국인도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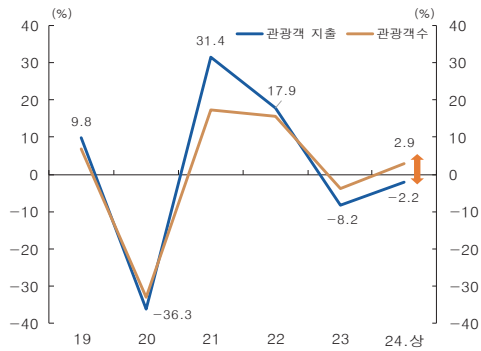
Ⅲ. 최근 제주 관광객 소비에 대한 평가

1. 제주지역 관광객 소비 추이⁵⁹⁾

제주지역 관광객 소비는 팬데믹 기간 중 큰 폭 등락을 보이다 지난해는 관광객 수 감소로 부진하였고, 금년 들어서는 부진세가 점차 완화되고 있다. 제주지역 관광객 소비는 코로나 19가 발생한 2020년 36.3% 감소하였다가 2021년 31.4%, 2022년 17.9% 증가하여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관광객 수가 감소(-3.7%)한 2023년은 관련 소비도 8.2% 감소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는 관광객 수 증가(+2.9%)에 따라 감소폭이 2.2%로 축소(1/4분기 -4.2%, 2/4분기 -0.4%)되었다. 다만 금년중 관광객 수 증가세에 비해 관광객 소비 개선세는 다소 미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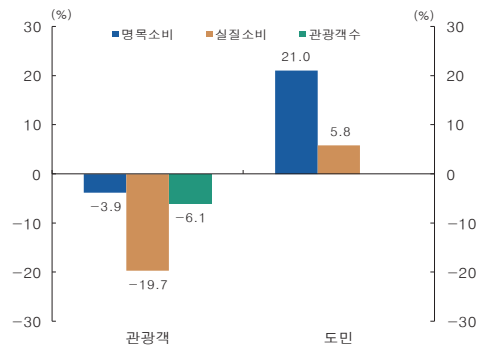
팬데믹 이전과 비교⁶⁰⁾해보면 관광객 명목소비는 소폭 감소한 수준이나, 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소비는 상당폭 감소하였다. 금년 2/4분기 관광객 명목소비는 2019년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3.9%)하였으며, 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소비는 19.7% 감소하였다. 관광객 수 감소(-6.1%)에 비해 실질소비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 1인당 실질소비가 감소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제주도민 소비 회복세(전업종 기준 명목 +21.0%, 실질 +5.8%)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이다.

그림 14. 제주지역 관광객 신용카드 이용액 증가율 추이¹⁾



주: 1) 팬데믹 이후 연도별 추이
자료: 제주관광공사, 신한카드

그림 15. 제주지역 관광객 신용카드 이용액 증감률¹⁾



주: 1) 매년 상반기 비중
자료: 제주관광협회

관광객 소비를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으로 나누어 보면, 2023년 이후 내국인 관광객 소비는 전년동기대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외국인 관광객 소비는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내국인 관광객 소비는 2023년 15.5% 감소한 데 이어 2024년 상반기

59) 본고에서는 제주관광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카드사용액 데이터를 이용하되 현장 결제가 중심이 되는 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업, 여가서비스, 기타서비스업 대상(운송업은 제외)으로 분석하였다. 다만 OTA(Online Travel Agency, 온라인 여행상품 판매사)를 통해 숙박업소, 항공권 등을 구매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등 관광상품 판매채널이 다각화되고 있으나, 이 경우 업종이 전자상거래업 등으로 분류되고 소비지역 구분도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절대 수치보다는 추세 변화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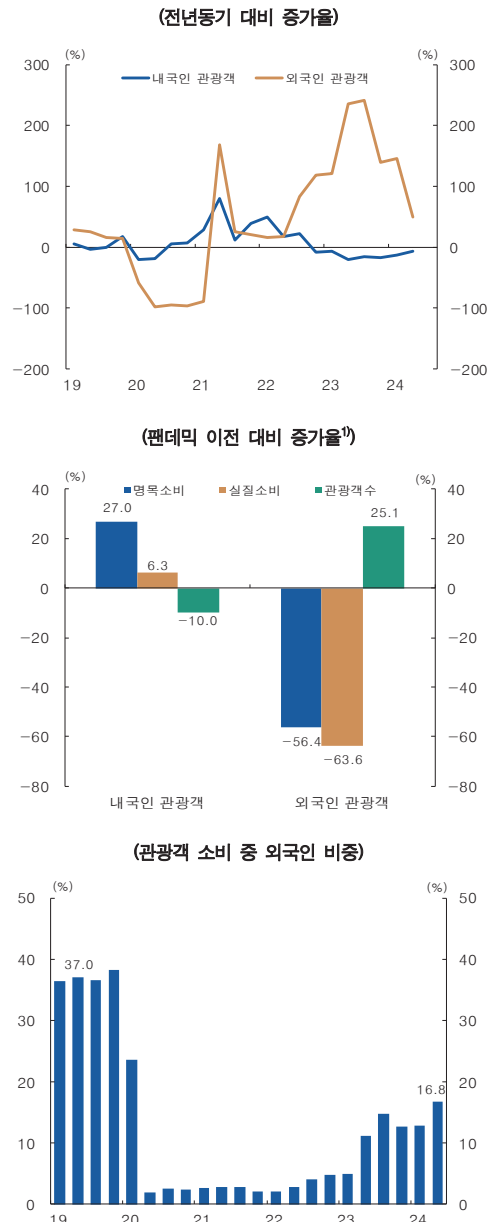
60) 팬데믹 이전과의 비교는 최근 분기인 2/4분기를 기준으로 하였다. 1/4분기까지는 국제선 증편이 정상화 과정에 있었고, 내국인의 해외여행 이연 수요도 근거리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던 점을 고려하였다.

에도 9.3% 감소하면서 전체 관광객 소비의 회복세를 제약하고 있다. 다만 분기별로는 감소폭이 점차 완화(1/4분기 -12.1% → 2/4분기 -6.8%)되는 흐름이다. 외국인 관광객 소비는 2023년 급증한 이후 2024년 상반기에도 높은 증가세(76.8%)를 이어가고 있다.

팬데믹 이전 대비 내국인은 관광객 수가 감소했으나 소비는 증가한 반면, 외국인은 관광객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큰 폭 감소하였다. 금년 2/4분기중 내국인 관광객 명목소비(실질소비)는 팬데믹 이전 대비 27.0%(6.3%) 증가한 반면, 외국인은 56.4%(63.6%) 감소하여 관광객 수 증감(내국인 -10.0%, 외국인 25.1%)과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한편 팬데믹 이전 대비 내국인 소비 증가율을 타 지역과 비교하면 제주가 전국 평균보다 높았으며 강원도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었다⁶¹⁾.

이에 따라 관광객 소비 중 외국인 관광객 소비 비중이 팬데믹 이전 대비 절반 이하에 머무르고 있다. 관광객 소비 중 외국인 비중은 2019년 2/4분기 37.0%였으나 2024년 2/4분기 16.8%에 그치고 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 수 비중이 확대(19.4/4 11.4% → 24.2/4 14.9%)된 점을 감안하면, 과거보다 1인당 소비금액이 내국인에 비해 크게 감소했음을 시사한다. 서베이 조사인 「제주관광실태조사」에서도 관광객 지출경비(항공료/선박료 제외)가 팬데믹 이전 대비 내국인은 47.0% 증가한 반면 외국인(원화기준)은 1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⁶²⁾

그림 16. 제주지역 관광객 신용카드 이용액 증가율: 내국인 vs 외국인



주: 1) 19.2/4분기 대비 24.2/4분기 증감률

자료: 제주관광공사, 신한카드

61) 자세한 내용은 <참고 1> “지역별 내국인 관광객 소비 비교”를 참조하기 바란다.

62) 「제주관광실태조사」에 따르면 내국인 1인당 지출액은 2019년 46.5만원에서 2023년 66.3만원으로 43.2%(항공료/선박료 제외 시 47.0%) 증가하였다. 외국인(항공여행객 기준)은 동 기간 중 1,199달러에서 1,039달러로 13.3% 감소하였고, 항공료를 제외한 지출액(19년 893달러 → 23년 693달러)은 22.4% 줄었다. 원화 기준(원/달러 환율 19년 1,166원 → 23년 1,305원)으로는 2.9% 감소(항공료/선박료 제외시 -13.1%)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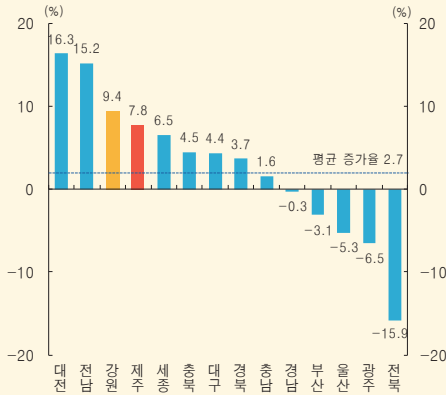
참고 1

지역별 내국인 관광객 소비 비교

제주관광공사가 제공하는 신한카드 자료에는 제주 외 타 지역의 소비 정보가 없어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 데이터랩」 자료(신한, BC카드)를 이용해 지역별 관광객 지출액 증가률을 비교해보았다. 다만 두 자료 간에는 전자상거래·본사 집중 사업자 매출 등에 대한 보정방식, 타사 신용카드 소비액 추정치 포함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어, 본문에서 분석한 제주지역 소비 증가율과의 직접적인 비교보다는 지역별 순위 비교에 중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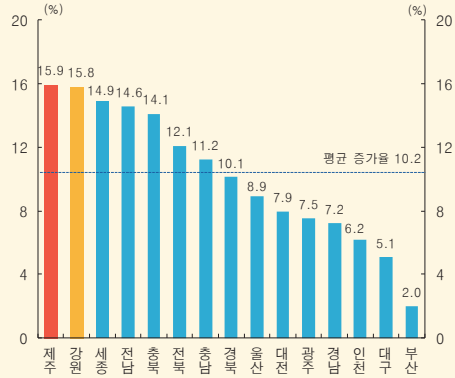
팬데믹 이전 대비 내국인 관광객 소비 증가율을 보면 제주는 7.8%로 전국 평균(2.7%)을 상회했고, 경쟁지역인 강원(9.4%)에 비해서는 소폭 낮게 나타났다. 팬데믹 이전 대비 관광객 수(체류인원 기준) 증가율은 제주가 15.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그림 17. 팬데믹 이전 대비 내국인 관광객 소비액¹⁾²⁾



주: 1) 19/24분기 대비 24/24분기 증감률
2) 지역은 수도권 제외, 업종은 운송업·면세점 제외
자료: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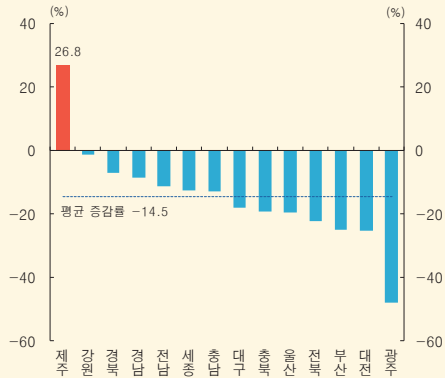
그림 18. 팬데믹 이전 대비 내국인 관광객 수¹⁾²⁾



주: 1) 19/24분기 대비 24/24분기 증감률
2) 이동통신을 이용한 체류인원 기준
자료: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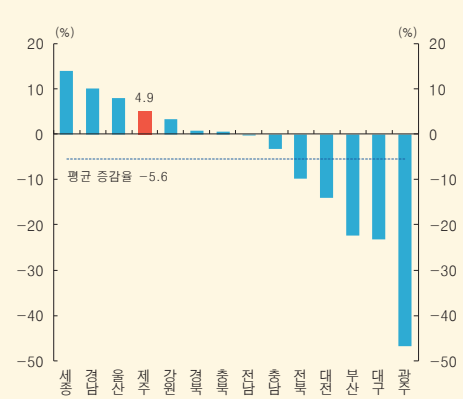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의 연간 서베이 자료인 「국민여행조사」를 이용한 분석에서도 팬데믹 이전 대비 관광객 지출액 증가율이 제주지역은 26.8%로 가장 높았고, 관광여행 횟수도 4.9% 증가하여 전국 평균이 5.6% 감소한 것에 비해 양호한 모습이었다. 한국관광공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보다 지출액 증가율이 높은 것은 항공 교통비 등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2023년 국내선 항공료(제주항공 기준)는 2019년 대비 15.8% 상승하였다.

그림 19. 팬데믹 이전 대비 관광여행 지출액¹⁾



주: 1) 2019년 대비 2023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조사

그림 20. 팬데믹 이전 대비 관광여행 횟수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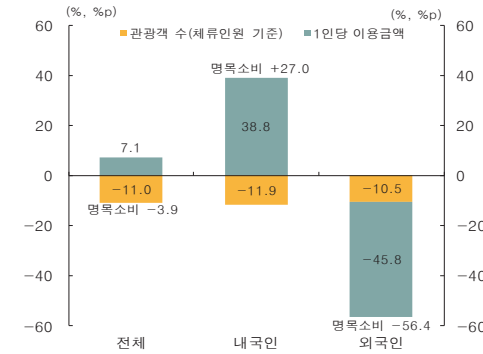


주: 1) 2019년 대비 2023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조사

관광객 소비 증가율을 「관광객 수(1일당 체류인원 기준)」와 「1인당 1일 소비액」로 분해해본 결과, 내국인 명목소비가 증가(+27.0%)한 것은 1인당 소비 증가 영향(기여도 38.8%p)이 컸으며, 외국인 소비감소(-56.4%)도 1인당 소비 감소(기여도 -45.8%p)에 주로 기인했다.⁶³⁾ 본 분석에서의 관광객 수는 관광객 특성별 체류일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일별 체류인원을 합산⁶⁴⁾한 수치를 적용하였다. 체류일수가 짧은 외국인 크루즈 여행객이 2019년에는 미미했으나 금년 2/4분기중에는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40%에 이르는 만큼 단순 방문객 수로는 영향이 과도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체류인원 기준 관광객 수는 내국인의 증감률(-10.0%)은 동일하지만, 외국인은 14.4% 감소하여 방문객 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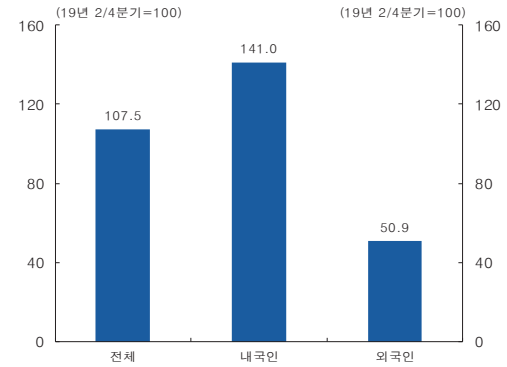
(+25.1%)에 비해 크게 낮아졌고⁶⁵⁾ 관광객 전체로는 10.6% 감소(방문객 수 기준 -6.1%)한 것으로 시산된다. 또한 체류인원을 감안할 시, 팬데믹 이전 대비 1인당 1일 신용카드 이용액은 내국인은 141%로 확대된 반면, 외국인은 51% 수준에 그쳤다.

그림 21. 관광객 지출액 증가를 분해¹⁾



주: 1) 19년 2/4분기 대비 24년 2/4분기
 자료: 제주관광공사, 신한카드

그림 22. 1인당 1일 신용카드 이용금액¹⁾



주: 1) 전체 신용카드 이용액/체류인원 기준 관광객 수
 자료: 제주관광공사, 신한카드

63) 다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매출데이터는 수집 과정에 한계가 많고, 신용카드 소비 비중도 낮아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의 경우 간편결제서비스가 보편화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결제 가능한 가맹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본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64) 내국인 관광객은 4일(내국인 평균 관광 일정 3박 4일), 크루즈 외국인 관광객은 체류일수 1일, 크루즈 제외 외국인 관광객은 체류일수 5일(외국인 평균 관광 일정 4박 5일)을 적용하여 시산하였다.

65) 팬데믹 이전과 비교한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감률이 체류인원 기준을 적용했을 때 크게 낮아지는 것은 크루즈 관광에 힘입어 방문객 수는 증가하였으나, 체류시간이 긴 크루즈 외 관광객은 팬데믹 이전에 비해 감소(19.2/4 대비 24.2/4에 24.3% 감소)했기 때문이다. 2024.2/4분기 제주공항 국제선 도착 여행객 수는 2019.2/4분기 대비 9.3% 감소한 데다, 국내선으로 환승하여 입국한 외국인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된다.

팬데믹 이후 관광객 1인당 소비금액 변화가 내·외국인간 차이가 뚜렷한 만큼 소비패턴, 관광객 구성, 관광물가 상승 등 관광 트렌드 변화를 고려하여 증감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관광객 지출 총액뿐 아니라 지출 항목 변화가 지역경제(성장, 소득,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도 추정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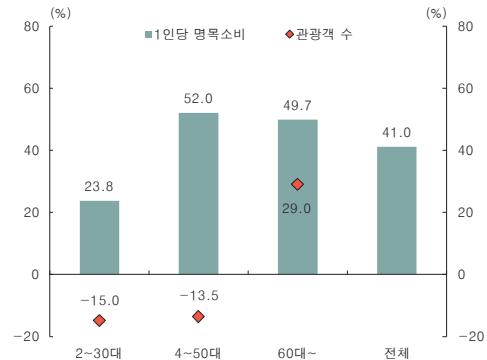
2. 팬데믹 이전 대비 내국인 관광객 소비⁶⁶⁾ 변화 특징

연령별⁶⁷⁾로는 1인당 명목소비가 20~30대보다 40~50대 및 60대 이상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2024.2/4분기중 20~30대의 1인당 명목소비는 2019.2/4분기보다 23.8% 증가한 반면, 4~50대와 60대 이상은 52.0%, 49.7% 증가하여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20~30대의 경우 1인당 소비증가율도 상대적으로 낮고, 관광객 증가율도 감소(-15.0%)하면서 전체 내국인 관광객 소비 중 비중이 축소(19.2/4 41.4% → 24.2/4 34.6%, -6.8%p)된 반면, 60대 이상은 1인당 소비증가율과 관광객 증가율 모두 전체 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소비 비중이 확대(12.0% → 17.7%, +5.7%p)되었다. 이는 제주 방문 고령층의 구매력이 팬데믹 이전보다 확대되면서 그 중요도가 더 커졌음을 보여준다.

업종별로는 음식점 및 여가서비스 소비가 상대적으로 큰 폭 증가하였으나 소매업은 소폭 증가에 그쳤다. 1인당 업종별 실질소비는 팬

데믹 이전 대비(2/4분기 기준) 음식점, 여가서비스가 각각 29.4%, 21.6% 증가하였고, 숙박업과 소매업은 전업종 증가율보다 낮은 14.3%, 9.4%를 기록하였다. 이는 식도락 등의 여행 경험을 SNS에 기록·공유하고, 체험활동을 중시하는 내국인 여행 트렌드가 소비지출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⁶⁸⁾ 세부 업종별로는 음식점 중에서는 카페 등 음료업종이, 여가활동 중에서는 골프 등 스포츠 서비스업의 소비 증가가 두드러졌다.

그림 23. 내국인 연령별 1인당 명목소비 증가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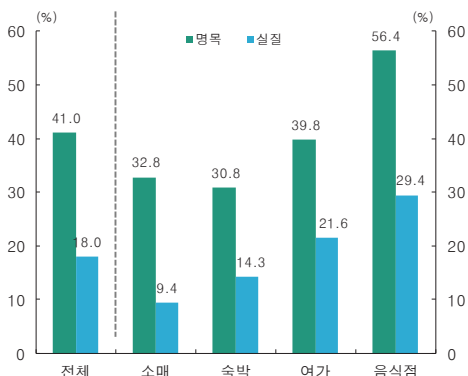
주: 1) 2019.2/4분기 대비 2024.2/4분기 증가율
 자료: 제주관광공사, 신한카드

66) 소비성향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1인당 1일 소비금액이 좀 더 적합하나, 체류일수 변화가 크지 않아 본고에서는 1인당 소비금액으로 분석하였다. 「제주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내국인 체류일수는 2019년 3.6일, 2023년 3.7일로 큰 변화는 없었다.

67) 연령별 소비 분석은 신한카드 소유자와 실제 이용자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가족 등 동반 인원이 있는 경우는 정확한 연령별 소비금액이나 소비업종 파악에 한계가 있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6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국내 여행지에서의 활동 중 음식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중복응답 가능)이 2019년 51.9%에서 2024.1/4분기 65.1%로 확대되었다. 제주도의 「제주관광실태조사」에서도 2023년 1인당 지출경비는 2019년 대비 43.2% 증가한 가운데, 식음료비는 이보다 높은 51.7% 증가하였다.

그림 24. 업종별 1인당 소비 증가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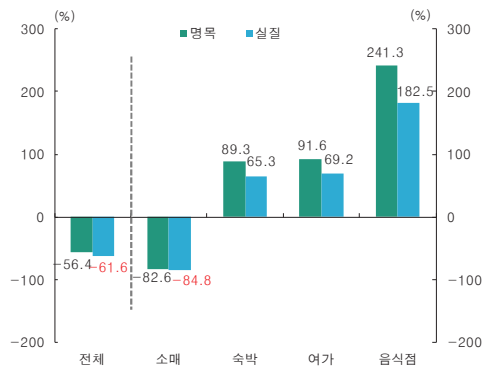
주: 1) 2019년 2/4분기 대비 2024년 2/4분기
 자료: 제주관광공사, 신한카드

3. 팬데믹 이전 대비 외국인 관광객 소비 변화 특징

업종별로는 팬데믹 이후 면세점을 중심으로 외국인 쇼핑 지출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명목소비액 증감률을 보면 음식점, 숙박, 여가서비스가 큰 폭 증가하였으나 소매업이 82.6% 감소하면서 전체 외국인 관광객 소비가 크게 감소하였다. 소매업 중에서는 면세점 감소⁶⁹⁾(-97.2%)가 두드러지는데, 이에 따라 소매업 내 면세점 소비비중(2/4분기 기준)이 2019년 92.7%에서 2024년에는 18.7%로 감소하고 종합소매매장⁷⁰⁾ 등의 비중이 확대되었다. 특히 이러한 면세점을 중심으로 한

소매업 지출 감소는 중국인 관광객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⁷¹⁾ 이는 중국 소비 둔화 등 경기적 요인 외에 합리적 소비성향 강화에 따른 럭셔리 브랜드 수요 위축 및 저가상품 구입 증가, 해외 면세점 선호도 하락⁷²⁾ 등 구조적 요인에도 기인한다. 실제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도 팬데믹 이후 면세점 등 쇼핑 지출 감소가 나타난다. 다만 제주지역 소매업은 판매상품이 대부분 제주 외 생산품이므로 매출액 대비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적은 데다, 면세점의 경우 영업이익의 본사 송금 등을 감안⁷³⁾하면 외국인 관광객 쇼핑 감소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타 업종에 비해 제한적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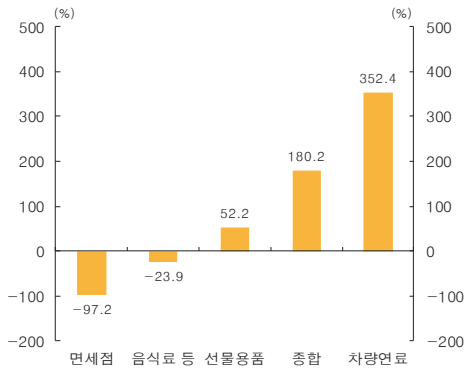
그림 25. 업종별 소비 증가율¹⁾



주: 1) 19/24분기 대비 24/24분기
 자료: 제주관광공사, 신한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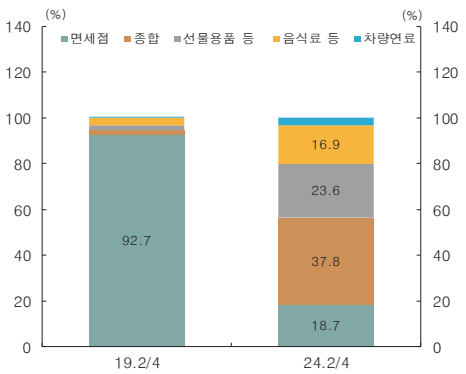
- 69) 한국면세점협회에서 발표한 제주지역 외국인 면세점 매출도 2019.상반기 83.7억달러(이용객 962만명)에서 2024.상반기 2.0억달러(442만명)로 97.6% 감소(이용객 -54.0%)하여 신용카드 감소폭과 비슷하였다.
- 70) 종합소매매장은 대형마트, 다이소, 올리브영 등으로 2024년 외국인 지출액(2/4분기 기준)이 2019년 대비 180.2% 증가하였다.
- 71) 「제주관광실태조사」에 따르면, 중화권 관광객(항공여행객 기준)의 1인 지출액(항공료/선박료 제외)은 2019년 1,080달러에서 2023년 752달러로 30.4% 감소(원화 기준 -22.1%)하였다. 이 중 가장 비중이 큰 쇼핑지출이 798달러에서 346달러로 56.7% 감소(원화 기준 -51.5%)하였다. 쇼핑 장소(중복 응답)의 경우 면세점 비중은 축소(19년 88.9% → 23년 74.3%)되고, 시내상점 가(로드샵, 59.4% → 67.2%) 대형마트(33.3% → 37.0%), 전통시장(21.4% → 32.2%)은 확대되었다.
- 72) 중국정부는 중국인의 해외 면세점 수요를 중국내 소비로 전환하기 위해 면세산업을 육성하면서 2011년부터 하이난에 면세쇼핑 구역을 도입하였는데, 하이난 면세점 매출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큰 폭으로 성장하여 2025년 3천억위안(420억달러)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국의 국영기업인 CDFG(중국 면세품 그룹)는 2020년부터 글로벌 1위 면세사업자로 올라섰고, 구매력이 향상되면서 면세품 구성이나 가격경쟁력이 제고되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한국-중국을 오가며 면세품을 대리구매하고 유통하던 타이공의 국내 면세점 매입이 감소하는 추세다.
- 73) 면세점 외 소매업의 경우 영업이익이 지역내 재투자나 소비 활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

그림 26. 소매업 소비 증가율¹⁾



주: 1) 19.2/4분기 대비 24.2/4분기
 자료: 제주관광공사, 신한카드

그림 27. 소매업 내 소비 비중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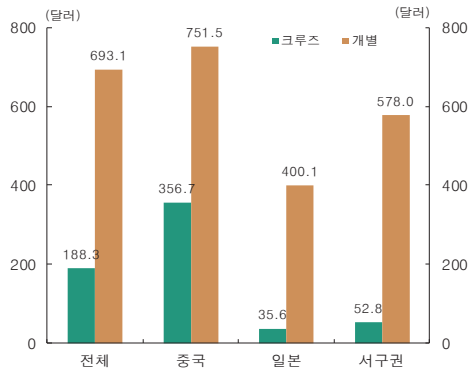


주: 1) 외국인 기준
 자료: 제주관광공사, 신한카드

관광객 구성 측면에서는 1인당 소비규모가 작은 크루즈 관광객이 팬데믹 이전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금년 2/4분기중 크루즈 관광객이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나 1인당 지출경비(제주관광실태조사)는 2023년 기준 188달러⁷⁴⁾로 크루즈 외 관광객 669달러의 27% 수준에 그쳐,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19.2/4분기 대비 +25.1%)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소비 감소(-56.4%) 요인으로 작용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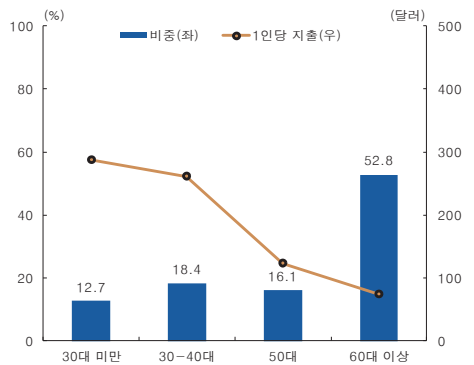
있다. 크루즈 관광객의 낮은 소비금액은 체류 시간이 8시간대로 짧고, 소비 여력이 크지 않은 60대 이상 비중이 높은 데 주로 기인한다. 제주관광실태조사에 따르면 크루즈 관광객의 지출항목은 쇼핑 56%, 식음료비(주로 간식류) 27%로 크루즈 외 관광객보다 쇼핑 비중이 높고, 음식점, 여가서비스 사용액 비중은 낮아 지출금액 대비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

그림 28. 관광객 1인당 지출경비¹⁾



주: 1) 항공권 및 선박료는 제외
 자료: 제주관광실태조사(2023)

그림 29. 연령별 크루즈 관광객 비중¹⁾ 및 1인당 지출²⁾



주: 1) 2023.6-2024.7월 누적 기준
 2) 2023년 기준
 자료: 제주관광실태조사, 한국관광 데이터랩

74) 다만 분기별로는 크루즈 관광객 소비가 2023.3/4분기 115달러에서 4/4분기 302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다른 나라보다 소비금액이 큰 중국인 크루즈 관광객이 2023.4/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방문하면서 그 비중이 높아진 데 기인한다.

지역별 소비분포를 보면 소매업을 중심으로 지역별 편중이 완화되면서 다양화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팬데믹 이후 제주시 동지역에 편중되어 있던 외국인 소비가 서귀포시 동지역 및 읍면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업종별로는 소매업의 경우 외국인 면세점이 위치한 제주시 동지역 비중이 큰 폭 감소하고 여타 지역이 늘었으며, 음식점 또한 읍면지역 비중이 확대되었다. 반면 숙박업의 경우는 동지역 비중이 좀 더 확대되었고, 읍면지역 중심의 여가서비스도 기존 추세가 강화되었다.

표 2. 지역별 외국인 소비 분포¹⁾

	전업종 (윤승업 제외)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여가 서비스업	
	19년	24년	19년	24년	19년	24년	19년	24년	19년	24년
동지역	95.4	76.8	98.3	86.2	78.6	64.4	75.2	88.8	15.0	6.2
-제주시	88.7	53.7	94.6	77.8	60.9	50.5	33.8	39.8	8.0	1.6
-서귀포시	6.7	23.1	3.7	8.4	17.7	13.9	41.4	49.0	7.0	4.6
읍면지역	4.6	23.2	1.7	13.8	21.4	35.6	24.8	11.2	85.0	93.8

주: 1) 1-7월 기준

자료: 제주관광공사 빅데이터 플랫폼

4. 관광객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⁷⁵⁾

관광객 소비지출로 지역 내 유발되는 직간접적인 부가가치유발효과⁷⁶⁾를 시산해본 결과, 팬데믹 이전 대비 관광객 소비규모가 상당폭 감소했으나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제

한적이었다. 금년 2/4분기중 관광객 실질소비금액이 2019년 대비 19.7% 감소한 반면, 관광객 지출로 유발된 부가가치액 증가율은 이보다 16.9%p 높은 2.8% 감소에 그쳤다. 내·외국인을 구분해 보면, 내국인은 실질소비가 6.3% 증가한 가운데 부가가치유발액은 2.8%p 높은 9.1% 증가하였고, 외국인은 실질소비가 63.6% 감소한 반면, 부가가치 유발액은 이보다 29.6%p 높은 34.0% 감소하였다.

이는 관광객 소비 중 매출액 대비 부가가치율이 낮은 소매업 지출이 감소하고, 임금 등 부가가치 비중이 높은 숙박, 여가, 음식점 등의 지출 비중이 확대된 데 기인한다. 산업별로 매출액 대비 부가가치유발계수⁷⁷⁾를 보면 숙박(0.70), 여가(0.66), 음식점(0.53)은 소매(0.21)⁷⁸⁾에 비해 임금 등 부가가치율이 높아 성장률 제고 효과가 큰 업종들이다. 특히 외국인은 면세점 중심으로 소매 실질소비가 크게 감소(-84.8%)한 반면, 부가가치유발효과가 큰 음식점 소비는 큰 폭 증가(+182.5%)하면서 소비감소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상쇄되었다. 내국인도 음식점(+16.5%), 여가(+9.5%) 등이 소매(-1.3%)에 비해 크게 증가하면서 소비 증가율에 비해 부가가치유발액 증가율이 더 크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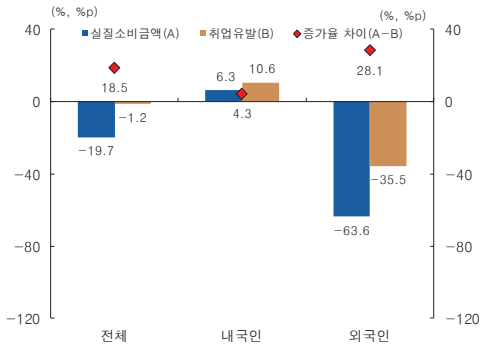
75) 관광객이 제주에서 소비한 금액은 관광산업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연관산업에도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킨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역산업연관표(2015년)를 이용하여 관광객의 업종별 소비 변화가 제주지역 내 부가가치(성장), 고용, 소득 등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76) 부가가치는 생산활동의 결과물인 총산출액에서 원부자재 등 중간투입액을 차감한 것으로, 생산활동에 투입된 생산요소(노동, 자본, 토지)의 대가인 임금(피용자보수), 영업잉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광객 지출은 해당 산업의 부가가치뿐 아니라 관련 산업 및 타 지역의 생산활동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인 부가가치를 유발하는데, 본고에서는 제주지역 내로 파급되는 직간접적인 부가가치를 분석하였다.

77) 예를 들어 특정산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가 0.5이면, 해당 산업의 최종수요(소비)가 10억원 증가시 해당산업 및 연관산업에 유발되는 부가가치가 5억원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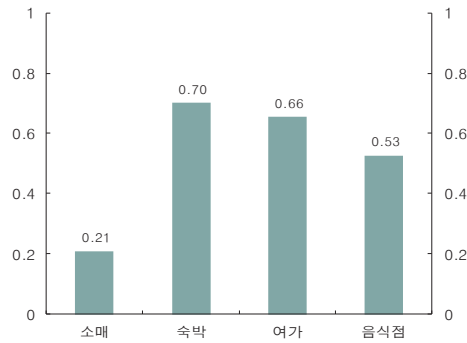
78) 소매업은 매출액에서 매입원가를 차감한 금액(마진)이 산출액이므로, 매출액 대비 부가가치유발액이 다른 업종에 비해 작다.

그림 30. 소비금액 및 부가가치유발액 증가율¹⁾



주: 1) 19.2/4분기 대비 24.2/4분기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제주관광공사, 신한카드

그림 31. 산업별 소비액 대비 부가가치유발계수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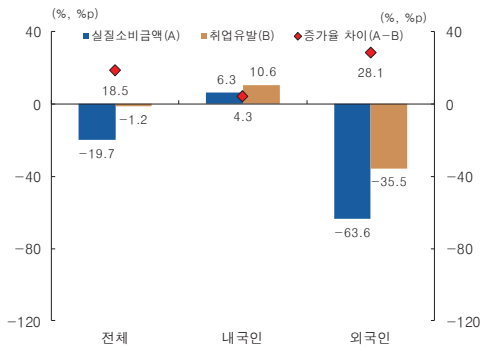


주: 1) 제주지역 내 파급 기준
 자료: 지역산업연관표(2015년), 기업경영분석(2022년)

관광객 지출에 따른 지역내 고용 및 소득 파급효과 또한 관광객 소비액 감소폭과 비교하면 위축 정도(고용 -1.2%, 소득 -1.9%)가 미미하였다. 소매업의 소비액 대비 취업유발계수⁷⁹⁾(10억원당 5.7명) 및 소득유발계수⁸⁰⁾(0.1)가 여타 업종 평균(취업유발계수 13.8명, 소득유발계수 0.29)과 비교하면 각각 41%, 35% 수준으로 낮게 시산된다. 2019년 대비 관광객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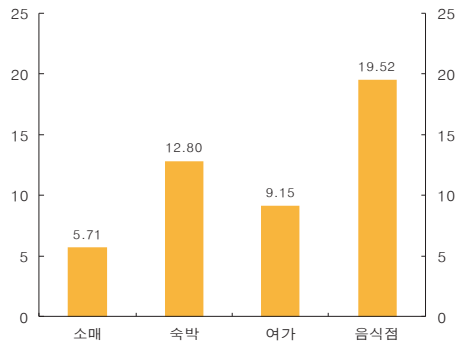
는 감소하였으나, 업종별로는 고용 및 소득 파급효과가 작은 소매업 비중이 축소되고 여타 업종은 확대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고용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2019년 대비 소폭 감소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소비 감소(-63.6%)와 비교하면 고용(-35.5%)·소득(-31.3%) 유발액 감소가 크게 축소되었다.

그림 32 소비금액 및 취업유발 증가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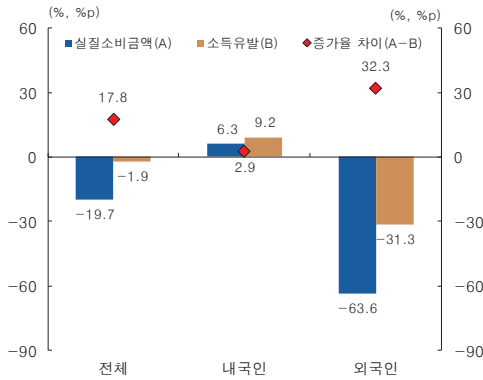
주: 1) 19.2/4분기 대비 24.2/4분기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제주관광공사, 신한카드

그림 33. 산업별 소비액 대비 취업유발계수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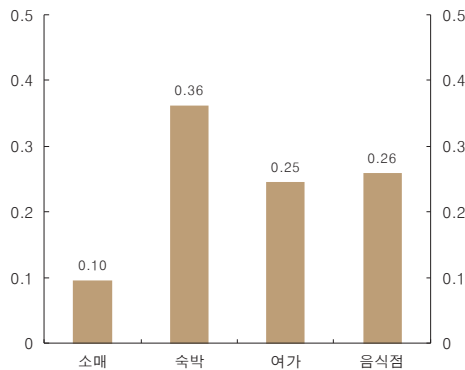


주: 1) 제주지역 내 파급 기준
 자료: 지역산업연관표(2015년)

79) 취업유발계수는 특정 산업부문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10억원) 발생할 경우 해당 산업과 연관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의미한다. 단 지역산업연관표상에는 숙박과 음식점의 취업유발계수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전국 취업유발계수를 감안하여 계산하였다.
 80) 소득유발계수는 특정 산업부문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10억원) 발생할 경우 해당 산업과 연관산업에서 유발되는 소득(피용자보수)효과를 나타낸다.

그림 34. 소비금액 및 소득유발 증가율¹⁾

주: 1) 19.2/4분기 대비 24.2/4분기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제주관광공사, 신한카드

그림 35. 산업별 소비액 대비 소득유발계수¹⁾

주: 1) 제주지역 내 파급 기준
 자료: 지역산업연관표(2015년)

IV. 향후 제주 관광경기 여건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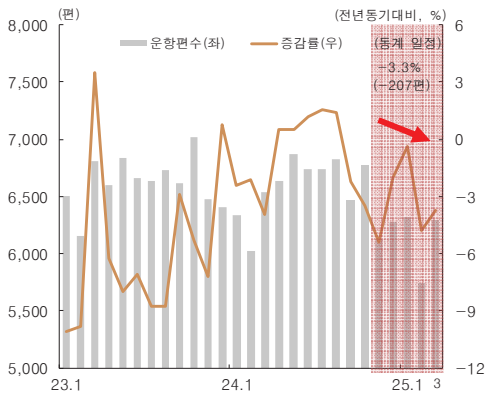
1. 내국인 관광객

내국인 관광객은 해외여행 접근성 개선, 항공사의 제주기점 국내선 감편 등으로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동계기간(24.11~25.3월) 정기 항공편 일정(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체 국제선 운항이 2023년 동계기간 대비 14% 증편되었고, 중국정부도 최근 한국인 무비자입국을 허용(24.11.8 ~25.12.31일)함에 따라 내국인의 해외여행 증가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⁸¹⁾ 반면 제주공항 도착 국내선은 동계기간중 소폭 감소(-3.3%)하는 것으로 나타나, 내국인 제주방문 회복세를 제약하는 요인이다.⁸²⁾ 다만 향후 국내 민간 소비 회복세⁸³⁾, 제주여행 고비용 인식 및 이미지 개선 정도 등에 따라 회복 속도는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81) 시장조사기관인 컨슈머리포트에 따르면 24.10월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해외여행 경험비율은 35.6%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19.10월 39.1%보다 낮아 해외여행 이연 수요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82) 제주공항 도착 국내선 항공좌석 수가 지난해보다 감소(전년동기대비 -1.8%, 1~10월 기준)하면서 관광객 선호시간대 항공권 예매경쟁 심화, 운임 상승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제주도에서는 최근(11.12일) 국토부에 국내선 노선확충 등의 대책을 건의한 바 있다.

83) 한국은행 경제전망(24.8월)에 따르면 국내 민간소비는 가계 실질소득 개선 등으로 회복세가 점차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24.상반 1.0% → 하반기 1.4% → 25년 2.0%)

그림 36. 제주공항 국내선 운항편수¹⁾

주: 1) 24.11~25.3월은 항공스케줄 반영
자료: 한국공항공사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수요 증가가 긍정적이거나, 팬데믹 이후 해외여행 편의성 향상, 항공료 등 국내 타 지역 관광지 대비 비용 부담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양적인 측면에서 추세적인 증가는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인구·가계구조(1~2인 가구 증가, 초혼 평균연령 상승, 출산율 하락 등)와 라이프 스타일 변화, SNS/미디어의 성장, IT 기술발전에 따른 해외여행 편의성 향상 등으로 해외여행 수요기반이 팬데믹 이전보다 확대되었다. 아울러 고령층의 근거리 국내여행 선호에도 불구하고 노후대비 부담 등이 여행비 지출을 제약할 수 있으며, 해외여행 거부감이 적은 2차 베이비 부머 세대(1964~1974년생, 975만명)의 은퇴도 과거 고령층의 제주여행 증가와는 다른 양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 외

에 팬데믹 대비 높아진 항공권 가격도 대형 항공사 합병에 따른 경쟁구도 약화, 제주공항 수용능력 한계⁸⁴⁾ 등으로 높은 수준이 지속될 수 있다.

2. 외국인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은 단기적으로는 중국노선 증편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크루즈 입항도 꾸준히 이어지는 등 양호한 유입여건으로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금년 하반기 제주-중국 노선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나, 중국인 관광객이 최대를 기록했던 2016년과 비교하면 80% 수준⁸⁵⁾으로 항공편 증편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동계기간(24.11~25.3월) 제주공항 도착 국제선은 높은 증가세(전년동기대비 +44.7%)가 예상된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저조했던 중국노선의 탑승률이 꾸준히 개선된 점도 향후 외항사의 항공노선 확대에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크루즈 입항도 금년 298편에서 내년 334편으로 증가(+12.1%)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⁸⁶⁾ 다만 금년 하반기 이후 중국경제의 둔화흐름⁸⁷⁾은 부정적 요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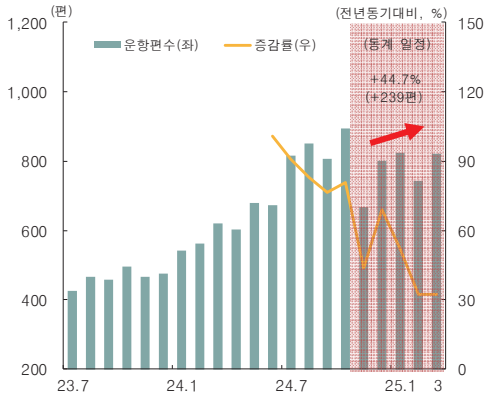
84) 제주공항 항공기 운항편수는 2023년 16.7만회를 기록한 가운데, 금년 1~8월중 5.3% 증가하여 연간으로는 최저치였던 2019년(17.6만회)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제주공항의 정상적인 수용능력(17.2만회)을 초과하는 것으로 외국인의 제주여행 수요가 추세적으로 증가할 경우 항공사는 수익성이 좋은 국제선 운항신청을 확대하고 국내선 운항편수를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85) 2024년 하반기(7~10월중, 도착 기준) 제주-중국간 항공편은 2,471편으로 2019년(2,149편) 대비 15.0% 증가했으나, 2016년(3,137편)과 비교해서는 78.8% 수준을 기록하였다.

86) 2025년 크루즈 입항 계획은 하반기 수요가 모두 신청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현재 신청횟수보다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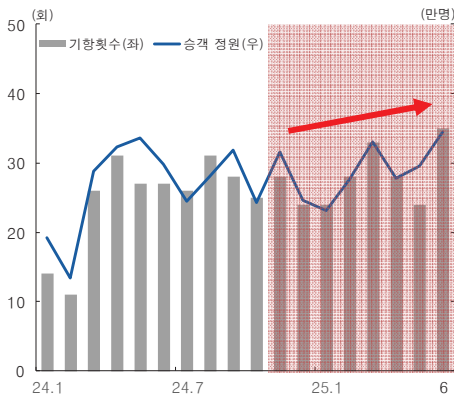
87) 중국경제 성장률은 2024.상반기 5.0%로 연초 예상보다 양호하였다. 그러나 금년 하반기 이후에는 성장세 둔화가 예상된다.(2024.하반기 4.6% → 2025년 4.3%, 투자은행 평균)

그림 37. 제주공항 국제선 운항편수 예상¹⁾



주: 1) 24.11-25.3월은 항공스케줄 반영
자료: 한국공항공사

그림 38. 크루즈 입항 및 인원 수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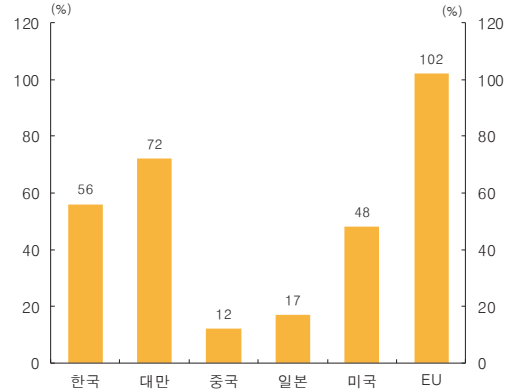


주: 1) 24.11-25.6월은 기항신청 계획 반영
자료: 제주도청,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해외여행 수요의 구조적 증가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국인의 인구수 대비 해외 출국자수 비율은 약 13%로 주변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반면, 소득증가와 함께 그 비율이 추세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크루즈 시장도 202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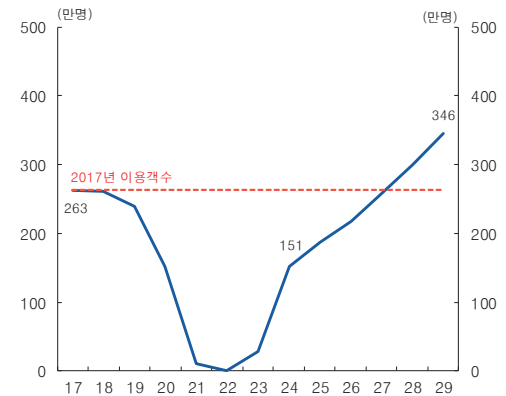
이후에도 꾸준한 성장세가 예상된다.⁸⁸⁾ 다만 동남아 국가의 중국인 비자면제 확대⁸⁹⁾ 등 주변국과 중국인 유치 경쟁심화 등은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 39. 중국인 해외여행 경험률¹⁾



주: 1) 인구수 대비 해외 출국자수 비율
자료: World Bank

그림 40. 중국 크루즈 이용객 전망¹⁾



주: 1) 2024.7월 기준
자료: Statista

88) 제주방문 크루즈 여행객은 2016년 507회, 121만명으로 최대를 기록하였는데, 중국 크루즈 시장이 2027년에는 2016~17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89) 23.12월 말레이시아, 24.2월 싱가포르, 24.3월 태국 등이 중국인의 비자를 면제하였고, 이에 따라 금년 들어 중국인 방문이 크게 증가하였다.

V. 종합평가 및 대응과제

1. 종합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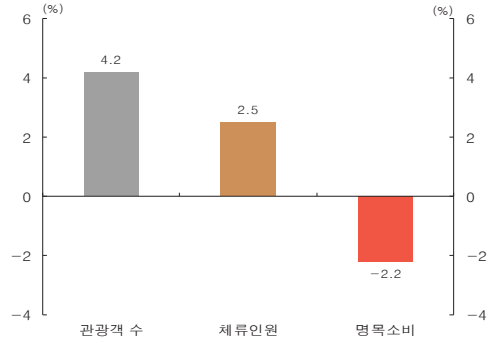
제주 관광경기는 관광객 수(+4.2%)가 금년 들어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내국인 관광객 감소세 지속, 체류일수가 짧은 크루즈 관광객 증가 등으로 관광객 소비(-2.2%)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다. 내국인 관광객(-6.3%)이 지난해에 이어 감소했으나 외국인(237.1%)은 중국인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하였다. 반면 관광객 소비는 금년중에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어, 관광객 행태 및 소비성향의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관광객 수가 감소(-6.1%)한 가운데, 내국인-외국인간 회복세가 차별화되는 양상이다. 내국인 관광객(-10.0%)은 근거리 해외여행 수요 증가, 제주여행 고비용 인식 등이 회복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외국인(+25.1%)은 중국인의 해외여행 수요 정상화 및 제주여행 관심 증가, 제주-중국간 운송 인프라 개선(국제선 확대, 크루즈 재개) 등이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팬데믹 이전 대비 외국인이 증가한 것은 체류기간이 짧은 크루즈 관광객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어 체류인원 기준(-14.4%)으로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관광객 소비(-3.9%)는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내국인(+27.0%)은 증가하였으나 외국인(-56.4%)이 더 크게 줄면서 소폭 감소하였고, 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소비(-19.7%)는 상당폭 감소하였다. 이는 관광객 수(-6.1%)를 체류인원 기준(-11.0%)으로 시산하면 감소폭이 더 커지는 데다, 1인당 1일 소비액도 내국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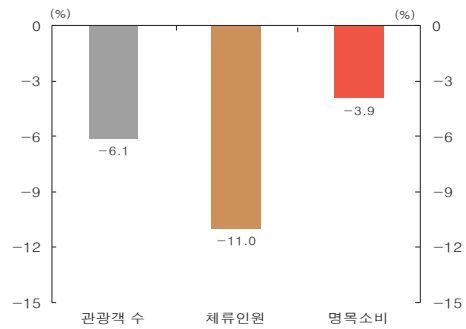
증가했으나 외국인 지출이 면세점 쇼핑 중심으로 크게 줄면서 실질 기준으로는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림 41. 2024년 제주지역 관광경기 동향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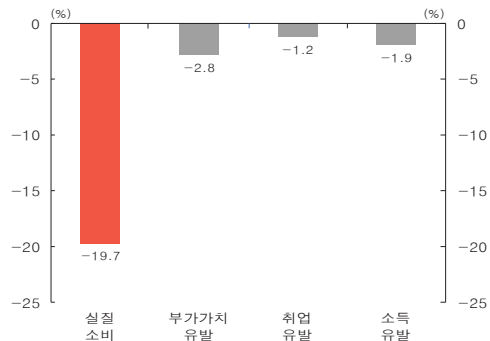
주: 1) 관광객 수는 1-8월 기준, 소비(운송업 제외)는 2/4분기 기준

그림 42. 팬데믹 이전 대비 관광경기 비교¹⁾



주: 1) 19.2/4분기 대비 24.2/4분기 증감률

그림 43. 팬데믹 이전 대비 지역경제 파급효과 비교¹⁾



주: 1) 19.2/4분기 대비 24.2/4분기 증감률

다만 관광객 실질소비 규모가 팬데믹 이전 대비 상당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 고용, 소득 등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내국인의 경우 실질소비 증가율보다 지역내 직간접적으로 유발된 부가가치·고용·소득 증가율이 더 높아졌고, 외국인도 실질소비 감소폭에 비해 부가가치 등의 유발효과 감소 정도가 크게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관광객 소비패턴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적은 소매업 비중이 축소되고, 음식점 등 여타 업종 지출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외국인을 중심으로 소비지역이 다변화되고 있는 점도 지역내 경제적 파급효과 개선에 긍정적인 요인이다.⁹⁰⁾

향후 제주 관광경기는 단기적으로는 외국인을 중심으로 최근의 개선흐름이 완만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제주공항 수송능력 제약, 팬데믹 이후 해외여행 진입장벽 약화 등을 고려할 때, 내국인 시장은 관광객 수의 양적 성장에 한계가 있는 반면, 외국인 시장은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추세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팬데믹 이후 관광 트렌드 변화와 향후 중장기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제주 관광경기의 지속적인 성장 및 지역경제와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서는 내국인·외국인 시장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내국인 관광객 시장은 여전히 비중⁹¹⁾이 크므로 현재의 관광객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차별화된 관광아이템 발굴, 고비용 관광구조 개선 등 대내외 경쟁력 강화 노력이 중요하다. 아울러 질적인 측면에서는 지역산업(농림어업 등)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융복합관광상품 확대, 고부가가치 상품 육성(고품질·맞춤형 서비스 등) 등을 통해 1인당 소비와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관광객 시장은 내국인에 비해 관광객 수 비중은 적으나 1인당 소비 규모가 크고 향후 성장 가능성도 높아 중요성을 갖는다.⁹²⁾ 따라서 주력 시장인 중국인 유치와 중국 외 시장 개척을 위해 세부시장별 전략 재점검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다양한 업종과 지역에서의 소비를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관광 편의성 강화(출입국, 결제, 교통, 문화 등) 및 제주여행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2. 내국인 대응 과제

내국인의 재방문과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차별화된 관광아이템 발굴 및 상품화를 지원해야 한다. 내국인의 제주 재방문율이 높은 수준(최근 3년 기준 78.7%)에 달하는 만큼 대중적인 관광지보다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지역 고유성을 경험할 수 있는 상품·체험이 각광받고 있다.⁹³⁾ 따라서 원도심, 읍면지역 등 그동안 관광객 유입이 적었던 지역을 대상으로 로컬자원

90) 과거 중국인 관광객이 최대를 기록했던 2016년에는 중국 단체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여행사, 쇼핑센터, 숙박시설, 음식점 등이 중국 현지 자본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내 경제적 낙수효과가 감소하였다.(제주연구원, 데이터로 보는 제주관광 이슈와 대응)

91) 제주 관광시장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년(1~8월중) 관광객 중 내국인 비중은 86.0%를 기록하였고, 외국인도 최대를 기록했던 2016년에도 내국인 비중은 77.3%를 차지했다.

92) 「제주 관광수입 추계」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이 최대를 기록했던 2016년 제주 관광수입 중 외국인 비중은 40.1%를 차지하였다.

93)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관광 트렌드 분석 및 전망 2023-2025」에서 10대 관광 트렌드 중 지역 특성을 선호하는 '로컬 관광'과 '지역주도형 관광(로컬 크리에이티브)'을 제시한 바 있다.

을 활용한 특색있는 관광상품 발굴을 지원하고 지역주민 참여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식도락 등 관광콘텐츠 다양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 특산품⁹⁴⁾이나 고유문화를 상품화하는 로컬창업 활성화, 지역주민 주도의 체험형 관광상품⁹⁵⁾ 확대, 지역 특색을 살린 민간 주도 관광개발사업⁹⁶⁾ 지원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고령층 관광객 소비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은퇴시기가 다가오는 2차 베이비 부머 세대와 고령층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하여 이들의 제주여행 수요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광여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국내 타 지역 대비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비용 관광구조 및 제주 관광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지리적 특수성으로 교통비 부담이 큰 데다 음식·숙박비 수준도 국내 주요 관광지에 비해 높아⁹⁷⁾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관광사업체의 비용 절감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숙박업의 경우 민박, 펜션 등 영세 숙박업체의 공동 브랜드 도입 및 체인화 등을 통한 운영비 절감 지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음식업종은 식자재 공동구매·유통비용 분담 등을 통해 원가구조 개선을 지

원하고, 관광객 소비수준에 맞는 폭넓은 가격대의 음식점·숙소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통비용의 경우 항공수요 보완,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여객선 이용⁹⁸⁾ 활성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광혁신 캠페인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관광객 불만사항 및 응대 문화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3. 외국인 대응 과제

주력 시장인 중국인 해외여행 수요 확대로 동남아, 일본 등 주변국과의 유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한 소득, 연령, 계층별 맞춤형 마케팅 수립이 중요하다. 중국시장의 경우 MZ세대 개별여행객(큰 가격민감도), 중장년층 단체(높은 지출여력 및 안정적인 수요), 럭셔리 수요(고급화 맞춤형 서비스 수요), MICE(회의·인센티브·전시·박람회) 수요 등 연령, 취향, 지역별로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는 만큼 맞춤형 관광객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아울러 중국 외 지역 관광객 유치를 통한 시장 편중 해소 노력도 중요하다. 일본, 동남아,

94) 강원도 감자로 만든 감자빵을 판매하는 베이커리 카페(감자밭)가 성공하면서, 감자 매입이 증대(연간 2,000톤 이상, 수매가 대비 +10~30%)하여 지역 내 농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한국은행 강원본부, 24.5월)

95) 제주도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일환으로 체류형 농촌마을여행 통합브랜드'카름스테이'를 2021년부터 추진하여, 2024년 기준 13개 마을 공동체와 250개 지역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카름스테이 여행에 2023년 한 해 동안 약 38만명이 참여하면서 마을과 지역업체 등에서 36억원의 주민소득이 발생하였다.

96) 최근 지역내 노후화된 시설, 낙후된 관광명소 등 유휴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콘텐츠, 관광프로그램을 결합하는 지역 콘텐츠 기반형 관광개발 사업이 여행객들의 관심을 끌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인천 개항로 프로젝트'(지역 창업가와 소상공인들이 주도하여, 침체된 원도심 상권의 근대건축물과 역사적 배경을 브랜드화하여 개성있는 인기 상권으로 활성화), '남해 독일마을 리브랜딩'(남해시 독일마을 펜션들이 공동브랜드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호텔식 객실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을내 카페·식당 등과 조식회의 서비스 등을 협업), '일본 후세 布施 마을 전채호텔(마을에 있던 낙후 상점과 빈집 등의 시설을 하나로 묶어 호텔 객실 및 편의 시설로 활용하고 동네상권 체험서비스를 제공) 등이 성공적인 사례이다.

97) 2023년 「제주관광실태조사」에서도 내국인 지출경비 중 숙박비(+60.3%), 식음료비(+51.7%)가 2019년 대비 가장 크게 상승하였다.

98) 제주지점 여객선 이용객(1~7월 기준, 출도착 합계)은 2022년 54.9만명에서 2024년 46.7만명으로 14.8% 감소하여 국내선 감소 폭(-7.9%)을 상회하였다. 이는 탑승객 감소와 항로 축소(22.12월 제주-부산, 23.11월 제주-인천) 등에 기인한다. 제주도에서는 여객선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대상 차량임차비 지원, 반려동물 동반 관광객 인센티브 확대, 야외활동 동호회(자전거모터사이클 등) 유치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중동 등 지리적 근접성, 해외여행 성장세, 한류 관심도⁹⁹⁾ 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국적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원거리 지역은 아직까지 직항 노선이 부족한 만큼, 인천공항 또는 국내 공항을 통한 방문 편의성을 개선하고, 타 지자체와 연계된 관광상품 개발 등도 필요하다.

양적인 측면에서의 관광객 유치 노력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확대를 유도할 수 있도록 관광편의성 개선 및 체류시간 확대 노력 등도 필요하다.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소비지역이 다변화될 수 있도록 해외간편결제 확대¹⁰⁰⁾, 교통수단 편의성 개선¹⁰¹⁾, 기항지(강정항) 주변 편의시설 확충, SNS·디지털 기술(모바일 앱 등)을 활용한 지역관광 홍보 등이 중요하다.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지역이 확대될수록 지역내 관광수입 다변화, 경제적 파급효과 증대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지역주민의 정주 환경 악화(교통혼잡, 무질서, 쓰레기 등) 및 관광객에 대한 인식 악화, 자연환경 훼손 등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상생 관광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99)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다양한 한류자원(촬영지, 음식점 등)을 활용한 연계한 홍보·관광상품 개발 등이 가능하다.

100)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2024.4월에 한국간편결제진흥원(제로페이 운영사), 알리페이 플러스와 도내 모바일결제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전통시장 등에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도내 제로페이 가맹점이 1월말 24,015개에서 7월말 26,596개로 9.7% 증가하였고, 제로페이와 연계된 해외 간편결제실적도 1월말 1.9억원에서 7월말 4.4억원으로 확대되었다.

101) 최다 방문국인 중국은 국제 운전면허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렌터카 이용이 어려우므로 택시 이용이 늘고 있다. 최근에는 중화권 슈퍼앱(알리페이, 위챗 등)을 이용한 택시 호출 서비스, 외국인 전용 택시 호출앱(K.ride) 등이 출시되고 있으므로 제주입국 외국인 대상으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강원도의 「외국인 관광택시 투어」, 부산광역시의 「부산비짓パス」(외국인 전용 교통·관광시설 이용권) 등 외국인 관광객 반응이 좋은 타 지역 지자체의 교통·관광 정책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권태현 “산업연관분석” , 2020, 청람
- 김태호·민상오 “제주경제 지속성장을 위한 관광산업의 현주소와 발전과제” , 2022, 한국은행 제주본부
- 문화체육관광부 “2024 국민여행조사 1분기 결과” , 2024.6.28.
- 우한솔, 김현태 “제주 경제의 현황과 향후 발전과제” , 2021, 한국은행 제주본부
- 이충기 “관광응용경제학” , 2017, 대영사
-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시장 동향 보고서” , 2024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위성계정 구축” , 2020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 , 2024
-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3월에만 제주항에 크루즈선 5척 입항…뱃길 관광 물꼬” , 2023.3.26.
-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2년도 제주관광수입 7조 6,055억 원(잠정) 역대 최고” , 2023.8.9.
-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제주도, 추석 연휴 중국인 관광객 소비 1,981% 급증” , 2023.10.11.
-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제주관광, 외국인 ‘지갑 열기’ 로 활력…내국인 회복도 기대” , 2024.6.4.
- 컨슈머인사이트 “월간 국내 해외 여행 동향 보고서” , 2023.1~2024.7
- 컨슈머인사이트 “추락하는 제주관광, 계획·방문 점유율 사상 최저” , 2024.6.26.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 트렌드 분석 및 전망 2023-2025” , 2023.1.3.
-

3. 이상기후가 전북지역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¹⁰²⁾

요약

최근 전세계적으로 이상기후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이상기후의 영향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후위험지수(Climate Risk Index, CRI)를 이용하여 최근 전북지역의 이상기후 현상을 진단하고, 이상기후가 전북지역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전북지역 CRI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2019년 이후에는 이상고온 및 가뭄 등의 요인으로 인해 그 기울기가 가팔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북지역의 이상기후 현상이 최근 들어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전북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기후가 전북지역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 들어 그 크기가 확대되거나 지속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생산에 대한 이상기후의 부정적인 영향은 최근 들어 그 크기도 확대되고 지속성이 길어졌으며,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영향력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지속성은 2개월 가량 길어졌다.

전북지역 CRI를 이용하여 전북 소비자물가에 대한 필립스곡선을 추정한 결과 이상기후가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식료품과 과실류에 대한 영향력이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기후는 특히 전북지역의 농림어업과 건설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북지역은 고령층 농림어업 종사자가 많고 건설업체가 영세하여 이상기후 충격 발생시 전국에 비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적 충격분해 결과 이상기후는 전북지역 산업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이상기후는 2023년 이후 전북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약 12%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험지수(CRI)를 이용하여 이상기후가 전북지역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최근 들어 그 영향력이 확대되거나 지속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아울러 전북지역은 여타 지역에 비해 농림어업 및 건설업 비중이 높아 이상기후의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02) 본 분석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며 집필자 개인의견임을 밝힙니다. 분석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저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자(이솔빈 조사역 solbins@bok.or.kr, 정원석 과장 wschung@bok.or.kr)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I. 검토배경

최근 전세계적으로 이상기후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그 경제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2024)의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 2024」에서도 ‘이상기후 현상(Extreme Weather Events)’을 가장 중요한 글로벌 위험요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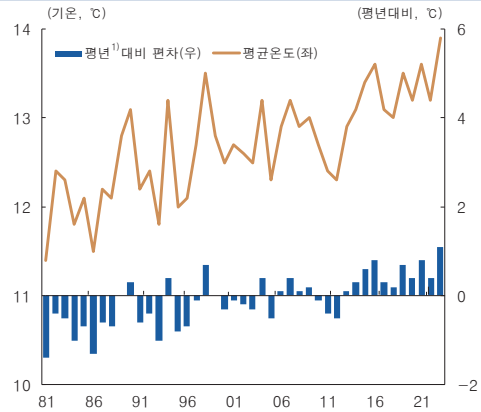
표 1. 글로벌 장·단기 5대 리스크

단기 리스크(향후 2년)		
1.	허위정보	(기술)
2.	이상기후 현상	(환경)
3.	사회적 양극화	(사회)
4.	사이버 불안	(기술)
5.	국가간 무력분쟁	(지정학)
장기 리스크(향후 10년)		
1.	이상기후 현상	(환경)
2.	지구환경의 변화	(환경)
3.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붕괴	(환경)
4.	천연자원 고갈	(환경)
5.	허위정보	(기술)

자료: World Economic Forum(2024), "Global Risks Report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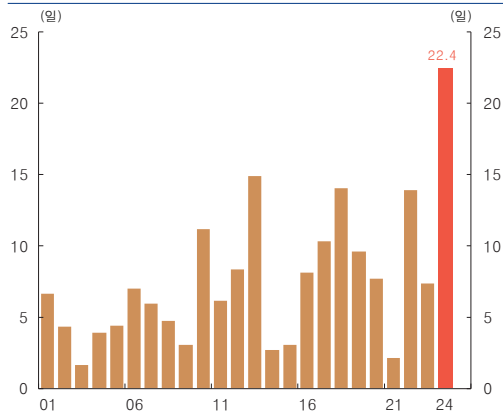
전북지역에서도 평균기온이 상승추세¹⁰³⁾를 보이는 가운데 이상고온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되는 모습이다.¹⁰⁴⁾ 전북지역의 올해 여름(6~8월) 열대야일수는 역대 최대(22.4일)를 기록하는 등 이상고온 현상이 두드러졌다. 또한 7월 7~10일경 군산, 완주, 익산 등을 중심으로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¹⁰⁵⁾

그림 1. 전북지역 평균기온 추이



주: 1) 평년은 1991~2020년 평균기온을 의미
자료: 전주기상지청

그림 2. 전북지역 열대야¹⁾일수 추이



주: 1) 야간(18:01~익일 09:00) 온도 25°C 이상인 날
자료: 전주기상지청

이에 본고에서는 기후위험지수(Climate Risk Index, 이하 CRI)를 이용하여 최근 전북지역의 이상기후 현상을 진단하고, 이상기후가 전북지역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103) 2013~2023년까지 11년 연속으로 연평균 기온이 평년(1991~2020년) 평균기온을 상회하였다.

104) 전북지역의 이상기후 현상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 1>을 참조하기 바란다.

105) 특히 완주군은 7월 8~10일간 일평균 180mm의 폭우가 내리고 359억원 규모의 피해액이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다.(행정안전부, 2024.7.15)

참고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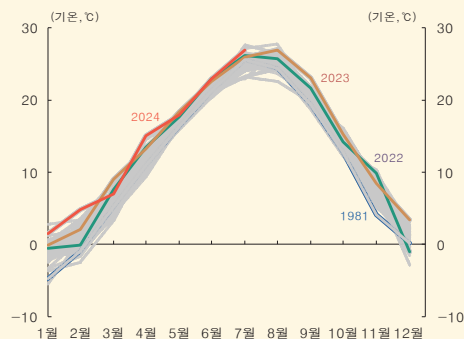
전북지역 이상기후 현황

① 이상고온현상(폭염·열대야)의 심화

전북지역의 평균기온은 상승세를 보여왔으며 2023년에는 연평균기온이 13.7℃로 1973년 이래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하였다. 또한 올해 여름철(6~8월) 최고기온은 2018년에 이어 역대 2번째¹⁰⁶⁾로 높게 나타나 무더운 여름 날씨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폭염일수¹⁰⁷⁾는 13.8일로 평년(11.6일) 대비 2.2일 많았으며 열대야¹⁰⁸⁾도 평년(6.3일)에 비해 1.5일 많은 7.8일 발생하였다. 특히 금년 여름(6~8월)에는 전북의 열대야일수가 22.4일로 역대 1위를 기록하였다.¹⁰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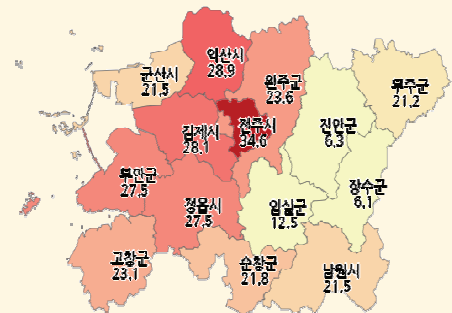
그림 3. 전북지역 월별 평균기온 추이



주: 1) 1981.1월~2024.7월
 자료: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지역별로는 전주¹¹⁰⁾, 익산, 김제 등 내륙의 시·군을 중심으로 이상고온현상(폭염 및 열대야)이 빈발하였으며, 진안, 장수, 임실 등 동부 산간지역에서는 이상고온현상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그림 4. 최근 10년(2014~2023년) 시군별 이상고온 발생일수¹¹²⁾



주: 1)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의 합, 10년 평균
 2) 색상이 짙을수록 이상고온 발생일수가 많음
 자료: 전주기상지청

② 이상저온현상(한파·결빙일수)의 감소

전북 겨울철 평균기온은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 겨울(23.12월~24.2월) 전북의 평균기온은 3.0℃로 역대 가장 높은 기온¹¹¹⁾을 기록하였다.

한파일수¹¹²⁾의 경우 연도별 차이는 있으나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결빙일수¹¹³⁾도 최근 들어 감소하는 경향¹¹⁴⁾이 관찰되었다.

106) (1위) 2018년 35.8℃, (2위) 2024년 35.2℃, (3위) 2023년 34.5℃

107) 연중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의 수

108) 야간(18:01~익일 09:00)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날

109) 밤사이 수증기를 다량 함유한 고온의 공기가 남서풍을 타고 유입되면서 야간 기온을 높게 유지시킨 것으로 보인다.

110) 전주시는 서쪽의 혁신도시, 북쪽의 덕진구가 개발되며 고층건물이 다수 들어섰는데, 이로 인해 인공분지가 형성되고 열섬현상이 발생하여 이상고온현상이 잦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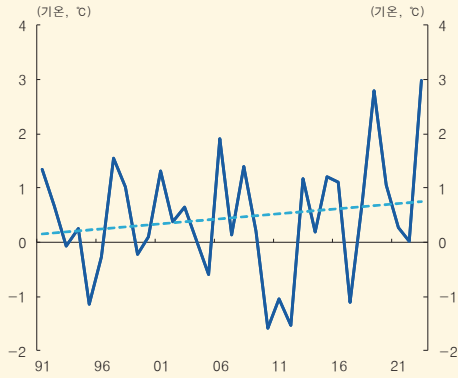
111) (1위) 2024년 3.0℃, (2위) 2019년 2.8℃, (3위) 1978년 2.2℃

112) 아침(03:01~09:00)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인 날의 수

113) 옥외의 물이 동결하는 현상이 각 관측소에서 직접 관측된 날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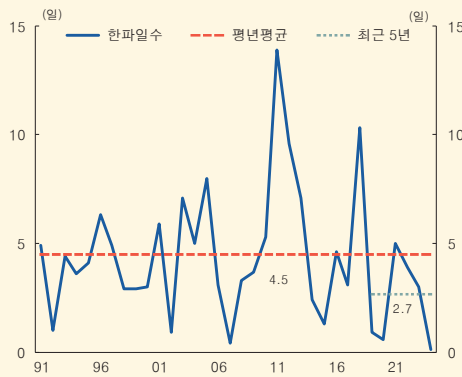
114) 최근 5년간 결빙일수는 봄 11.2일(평년대비 -3.6일), 가을 6.2일(평년대비 -2.5일), 겨울 71.2일(평년대비 -3.6일)로 나타남

그림 5. 전북 겨울철 평균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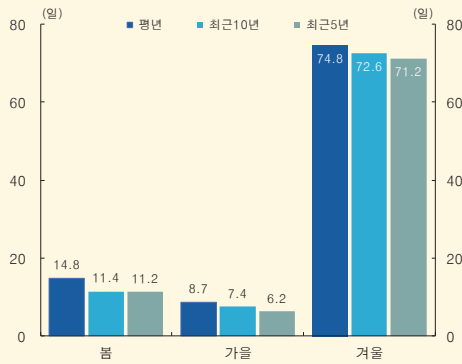
자료: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그림 6. 전북지역 한파일수



자료: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그림 7. 전북지역 결빙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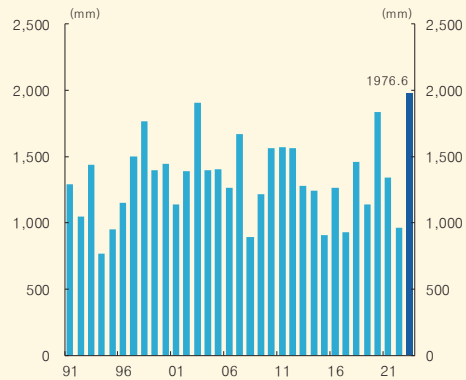


주: 1) 전주 관측소 기준
 2) 봄(3-5월), 가을(9-11월), 겨울(12-익년 2월)
 자료: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③ 호우와 가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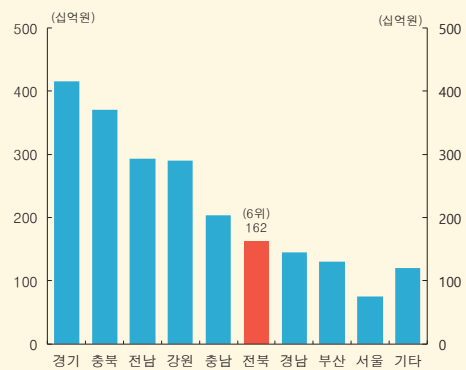
2023년 전북지역 연간 강수량은 1976.6mm로 1973년 이래 역대 1위를 기록하였으며 최근 들어 집중호우와 같은 이상기후현상이 빈발하였다.¹¹⁵⁾ 전북지역의 최근 10여년간 호우로 인한 피해금액이 1,620억원으로 17개 시도중 6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 2024)

그림 8. 전북지역 연도별 강수량



자료: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그림 9. 호우로 인한 피해금액¹⁾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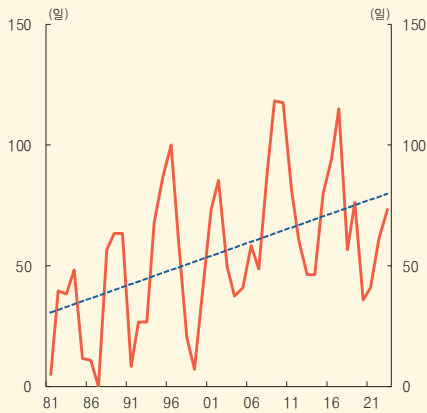


주: 1) 2022년도 환산가격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2024), 「2022년 재해연보」

올해 7월의 경우 정체전선이 7~10일중 전북 지역 인근을 오르내리며 군산, 익산, 완주 등을 중심으로 집중호우의 피해가 속출하였다.¹¹⁶⁾ 특히 금년 7월에는 열대 서태평양의 활발한 대류 활동으로 다량의 수증기가 정체전선에 유입되어 많은 양의 강수를 유발하였다.(기상청, 2024.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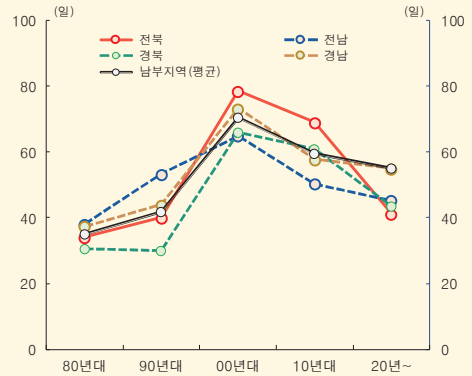
전북지역의 경우 기상가뭄¹¹⁷⁾일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가 관찰된다. 특히 기상가뭄일수는 2000년대 72.1일, 2010년대 64.8일로 남부 4개도(전북·전남·경북·경남) 중 가장 높았다.¹¹⁸⁾

그림 10. 전북지역 기상가뭄일수 추이¹⁾



주: 1) 3년 이동평균
자료: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그림 11. 남부지역 기상가뭄일수 연대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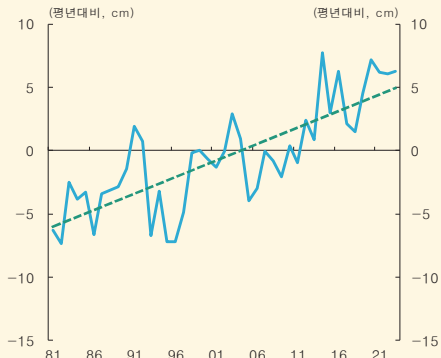


자료: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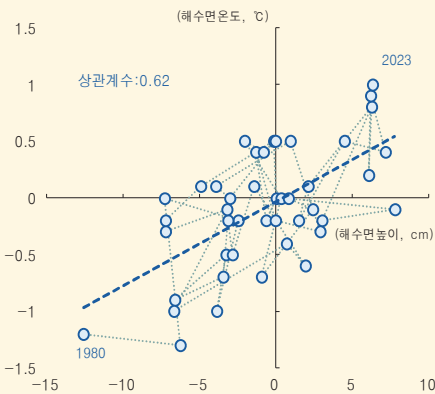
[④ 해수면높이 및 해수면온도 상승]

전북지역 해수면높이¹¹⁹⁾와 해수면온도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수면높이는 2010년 이후 평년 수준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온도 상승은 물 분자의 부피를 팽창¹²⁰⁾시켜(열팽창 현상) 해수면높이를 더욱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¹²¹⁾

- 115) 2023년 연강수량은 평년(1234.2mm~1438.3mm) 대비 153.4% 수준이었으며 장마철인 7월의 경우 평년(296mm)의 2.5배에 달하는 735mm의 강수량이 관측되었다.
- 116) 군산은 7월 10일 시간당 최다강수량이 131.7mm를 기록하여 과거 시간당 강수량 최고 기록(81mm, 2010.7.23.일)을 1.5배 이상 상회(전주기상청, 2024.8월)하였고, 익산의 경우 7월 7~10일중 함라면(445.5mm), 여산면(401.5mm) 등에서 집중호우가 발생하였으며, 완주에서는 지난 7월 8~10일 일평균 180mm의 폭우가 내려 359억원 규모의 재산피해와 459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 117) 표준강수지수(누적 6개월 강수량 기준)가 -1.0 이하일 때를 기상가뭄으로 정의한다.
- 118) 다만 최근 2022년에는 가뭄이 주로 전남(281.3일), 경남(249.5일) 일대를 중심으로 발생하여 전북(162.8일)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가뭄일수를 기록하였다.
- 119) 표준강수지수 기준 1989~2022년중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연 3.41mm에 달하였으며, 우리나라의 해수면높이는 최근 10년(2013~2022년)간 지난 30년(1993~2022년) 대비 약 1.3배 빠른 속도로 상승 중이다.(해양수산부, 2023)
- 120)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열팽창으로 인한 전세계적 해수면 상승이 2000년 후반 무렵부터 가속되었다고 분석하였다.(NOAA, 2023)
- 121) 1980~2023년중 전북지역 해수온도와 해수면높이 사이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상관계수: 0.62)

그림 12. 전북지역 해수면높이¹²²⁾ 추이

주: 1) 평년(1991~2020년) 평균을 차감한 계열
 2) 군산 조위관측소 측정기준
 자료: 국립해양조사원 바다누리 해양정보

그림 13. 해수면온도¹⁾와 해수면높이¹⁾ 산포도²⁾

주: 1) 평년(1991~2020년) 평균을 차감한 계열
 2) 해수면온도 및 높이는 군산 관측소 기준
 자료: 기상청 종합기후변화감시정보

II. 전북지역 기후위험지수(CRI) 특징 분석

전북지역의 이상기후 현상들을 하나의 지표로 제시하기 위해 정원석 외(2024)에서 개발한 기후위험지수¹²²⁾(CRI)를 활용하여 전북지역 이상기후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CRI는 ①이상고온($T90^{std}$), ②이상저온($T10^{std}$), ③강수량(P^{std}), ④가뭄(D^{std}), ⑤해수면높이(S^{std})의 5가지 요인¹²³⁾으로 구성되며, 구성요인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전북 CRI 구성요인별 특징

전북지역 이상고온($T90^{std}$)은 최근 들어 전국에 비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¹²⁴⁾ 월평균 이상고온 발생일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2017년중 전북의 이상고온 발생일수가 전국에 비해 크게 낮았다가 이후 전국과의 격차가 점차 줄어드는 모습이다.¹²⁵⁾ 이는 최근 들어 전북지역의 이상고온 발생 빈도가 전국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122) 기후위험지수(CRI)는 미국과 캐나다 계리협회의 ACI(Actuaries Climate Index)를 바탕으로 이상기후 현상을 대표하는 5가지 요인들을 이용하여 산출한 지표로서, 그 값이 클수록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됨을 의미한다. CRI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원석 외(2024)를 참고하기 바란다.
- 123) CRI의 구성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며, 각 변수들을 기준기간(1980~2000년) 대비 표준화(상첨자 std로 표시)하였다.
- ① 이상고온($T90$): 기준기간의 월별 상위 10% 기온보다 높은 날에 대한 빈도수
 - ② 이상저온($T10$): 기준기간의 월별 하위 10% 기온보다 낮은 날에 대한 빈도수
 - ③ 강수량(P): 월별 상위 5일간의 강수량 합계
 - ④ 가뭄(D): 매월 1mm 미만의 강수량이 연속된 날자 중 최댓값
 - ⑤ 해수면높이(S): 월평균 해수면높이(cm)
- 124) 2015년 이전까지는 전국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으며, 2016년 무렵부터 전국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에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125) 월평균 이상고온 발생일수는 2016년에는 전북이 5.0일, 전국이 6.6일로 1.6일만큼 차이가 발생했으나, 2023년에는 전북이 6.6일, 전국이 7.2일로 나타나 그 차이가 0.6일로 감소하였다.

그림 14. 이상고온($T90^{std}$) 추세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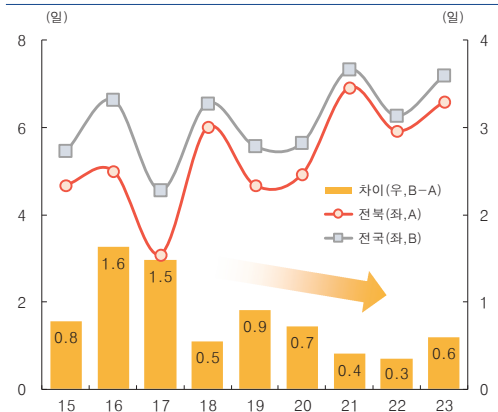
주: 1) 5년 이동평균
자료: 저자 추정

그림 16. 이상저온($T10^{std}$) 추세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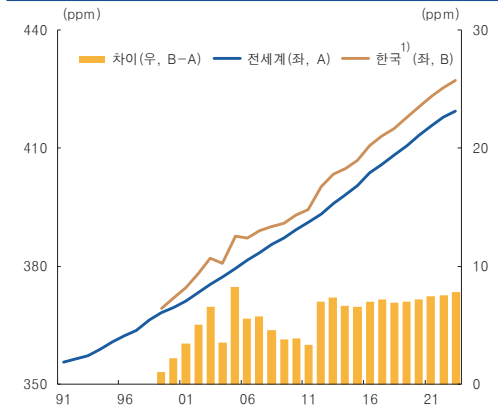
주: 1) 5년 이동평균
자료: 저자 추정

그림 15. 연도별 월평균 이상고온 발생일수 비교



자료: 기상청, 저자 추정

그림 17.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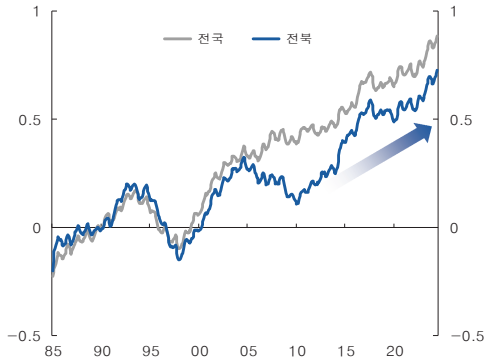
주: 1) 안면도 관측소 기준
자료: 기상청 종합기후변화감시정보

이상저온($T10^{std}$)은 전국과 마찬가지로 우하향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의 경우 2023년 겨울(2023.12월~2024.2월) 평균기온이 3.0°C 로 1973년 이래 역대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였다. 이는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지구온난화¹²⁶⁾ 현상이 심화된 결과로 판단된다.

전북 해수면높이(S^{std}) 추세는 최근 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전국과 비슷한 상승세로 우상향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에 따라 해수면높이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해수온난화로 인한 열팽창이 2000년대 후반부터 전세계 해수면 상승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하였다.(NOAA, 2023)¹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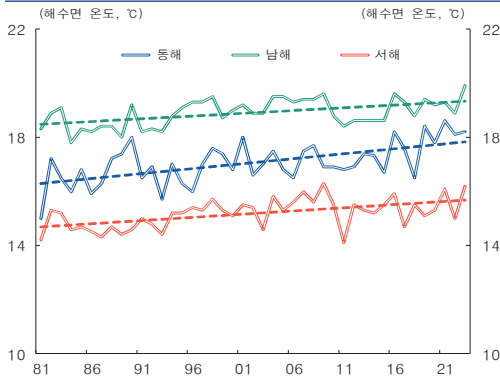
126)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중 주요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등) 농도가 전세계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그 증가 속도도 전세계에 비해 빠른 편이다.

그림 18. 해수면높이(S^{std}) 추세¹⁾



주: 1) 5년 이동평균
자료: 저자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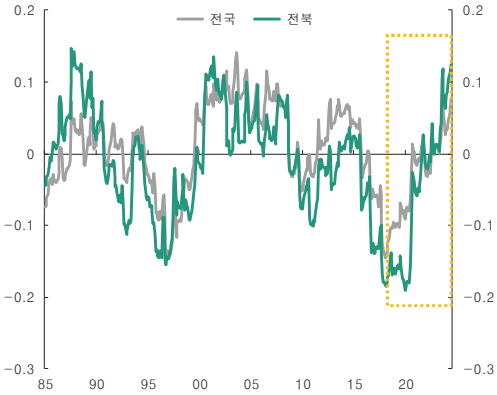
그림 19. 해역별 해수면 온도 비교



자료: 기상청 중합기후변화감시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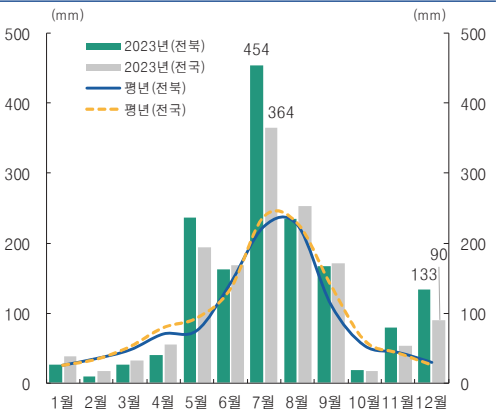
강수량(P^{std})은 전국과 유사하게 순환하는 움직임 보이는 가운데 2023년 무렵부터 전국에 비해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월별 강수량(상위 5일 강수량 합계) 분포를 살펴보면 평년(1991~2020년 평균)의 경우 전국과 전북이 유사한 모습이었으나, 2023년에는 7월과 12월¹²⁸⁾을 중심으로 전북지역의 강수량이 전국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0. 강수량(P^{std}) 추세¹⁾



주: 1) 5년 이동평균
자료: 저자 추정

그림 21. 월별 강수량¹⁾ 분포



주: 1) 각 월별 상위 5일 강수량의 합계
2) 평년은 1991~2020년 평균값
자료: 기상청, 저자 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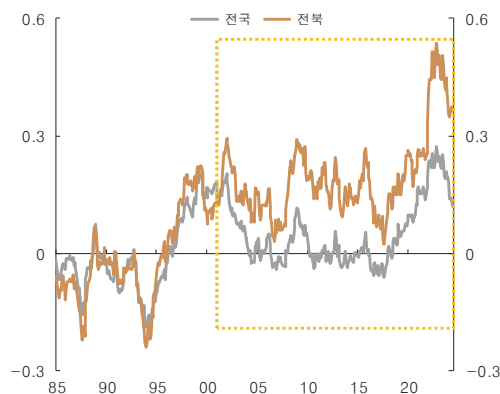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가뭄(D^{std})은 2000년대 이후 전국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북지역의 가뭄이 기준기간(1980~2000년) 대비 최근기간(2001~2023년)중 월평균 가뭄일수가 크게 증가하였

127) 한편 2010년 전후로 전북지역의 해수면높이가 전국과 차이를 보였던 것은 2010년 무렵 여타 지역에 비해 서해의 해수면온도가 전년 대비 크게 낮아진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28) 12월 중순경에는 다량의 수증기를 머금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많은 비가 내렸는데, 12.15일 하루 동안의 강수량은 43.2mm로 평년 12월의 월강수량(36.9mm)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전주기상지청, 2024.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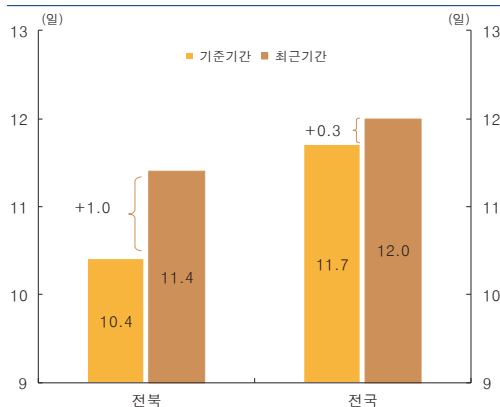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전북은 기준기간과 최근기간 모두 전국에 비해 월평균 가뭄일수는 적었으나, 기준기간 대비 최근기간의 월평균 가뭄일수 증가폭은 전북(1.0일)이 전국(0.3일)을 크게 상회하였다.

그림 22. 가뭄(D^{std}) 추세¹⁾



주: 1) 5년 이동평균
 자료: 저자 추정

그림 23. 월평균 가뭄일수 및 증가폭 비교



자료: 기상청, 저자 사산

2. 전북 CRI의 특징

전북 CRI는 시간에 따라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2019년 이후 그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모습이다. 구성요소별 기여율을 살펴보면 기온요인(이상고온 및 이상저온)이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에 비해 가뭄과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2019년 무렵부터 나타난 전북 CRI의 가파른 상승추세는 주로 이상고온이 급격히 상승하는 데에서 기인하였으며, 2022년 발생했던 가뭄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5년(2019~2023년)간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을 살펴보면 3개년도(2019, 2021, 2023년)의 평균기온이 역대 상위 5위 안에 포함되는 등 무더운 날씨가 빈번하였다.¹²⁹⁾ 또한 2022년의 경우 강수량이 적고 가뭄기간이 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4. 전북 CRI 추이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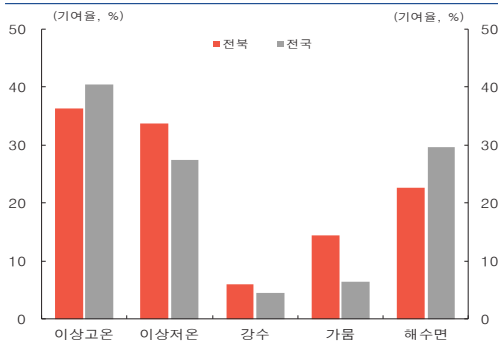


주: 1) 5년 이동평균
 자료: 저자 추정

129) 1973년 이래 51년간 연평균기온 상위 5개년도는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기상청,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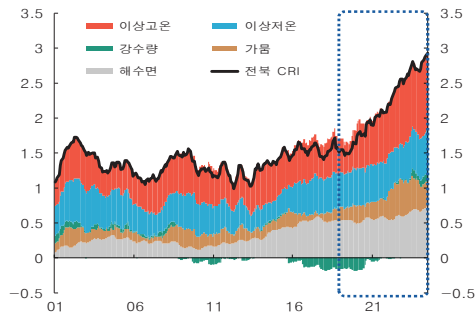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평년 평균
연도	2023	2016	2021	2019	1998	1991-2020
연평균기온(°C)	13.7	13.4	13.3	13.3	13.2	12.5

그림 25. 구성요인별 기여율



자료: 저자 추정

그림 26. 전북지역 CRI 기여도 분해



자료: 저자 추정

이와 같은 전북 CRI의 특징으로부터 전북지역의 이상기후 현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상기후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다음 장에서는 전북 CRI를 이용하여 이상기후가 전북경제의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고, 품목별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산업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Ⅲ. 이상기후가 전북지역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이상기후 충격의 시간 비대칭성 분석

이상기후가 전북지역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정원석 외(2024)를 따라 국소투영모형¹³⁰⁾(Local Projection Model)을 설정하고 충격반응 분석을 수행하였다.

충격반응 분석 결과, 산업생산의 경우 과거에 비해 최근기간(2001~2023년)에는 이상기후 충격이 산업생산의 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고 지속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기간(1980~2000년)에는 이상기후 충격이 9개월 후 전북 산업생산 증가율을 약 1.1%p 하락시키는 반면 최근기간에는 12개월 후 1.4%p 가량 하락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상기후의 영향은 최근기간 약 21개월가량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 기준기간(13개월)에 비해 지속성이 8개월가량 길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¹³¹⁾

전국(정원석 외, 2024)의 분석결과와 비교¹³²⁾해보면, 전국에 비해 전북의 산업생산이 이상기후 충격에 더욱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상여건에 민감한 농림어업과 건설업이 전북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에 비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¹³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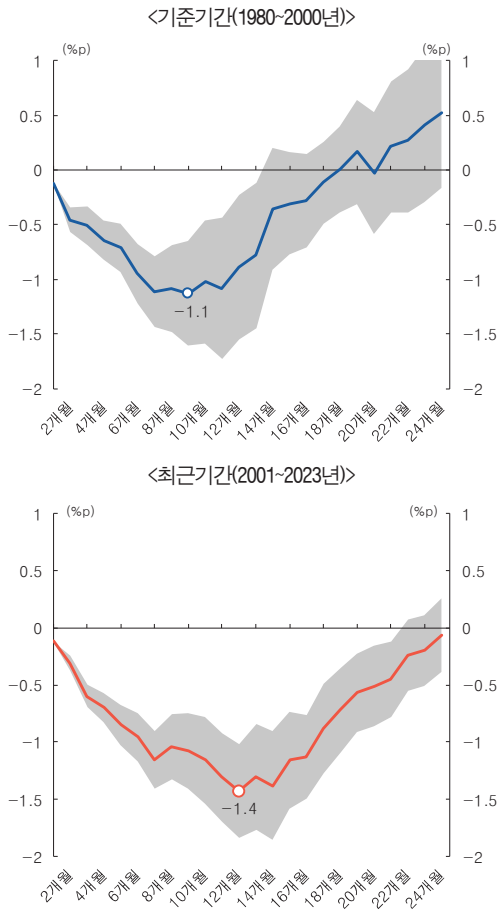
130) 국소투영모형을 이용한 충격반응 분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원석 외(2024)를 참고하길 바란다.

131) 지속기간은 충격반응함수의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132) 정원석 외(2024)에 의하면 기준기간에는 이상기후 충격이 전국 산업생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최근기간에는 이상기후 충격이 전국 산업생산 증가율을 12개월 후 약 0.6%p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33) 전북은 농림어업 비중(GDP 대비 6.7%)이 전국(1.6%)의 4배 이상 높고 건설업 비중(5.5%)도 전국 평균(4.5%)을 상회하여 이상기후에 대한 취약성이 전국에 비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북 산업구조 및 산업의 지리적 분포에 대해서는 <참고 2>를 참조하길 바란다.

그림 27. 전북 CRI 충격이 전북 산업생산에 미치는 효과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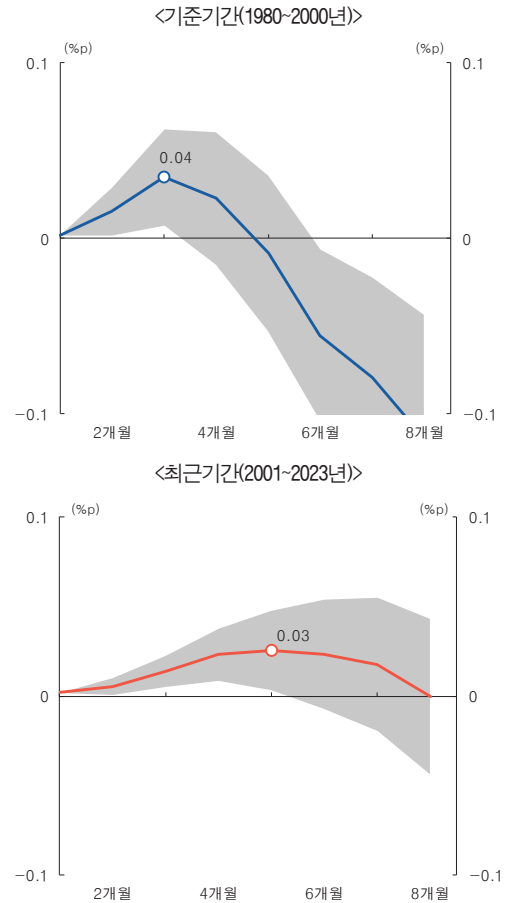


주: 1) 음영은 68% 신뢰구간
자료: 저자 추정

물가의 경우, 이상기후 충격이 전북 인플레이션(소비자물가상승률)에 미치는 효과의 지속성이 과거에 비해 길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기후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는 최근기간에 0.03%p로 기준기간(0.04%p)에 비해 0.01%p가량 감소하였으나, 지속기간은 기준기간에 비해 2개월 더 긴 세계에서 유의하게 물가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점기준 3개월 → 5개월) 이는 전국(정원석 외, 2024)과 마찬가지로 2000년대 이후 FTA가 확대됨에 따라 농축수산물과 관련

된 수입대체효과가 커져 이상기후의 가격에 대한 영향력이 낮게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8. 전북 CRI 충격이 전북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미치는 효과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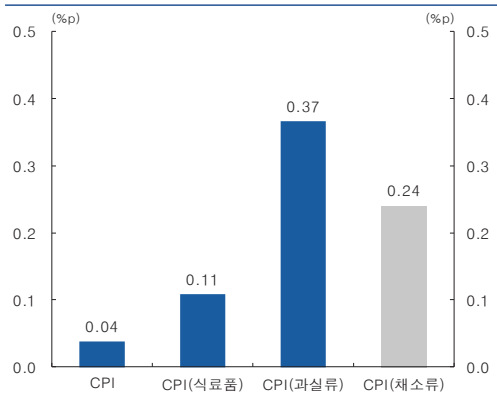
주: 1) 음영은 68% 신뢰구간
자료: 저자 추정

2. 품목별 물가에 대한 영향 분석

이상기후가 전북지역의 품목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정원석 외(2024)를 따라 필립스곡선을 추정¹³⁴⁾하였다. 이때 이상기후가 품목별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필립스곡선의 계수 추정치(α)로 측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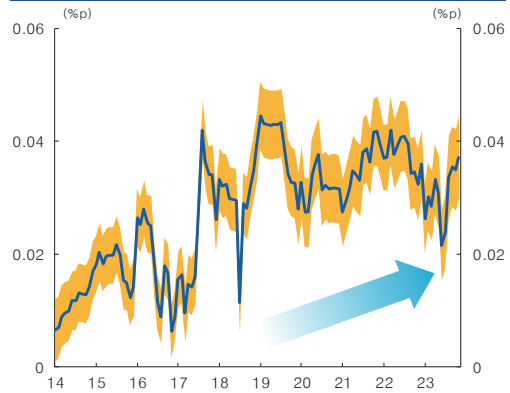
전품목, 식료품, 과실류, 채소류 등 각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한 필립스곡선을 추정 한 결과, 대체로 이상기후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식료품과 과실류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으며, 이상기후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최근 들어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29. 이상기후가 품목별 인플레이션(CPI)에 미치는 영향력(α)¹⁾



주: 1) 파란색 막대는 10% 유의수준에서 영향력이 유의함을 의미하며, 채소류에 대한 영향력은 10%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하지 않음
자료: 저자 추정

그림 30. 시기별 이상기후가 인플레이션(CPI)에 미치는 영향¹⁾²⁾



주: 1) 5년 기간의 이동회귀(Rolling Regression) 결과
2) 음영은 95% 신뢰구간을 나타냄
자료: 저자 추정

특히 전북 CPI 상승률에 대한 과실류와 채소류의 기여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이상고온과 집중호우가 극심했던 2023년 여름 무렵부터 기여도가 확대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전북 지역에서는 2023년 사과, 배, 배추¹³⁵⁾ 등 주요 농작물의 수확량이 감소하고 가격도 크게 상승하였는데, 이상기후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사과와 배의 경우 작년 봄철 이상고온으로 개화시기가 앞당겨져 냉해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생산량이 각각 45.9%, 48.7% 급감하였고 가격 상승률도 전년동월대비 각각 최대 84.6%, 151.4%를 기록하였다.¹³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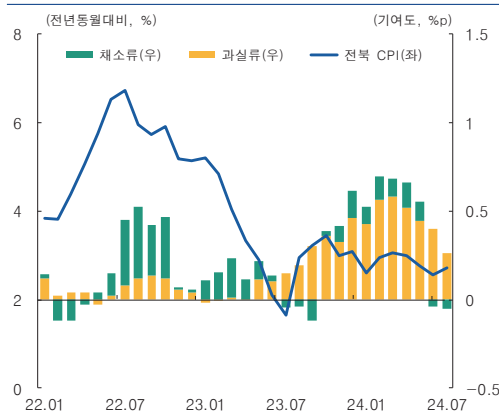
134) 필립스곡선 추정식은 $\pi_{i,t}^{CPI, 전북} = c + \beta \pi_{i,t-1}^{CPI, 전북} + \gamma \widehat{IP}_t^{전북} + \alpha CRI_t^{전북} + \epsilon_t$ 이다.

단, 이때 $\pi_{i,t}^{CPI, 전북}$ 는 품목 i 의 전북 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전년동기대비), $\widehat{IP}_t^{전북}$ 는 HP-필터링으로 추출한 전북의 산업생산 갭(순환계열), $CRI_t^{전북}$ 은 전북 CRI이며, 분석기간은 2014.1월 ~ 2023.12월이다.

135) 배추는 금년 6월경 봄배추 생산증가에 따라 일시적으로 가격 상승폭이 감소하였으나, 폭염과 장마의 영향으로 7월 여름배추의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배추가격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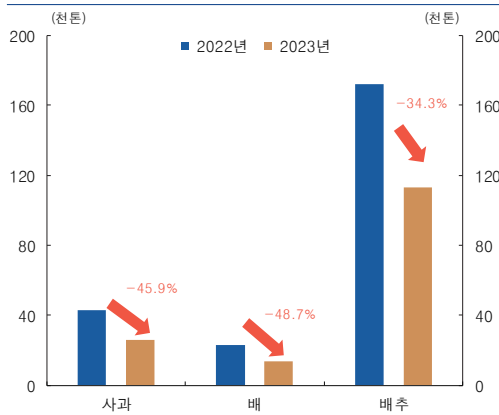
136) 사과는 금년에 햇사과가 출하되면서 가격 상승률이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나, 배의 경우 금년 7월까지 햇배의 출하가 시작되지 않아 높은 가격이 지속되었다.

그림 31. 전북지역 인플레이션에 대한 채소류·과실류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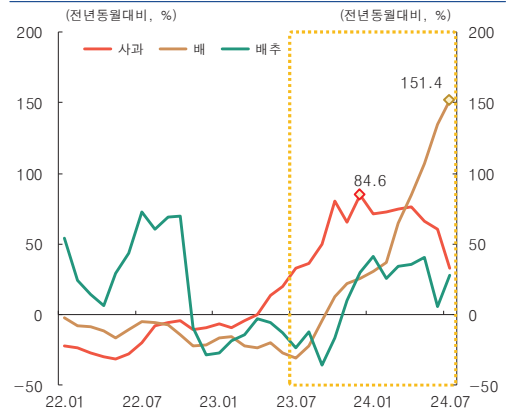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저자 시산

그림 32. 최근 전북지역 주요 농작물 생산량 변화



자료: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그림 33. 최근 전북지역 주요 농작물 가격 상승률



자료: 통계청

3. 전북지역 산업별 성장에 미치는 영향 및 충격분해

[산업별 성장에 미치는 영향]

베이지안 VAR 모형¹³⁷⁾을 이용하여 이상기후가 전북지역의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상기후 충격은 전북지역 농림어업 성장률을 최대 1.2%p, 건설업 성장률은 최대 0.5%p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정원석 외, 2024)의 경우 농림어업과 건설업 성장에 각각 최대 -1.1%p, -0.4%p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북에서는 이보다 영향이 다소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북지역의 경우 이상기후에 취약한 고령층¹³⁸⁾(65세 이상) 농림어업 종사자가 많아 이상기후의 영향이 전국보다 큰 것으로 판단된다.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전북의 농가 고령(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56.1%로 전국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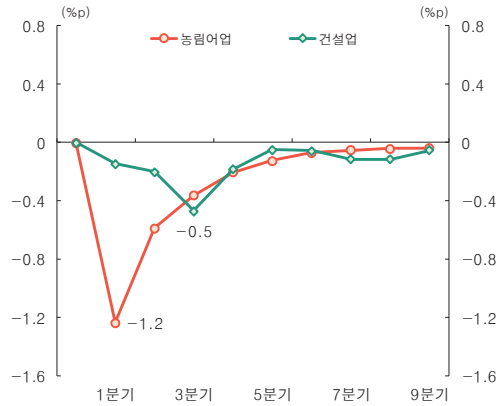
137) 2010. 2/4분기~2023. 4/4분기에 대해 전북 CRI, 지역경기상황지수(RECI), 전북 소비자물가지수(전년동월비) 및 콜금리의 4 변수 베이지안 VAR 모형을 추정하였다. 지역경기상황지수(RECI)에 대한 설명은 정민수 외(2023)를 참고 바란다.

138) 질병관리청에 의하면 2024년 8월까지 발생한 전국 온열질환자(3,309명) 중 65세 이상 질환자가 30.7%를 차지하여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52.6%)을 3.5%p 상회하였으며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57.9%)과 충남(57.3%)에 이어 3번째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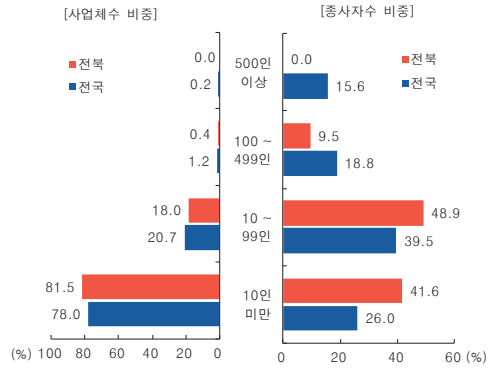
또한 전북지역 건설사들은 시공능력이 낮은 편¹³⁹⁾이고 영세한 규모의 건설업체가 대다수를 차지¹⁴⁰⁾하고 있어 이상기후와 같은 외부 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국내외 선행연구¹⁴¹⁾에 따르면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고온 등에 대한 대응이 취약하여 이상기후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 이상기후가 산업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자료: 저자 추정

그림 35. 건설업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비중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

역사적 충격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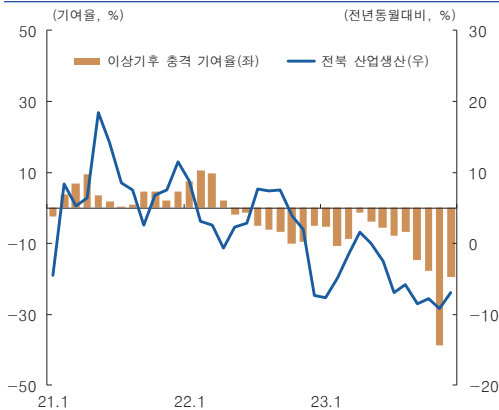
베이지안 VAR 모형¹⁴²⁾을 이용하여 2021년 이후 전북경제에 대한 이상기후의 영향을 역사적 충격분해로 분석한 결과, 이상기후는 2022년 무렵부터 산업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 이후 이상기후 충격의 전북 산업생산에 대한 기여율은 약 -12%로 나타났다으며, 전북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기여율은 12% 정도로 분석되었다.

전국에 대한 분석결과¹⁴³⁾(정원석 외, 2024)와 비교하면 산업생산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상기후의 기여율은 전북에서 다소 크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상기후에 취약

139) 2024년 전국시공능력평가 결과 100위 이내에 선정된 전북 건설사는 1개(신성건설, 92위)에 불과하였다.
 140) 「사업체노동실태현황」에 의하면 2022년 전북 건설업에서 10인 미만 사업체 비중이 81.5%로 전국(78.0%)을 상회하였으며 건설업 종사자의 90% 이상이 100인 미만 규모의 사업체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1) 정연(2021)은 고용형태가 불안정하고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근로자들이 고온과 같은 물리적 유해인자에 더 많이 노출됨을 밝혔다. Benincasa et al.(2024), Crichton(2006) 등은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이상기후에 대한 대응능력이 취약하다고 주장하였으며, Wedawatta et al.(2009)은 규모가 작은 건설사일수록 이상기후로 인한 경제적 비용(건설 프로세스 지연 및 근로자의 건강상태 악화 등)이 크게 나타남을 지적하였다.
 142) 2007.1월 ~ 2023.12월의 전북 CRI, 전북 산업생산지수(전년동월비), 전북 소비자물가지수(전년동월비), 콜금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미네소타(Minnesota) 사전분포를 가정한 베이지안 VAR 모형을 활용하였다.
 143) 정원석 외(2024)는 2023년 이후 이상기후 충격이 전국 산업생산에 약 -3%,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약 10%만큼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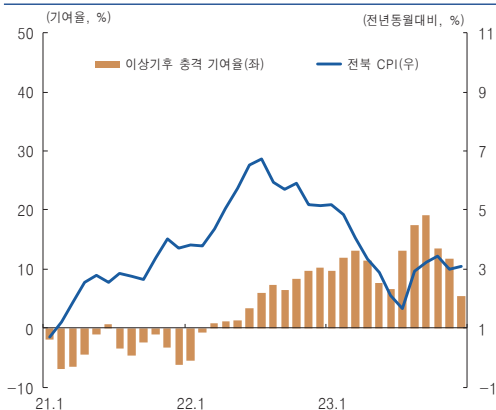
한 농림어업과 건설업의 비중이 높은 전북경제의 특징을 반영하는 결과로 보인다. 또한 전북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이상기후의 기여율이 높은 것은 전북 소비자물가지수에서 농축수산물의 가중치가 전국에 비해 크다는 특징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6. 전북 산업생산에 대한 이상기후 충격의 기여율



자료: 저자 추정

그림 37. 전북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이상기후 충격의 기여율



자료: 저자 추정

IV. 종합평가 및 시사점

본고에서는 정원석 외(2024)의 기후위험지수(CRI)를 활용하여 이상기후가 전북지역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전북지역의 CRI를 추정된 결과, 전북 CRI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상승하는 추세가 관찰되었다. 특히 전북 CRI는 최근 들어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주로 이상고온과 가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기후가 전북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에 비해 그 크기가 커지거나 지속성이 높아지는 비대칭성이 나타났다. 산업생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최근 들어 과거대비 크기가 확대되고 지속기간도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에 비해 그 크기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지속기간이 2개월가량 길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북 CRI를 반영하여 전북 소비자물가에 대한 필립스곡선을 추정된 결과, 이상기후가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최근 들어 그 영향력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품목별로는 식료품과 과실류에 대한 영향력이 전품목에 비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기후는 특히 전북지역의 농림어업과 건설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북지역은 고령층 농림어업 종사자가 많고 건설업체들이 영세하여 이상기후 충격이 발생하였을 때 전국에 비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상기후는 2022년 무렵부터 산업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 이후 이상기후 충격의 전북 산업생산에 대한 기여율은 약 -12%로 나타났으며, 전북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기여율은 12% 정도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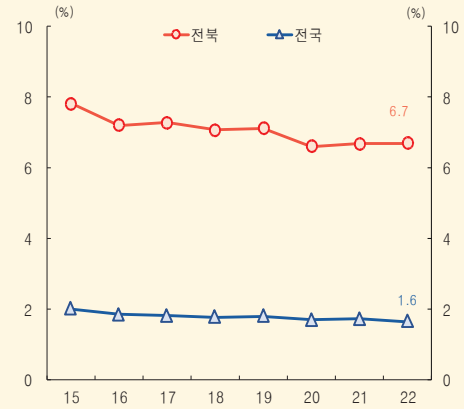
전북지역은 여타 지역에 비해 농림어업과 건설업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상기후의 영향이 동 산업에서 크게 나타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 2

전북지역 산업구조 및 산업의 지리적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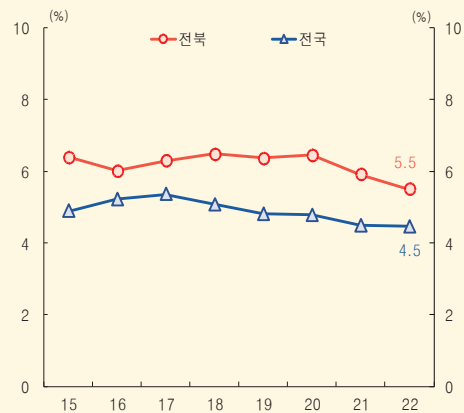
전북은 전국에 비해 농림어업과 건설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다. 2022년 기준 농림어업은 지역내총생산(GRDP)의 6.7%로 전국 평균(1.6%)에 비해 4배 이상 높으며, 건설업도 GRDP의 5.5%로 전국 평균(4.5%)을 상회하고 있다.

그림 38. 전북 농림어업 비중



자료: 통계청

그림 39. 전북 건설업 비중



자료: 통계청

주요 산업의 지리적 분포를 살펴보면 농림어업은 김제 정읍 고창 등 평야지대에 집중된 반면 건설업은 군산 익산 완주 전주 등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그림 40. 농림어업 지리적 분포¹⁾



주: 1) 색상이 짙을수록 전북 농림어업 총생산대비 해당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큼
자료: 전북특별자치도, 통계청

그림 41. 건설업 지리적 분포¹⁾



주: 1) 색상이 짙을수록 전북 건설업 총생산대비 해당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큼
자료: 전북특별자치도, 통계청

한편 시·군별로 총부가가치 대비 비중이 높은 산업을 살펴보면 시 지역에서는 대체로 제조업 비중이 높고 군 지역에서는 농림어업과 공공행정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2. 전북지역 시·군별 부가가치 상위 1위, 2위 산업 비중¹⁾

시·군	부가가치 1위	비중 (%)	부가가치 2위	비중 (%)
전주시	교육서비스업	18.6	공공행정	13.1
군산시	제조업	38.5	건설업	11.5
익산시	제조업	31.5	공공행정	9.5
정읍시	제조업	29.9	공공행정	15.3
남원시	농림어업	21.8	공공행정	19.0
김제시	제조업	29.0	농림어업	18.1
완주군	제조업	46.1	공공행정	11.3
진안군	공공행정	27.0	농림어업	23.3
무주군	공공행정	23.7	농림어업	22.5
장수군	농림어업	26.2	공공행정	28.1
임실군	공공행정	30.0	농림어업	21.1
순창군	농림어업	24.2	공공행정	23.1
고창군	농림어업	29.4	공공행정	17.5
부안군	농림어업	23.0	공공행정	18.8

주: 1) 각 시·군의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위 2개 산업, 2022년 기준.
자료: 전북특별자치도

참고문헌

국립해양조사원	“바다누리 해양정보”
기상청	“종합기후변화감시정보”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전주기상지청	“2023년 전라북도 연 기후특성”, 2024.1.16
전주기상지청	“전북특별자치도 최근 10년(2014년-2023년) 여름철(6-8월) 폭염 및 열대야 통계자료”, 2024
전주기상지청	“2024년 여름철 전북특별자치도 기후특성”, 2024.9.5
정민수 · 권준모 · 배한이 · 이현서 · 남현우	“지역경기상황지수의 개발 및 활용”, 2023, BOK 이슈노트 제2023-9호
정연	“고용 형태 및 사업체 규모에 따른 노동자 건강불평등의 현황과 정책과제”, 202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ISSUE & FOCUS, 제414호
정원석 · 이슬빈 · 조은정	“이상기후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2024, BOK 이슈노트 제2024-23호
채여라 · 황진환 · 김보람 · 연정인 · 김지원	“기후변화 리스크의 부산지역 주요 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 분석”, 2024, 한국은행 부산본부
통계청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2024
해양수산부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 매년 3.03mm씩 높아져”, 2023.12.19
행정안전부	“2022년 재해연보”, 2024
행정안전부	“7.8~10. 호우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2024.7.15
Benincasa, E., Betz, F., & Gattini, L.	“How do firms cope with losses from extreme weather events?”, <i>Journal of Corporate Finance</i> , 84, 102508, 2024
Orichton, D.	“Climate change and its effects on small businesses in the UK”, Axa Insurance, 2006
Kim, H. S., Matthes, C., & Phan, T.	“Severe Weather and the Macroeconomy”, <i>Federal Reserve Bank of Richmond Working Papers</i> , 21-14R, 2022
Rebecca Lindsey	“Climate Change: Global Sea Level”, <i>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i> , 2023
Wedawatta, G., Ingirige, B., & Jones, K.	“Climate change and construction sector SMEs: vulnerability, consequences and resilience”, <i>CB</i> , 2009
World Economic Forum	“Global Risks Report 2024”, 19th Edition, 2024
